1962年 12月 31日 印刷
1963年 1月 1日 發行

THE MISSILE

月刊 미사일

1963
1
新年號

特輯

軍人과 礼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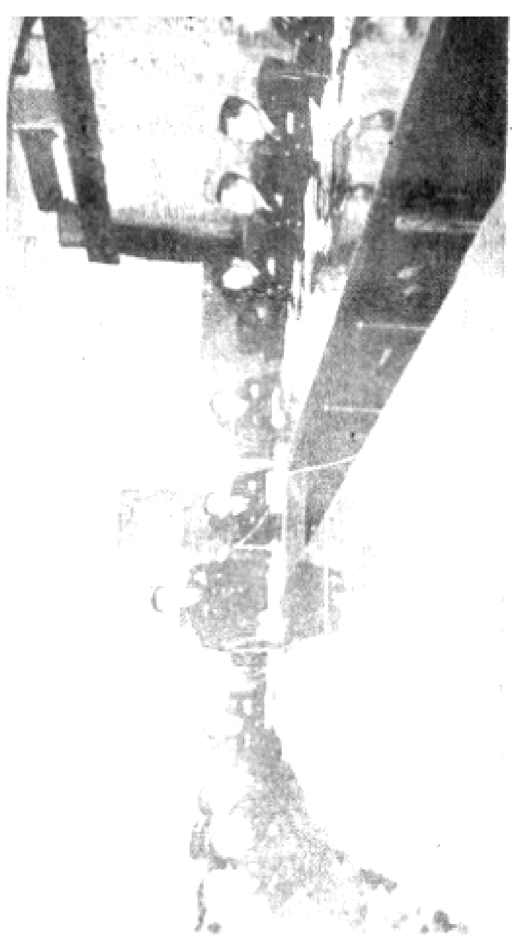
民政移讓과 國民의 覺醒

제 21 호

장참모총장에 기념 트로피 증정

공군사상에 기리 빛날 장성환 참모총장의 5,000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을 기념하여 공군장교단 일동이 마련한 기념트로피 증정식이 지난 1월 4일 본부에서 거행되었다.

<사진은 박참모차장(향우)이 동 트로피를 증정하는 광경>



공군지휘관회의 개최

1962년도 제3차 공군 지휘관회의가 본부에서 개최되어 임전태세의 확립 등 중요문제를 논의하였다. <1962.12.18>

쥬커트 미공군장관 내한

극동지구 미공군기지를 시찰중인 유진 M 쥬커트 미공군장관이 내한하여 장참모총장을 예방하였다. 공항에서 장참모총장의 영접을 받는 쥬커트 장관

<1962.12.11>

미사일 제 21호 차례 (신년호)

화보
- 장참모총장에 기념트로피 증정 (표지 2면)
- 공군지휘관회의개최 (표지 2면)
- 쥬커트 미공군장관내한 (표지 2면)
- 무의탁(無依託) 사병에 위문품 (표지 3면)
- 송년 시민위안연주회 (표지 3면)
- 문예작품입선작 시상식 (표지 3면)

☆ 신년사 · · · · · 공군참모총장 장성환(張盛煥) (2)

민정이양과 국민의 각성 〈이달의 말〉 · · · · · 이희복(李熙福) (4)

군인과 예절
- 자발적 예의라야 참 예의다 · · · · · 정인승 (23)
- 에티켓의 본질 · · · · · 김사우(金恩雨) (24)
- 국민도의(國民道義)의 재건과 군인 · · · · · 홍인표(洪仁杓) (26)

미 · 소의 무기개발 경쟁 · · · · · 권정식(權楨埴) (13)
제트공군기의 장래 · · · · · 홍성표(洪聖杓) (13)
◎초음속여객기 개발경쟁〈민간항공〉 · · · · · 외지(外誌)에서 (8)

서방에의 노크〈소련동향〉 · · · · · 솔스베리 (66)
군내현상논문가작 전우애(戰友愛) · · · · · 김춘식(金春埴) (52)
하사관론(下士官論) · · · · · 임희섭 (18)
★ 제트시대도래 〈항공발달사〉 · · · · · K · 나이트 (68)
★ 2억도의 인공태양 〈과학상식〉 · · · · · 외지(外誌)에서 (78)

북한실태 "20년 후에 오시오" · · · · · 속(續) · 깨어진 낙원의 꿈 (29)

〈만화〉 새해 새아침 · · · · · 김성환 · 고두현 (82)

특집 아이디어의 광장(廣場)
- 아이디어의 시대와 창조적 인간형.. · · · · · 이원영 (36)
- 사고의 트위스트 · · · · · 유철종(劉哲鐘) (40)
- 내 사고의 간척지역(墾拓地域) · · · · · 김응삼(金應三) (43)
- 창의(創意) 무용론 · · · · · 파아킨스 (47)
- 아이디어와 나 · · · · · 한기제 (50)

성미카엘 산(山) 〈세계 경이 순례〉 · · · · · 김영주 (59)

연재(延載) 심포지움 한국의 자랑 ① 우리의 미술 · · · · · 최순우(崔淳雨) (75)

현대철학강좌 ① 현대철학의 계보(系譜) · · · · · 김형석(金亨錫) (62)

수필
- 국전(國展)을 보고 · · · · · 손명현(孫明鉉) (84)
- 불상(佛像)의 문제가 아니라 · · · · · 여석기(呂石基) (85)
- 느 · 끄라쇠 · 빠 · · · · · 김향안(金鄕岸) (86)
- 단상어록(斷想語錄) · · · · · 박종철 (88)

〈글 · 그림〉
- 흐르는 시간과 같이 · · · · · 김기창(金基昶) (33)
- 시(詩) · 1963년 그 하늘에서 · · · · · 조병화(趙炳華) (93)
- 〈연재소설〉 신판 토끼전 · · · · · 계문수(桂文樹) (90)
- 〈명랑소설(明朗小說)〉 토정비결(土亭秘訣) · · · · · 조흔파(趙欣坡) (94)

목차 컬 · 내용 컬 · · · · · 우경희(遇慶熙)

군진수칙

일.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겠다.

일. 나는 항복하지 않겠다. 나는 전력을 다하여 끝까지 싸우겠다.

일.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더라도 계속 항거하고 전력을 다하여 탈출하며 전우의 탈출을 돕겠다.

일.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더라도 아국이나 우방에 불리한 여하한 적의 권고나 우대도 거절하여 추호도 적을 돕지 않겠다.

일.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더라도 기밀을 엄수하고 전우를 보호하고 선임자면 후임자를 통솔하고 후임자면 선임자의 명령에 복종하겠다.

일.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어 심문을 받더라도 계급, 성명, 군번, 연령을 제외하고는 진술을 회피하며 아국과 우방에 불리한 성명 기타 여하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

일. 나는 조국에 신명을 바친 대한민국 국인임을 명심하고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

일. 나는 조국을 사랑하며 조국은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확신한다.

군인의 길

하나. 우리는 국토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값있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바친다.

둘. 우리는 필승의 신념으로써 싸움터에 나서며 왕성한 공격 정신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차지한다.

셋. 우리는 솔선수범하여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고 명령에 복종하여 엄정한 군기를 확립한다.

넷.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을 즐거이 받으며 새로운 전기를 끊임없이 연마하여 강한 전투력을 갖춘다.

다섯. 우리는 존경과 신애로써 예절을지키며 공과 사를 가리어 단전을 굳게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

여섯. 우리는 청백한 품성과 검소한 기풍을 가지며 군용시설을 애호하고 군수물자를 전용한다.

일곱. 우리는 국민의 자제로서 국민을 위하여 자유민의 전우로서 자유민을 위하는 참된 역군이 된다.

혁명의 공약

1.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 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 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조속히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미 사 일

제 2 1 호

1 9 6 3

발 행 처 : 공군본부 정훈감실
발행겸편집인 : 공군대령 주정호(朱貞鎬)
인 쇄 처 : 공군교재창
인 쇄 인 : 공군대령 백춘득(白春得)

신년사(新年辭)

공군참모총장 공군중장
장성환(張盛煥)

친애하는 장병여러분

서기와 희망의 동이 트는 새해를 맞이하여 장병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과 영광이 있기를 빌어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제 전진과 발전이 기약된 제3공화국건설의 해 계묘년(癸卯年)을 마지 하였습니다.

이 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적 중대과업인 민정이양이 실현되며 민주복지국가의 재건과 자주경제를 달성할 새 공화국의 탄생이 약속된 해입니다. 이러한 민족적 사명수행에 그 기점을 마련한 성스러운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또한 민족의 번영을 이룩해야 할 젊은이로서 힘찬 전진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국가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복지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의 번영, 국가의 안전보장 등 모든 것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 된 생활을 위한 것이며, 결코 어느 특정된 목표를 위해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행복은 종국적으로 동일한 것이며 상이(相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부강과 국민의 행복은 국민 개개인의 일에 의존되는 것입니다. 그 국가의 국민 개개인이 근면하고 복지를 위하여 노력한다면 그 국가는 부강 될 것이며 반대로 이러하지 못할 시에는 후진성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묘년을 민주복지국가의 재건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차년으로서 경제부흥의 기초를 이룩하여 후진성을 면하고 보다 나은 구가를 건설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달성의 원동력은 한결같은 국민의 근면과 노력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래의 인습주의(因襲主義) 안일무사주의 그리고 의타주의 등의 낡은 사고방식과 생활태도에서 벗어나 각자가 오늘날 조국이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진정한 충성심을 발휘하여 모든 국민이 합심하고 상호 협조하여 묵묵히 전진한다면 우리의 민족적 사명은 무난히 성취될 것으로 굳게 믿는 바입니다. 또한 국방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의 금년 한해도 전력증강과 가상할 수 있는 전쟁상태 하에 있어서도 승리를 획득(獲得)하게끔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군이 평시에 존립하는 목적은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전쟁에 대처하며 비상시에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155마일 전선에 걸쳐 직접 적과 대진(對陣)하고 있으며 공중 기습공격의 위협을 항시 받고 있습니다. 전력의 증가는 양과 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양의 증가에는 어떠한 제한점이 있다고 보나 가급적 그 증가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무한대적인 질적 증가에는 최대의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장비와 물자의 능력을 100%발휘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는 가상된 전쟁 하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철두철미한 훈련이 실시되어야하며 이에 수반하여 전략전술도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천변만화(千變萬化)하는 공산세력의 침략기도와 급속한 과학무기의 발달은 예기치 못할 국제정세를 조성하며 이에 수반하여 전략전술에도 많은 변천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제정세나 전략전술의 변천에 대비하여 꾸준한 연구와 경계가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을 국가 경제력에 비하여 볼 때 우리는 막중한 국가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사관리 군수 관리 기타 모든 관리운영을 기하는 동시에 이러한 관리운영의 토대가 되는 행정에 있어서도 쇄신(刷新)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전력구성의 (기본적인) 요소인 정신면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풍을 조성하여야 되겠습니다. 근면한 정신 굳건한 군인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를 최대의 충성심으로써 완수한다는 공군의 기풍을 굳게 수립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우리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과 위치를 재인식하고 배전(倍前)의 노력을 가하여 민족적 사명완수와 국토방위에 완벽을 기하고 보다 나은 번영과 행복을 누리어 나아가 자유세계 수호의 중임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병여러분의 힘찬 전진을 촉구(促求)하면서 건투를 빌어 마지않는 바입니다.

1963년 원단(元旦)

이달의 말

민정이양(民政移讓)과 국민의 각성(覺醒)

1963년은 희망의 해이다.
그동안 온 국민이 총진군한 혁명과업의 완수를 위한 사업들은 굳건한 기반을 마련하여 민정으로 물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희복(李熙福)
〈문교부 수석편수관(首席編修官)〉

○ 희망의 해

돌이켜 보건데 5·16혁명은 우리의 조국을 발전시키기 위한 비상조치이었으며 우리의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성업(聖業)이었다. 국민이 이를 지지하고 국민이 혁명정부를 신뢰한 것도 이 불가피한 정상을 알았기 때문이요, 이 과업의 중대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공약(公約)에 명시된 바만을 추려 보아도 부패의 일소, 경제의 재건, 반공태세의 확립 등등은 과감한 시책으로 말미암아 눈부신 전진을 본 것이 사실이다.

거리의 신호등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역할을 하는 신호등으로 변하였고 고리채와 고액 국세 체납자는 자취를 감추었으며 전국의 방방곡곡에는 재건의 함마 소리도 드높게 우렁차고 국군은 적침을 막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등은 국민 자타가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일가를 이끌어가는 데도 계획이 있고 시행 절차가 있고 시일을 요하는데 하물며 국가의 경륜(經倫)이 일조일석에 완성될 리가 만무하다. 5천년을 두고 묵어 왔다면 과장이 있겠으나 거의 곤절이 되다시피 한 민족의 타습을 버리고 새로운 터전 위에 새로운 씨를 뿌려서 가꾼다는 것은 더욱 치밀한 계획과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의 부정이나 부패나 무질서는 누구의 탓이었던가를 살펴보자. 흔히 지도자가 나쁘다고 한다. 물론 지도자도 나빴다는 것은 사실이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이권을 위하여 자리를 배급하는 일들이 과거의 지도자들이 하던 일이다.

그러나 이런 짓을 허용한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 우리 국민은 국민이 가진 나라의 주인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해서 지도자를 뽑았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민주정치는 그 책임을 지도자에게만 전가하고 국민은 한가로이 앉아 있을 수는 없다. 그러한 지도자에게 국민의 심판이 가해져야 한다. 국민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인 것이다.

민주 정치는 여론의 정치이며 국민을 위한 정치이다. 이것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베풀어져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중간에 사감(私感)이 개입될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지도자는 지도자의 길이 필요하고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각성이 필요하다. 이 양자의 정신이 일치될 때에 민주 정치는 본연의 사명을 하게 된다.

정권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부정 선거를 감행하고 민중이 멋도 모르고 이에 호응하여 작당하고 반대파를 누르고 하는 일들은 우리나라에서 다시 있어서는 아니 된다. 민주주의는 시간을 요한다고 한다. 그 시간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더 좋은 길을 찾기 위한 시간이요 민중이 차여할 수 있도록 계몽하고 민중의 정치의식이 높아가기에 필요한 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에 여러 차례에 걸친 선거를 치렀고 선출한 지도자들이 어떤 경우에 어떤 일을 해 왔는지를 보아 왔다. 흔히 이런 경우 우리 국민은 하는 수 없다고 체념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용서한 일이 많았지만 이는 민주주의의 역행(逆行)이요, 국민이 바르게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한 탓이 된다.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지도자를 뽑을 해를 맞이한다.

그 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속지 말고 국가 장래를 위해서 헌신적(獻身的)으로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1963년은 민정 이양의 해이다. 이 민정은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해이니 이 해는 확실히 우리 국민이나 우리 국가를 위한 희망의 해이다.

○ 주인의 자격

사람을 쓰거나 일을 할 때나 주인은 주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이 있다.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다. 주인으로서의 권리가 있고 동시에 주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도 있다. 이 양면이 겸비(兼備)되어야만 주인다운 주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이 곧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민도(國民道)라고 할 수 있다.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등등은 국민이 주인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며 거주의 권리, 정치 참여의 권리, 또는 자유의 권리 등등은 주인으로서 마땅히 행사해야 할 권리이다. 그러나 이 권리마저 뜨뜨 미지근하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태도를 취하는 이가 있다. 전체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란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민은 우선 공정하게 권리를 행사할 줄 알아야 한다. 공정하다는 데에 값이 있고 뜻이 있는 것이다. 아무렇게나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있으나 마나의 권리요 귀중한 권리가 되지 못한다. 민주주의에서 투표가 중대한 뜻을 중대한 구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새삼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프랑스 혁명 때에는 단 한 표의 차로 왕의 목숨이 왔다 갔다 했고 국사의 중요한 결정이 이 표로서 이루어짐은 물론이다. 자칫 잘못하면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의 목숨도 오락가락할 판이니 투표의 중요성은 더욱 중대성을 띠게 된다.

여기에는 국민의 양식(良識)과 판단력이 필요하다. 사람이니까 양식이 흐릴 때도 있고 판단에 망설일 때도 있다. 그러나 이런 정도에 이르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으로 생각했다고 할 수 있으니 정실에 끌리거나 무조건 찍으라니까 찍는 식과는 다르다.

영국은 보수적인 전통이 강한 나라로 유명하다. 새 것을 마련했다고 자랑하는 것보다는 묵은 것을 오래 쓰는 것을 자랑하는 국민이다. 안방구석에 있는 침대가 몇 대의 조상 때부터 쓰인 것이며 몇 년이나 되었다는 데에 값어치를 인정하는 국민이요, 어려서부터 신사숙녀를 목표로 하여 교육을 받는 나라이다. 따라서 일상생활도 서로 믿고 서로 도와 정직함을 존중하게 생각한다. 런던을 달리는 택시는 아무리 새 차가 나와도 형을 검고 네모난 전통을 그대로 이어 받는 것이다. 이에 비하면 미국은 모든 것이 새로움을 자랑하는 소비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입는 옷에서 일상생활 용품에 이르기까지 낡은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찾는 나라이다.

이렇게 풍속 습관이 다르면 자연 생활 양식도 달라진다. 생활양식이 다르면 민주주의에 대한 사고방식도 달라진다. 그리하여 영국식 왕실중심의 민주주의가 있고 미국식 대통령 중심의 민주주의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양국(兩國)이 다 투표에 의하여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식은 같다.

이 투표 때에는 영국 사람은 평소의 정직을 어겨도 좋다는 것이다. 즉 일상생활에서는 거짓말하는 것이 도덕률에 배반되는 큰 잘못으로 되지만은 투표를 할 때만은 거짓말을 해도 좋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 거짓말이 일신의 영달이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방편(方便)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흡사하게 영국에서도 선거기가 되면 입후보자들이 연설을 하고 친지를 찾아서 부탁을 한다. 그럴 때에 입후보자가 둘 셋이나 와서 청을 할 때 그 사살들에게 다"찬성 하겠습니다"는 말을 해도 좋다는 것이다.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표도 하나이기 때문에 세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는 이미 누구를 천거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럼에도 찾아온 손님에게 섭섭한 마음을 주지 않고 우정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편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우리는 영국 국민의 민주주의적 훈련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상당한 경험과 권리 행사의 기준 밑에서 이러한 방식을 낳게까지 하였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배울만한 태도이며 우리도 이런 정도까지 국민의 수준이 높아져야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군인은 국민인 동시에 국방의 성직(聖職)을 몸에 지니고 있는 특수한 집단이다. 군인의 정신이 이완되었을 때는 국체(國體)를 보존하기가 힘들게 된다. 그러니 국방은 국가의 최고 명령이며 그 명령의 근원인 국책(國策)까지 정하게 되는 지도자를 선출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나 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속하는 것이다.

○바른 주인의 조건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연조가 얕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지도 모른다. 그러하다면 우리 국민은 하루 속히 이 낙차(落差)를 극복하여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새 나라를 건설해야 할 사명감에 불타야 한다.

혁명 과업은 계획 단계를 지나서 실천 단계로 접어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완성 단계까지 멀고멀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그 첫발을 내디딘 셈이며 앞으로의 추진 여부가 극히 주목된다. 이러한 사업은 물론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지도층의 사람만으로 이룰 수는 없다. 각계각층의 지혜를 짜내고 협조를 얻고 국민의 노력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이니 결국은 이 계획도 주인이 할 사업이고 주인인 국민을 위한 사업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시킬 지도자가 금년에는 선출되는 해이니 우리 주인으로서의 행세를 하게 되는 셈인데 여기에는 주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

군인은 중견 국민이며 특히 선정된 공군(空軍)은 국민의 지도층이다. 그렇다면 공군의 장병들은 주인으로서의 임무를 다 하며 동시에 지도자로서의 계몽 운동에는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에서 4·19소식을 들었을 때에 미국에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느낌을 유독히 가졌다. 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을 보았을 때에는 미국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감을 두터이 하였다. 4·19때의 미국 사람의 질문은 거의 약속이나 한 듯이 같았다.

"한국에서는 어떤 정당이 있는가?"

"어떤 지도자가 있는가?"그리고

"한국 학생은 어떤 정당을 지지해서 거사하였는가?"등등의 질문이다.

한국의 학생이 어떤 정당이나 지도자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현 지도자에 대한 불신을 규탄하는 것이라고 설명해도 그들은 고개를 흔들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인은 선거권이 있으면 누구나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숭배하는 지도자가 있다. 자기의 이념으로 어느 하나를 택할 권리가 있다. 그것이 없다는 민주주의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낸 세금이 한국에서 부당히 낭비되었는가? 하고 꼭 묻는다. 세금을 지출한 주인으로서 그 세금이 바르게 쓰이지 못했다면 책임을 묻고야 말겠다는 기세이다.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미국 국민이 주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주인의 자격으로 그 권한을 유효하게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될 사람은 자기의 신조나 자기의 정책을 갖는 기회를 통해서 국민에게 이해시키기에 힘쓰며 대립된 정당의 지도자와 자리를 같이해서도 토론도 한다.

그렇다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고 필요한 조건을 이해하고 지도자로서의 자격이나 인품까지도 세밀히 알아서 국사(國事)를 맡길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의무이며 바른 권리의 행사가 된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가깝고도 멀다. 가까이는 국민 각자가 자기들을 위한 민주주의 기본 권리를 행사하며 그 체제 밑에서 국가의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는 점이다. 좋거나 싫거나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행사가 잘못 되었을 때는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게 된다. 여기서 교조적 또는 지도적 민주주의가 미개발 지역에서 탄생하는 이유도 될 것이다.

1963년의 새해를 맞이함에 있어서 제3공화국의 굳건한 터전을 만드는 거족적인 의무와 권리를 다 함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도 우리는 주인 될 바른 자격을 갖추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라아드부르흐는 민주주의는 상대주의, 중립성, 관용사상의 삼자가 골자이며 상대주의, 중립성, 관용사상의 배후에는 자유의 적극적 가치, 법치국가의 긍정으로의 자유, 인격의 배양원으로서의 자유, 문화 창조의 기초로서의 자유가 존재한다고 하고 자유는 민주주의적 정조(情操)의 총체라고 하였다.

미(美) · 소(蘇)의 무기개발(武器開發) 경쟁

권 정 식(權楨植)
〈국방대학원교수〉

미 · 소 군비의 양적현황

영국의 물리학자이며 저명한 군사이론가이기도한 P·M·S·부라켓트 교수는 그의 논문「군축(軍縮)에의 발판」에서 소련의 핵 공격력은 미국에 비하여 엄청나게 열세(劣勢)하다고 지적하고 1961년 중간기의 소련의 미사일 보유량은 그로부터 2~3년 전 미국에서 미사일·캡슐 논쟁이 한창일 때에 예상했던 수량의 3.5%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소련이 보유하고 있는 실체의 공격무기를 다음과 같이 추산하였다.

ICBM 약 50기

IRBM 약 400기

대륙간 폭격기 약 150기

그리고 작년(61년) 11월 중순에 영국 전략연구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미·소간의 이른바 '공포의 균형' 상태는 다음과 같다.

종 별	미 국	소 련
ICBM	234	75
IRBM	250	700
핵잠수함	33	10
폴라리스잠수함	6	0
장거리폭격기	630	200
중거리폭격기	1,000	1,300

최근 'US뉴스 앤드 월드리포트'지는 미국은 대륙간탄도탄 분야에서 소련보다 압도적으로 우수한 지위에 있어 이른바 '미사일·갭'을 걱정해야 할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소련이라고 말했다. 동지(同誌)는 현재 미국이 소련을 강타할 수 있는 미사일을 405기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서 소련은 미국에 도달시킬 수 있는 미사일을 불과 125기 밖에 갖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전략 미사일 보유량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서부의 기지에는 157기의 실전적 아틀라스와 타이탄이 있고, 9척의 원자력잠수함에 적재된 폴라리스 미사일은 144기인데 이 잠수함이 대부분은 소련 근처의 해역을 항상 초계(哨戒)하고 있다"고.

출처에 따라 수치가 구구한 것은 비밀이 유지되어 있는 관계상 불가피하지만 하여튼 미국이 소련보다 우위에 있었던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핵에너지의 보유량에 있어서도 소련은 미국의 절반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 이 계통 전문가들의 통설인데 미국의 보유량을 최소수치인 3만 메가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은 TNT 300톤에 해당하고 히로시마(廣島) 원자 폭발의 150만발분의 에너지이다. 이것을 30억 인류에게

공평히 분배한다면 한 사람 앞으로 10톤이 돌아간다.
현유무기(現有武器)의 위력이 대체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적인 측면에서의 경쟁 상태를 고찰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따라서 본고는 그 초점을 질적인 면으로 돌려 보기로 한다.

주요경쟁분야

미국과 소련사이에 전개되고 있는 현실적인 무기개발경쟁은 대체로
첫째 어느 쪽이 요격(邀擊) 미사일을 먼저 완성하느냐?
둘째 핵탄두의 부피를 경소(輕小)하게 하면서 핵 폭발력을 증가시키는 기술적인 문제
셋째 미국을 따르려는 소련의 폴라리스 잠수함의 개발 촉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외에도 유인비행기 및 중성자폭탄의 개발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전략용 무기에 관한 한, 미국은 RS-70을 제외한 모든 유인비행기의 제작을 중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미국 공군은 발주했던 B-58 100대와 B-52 744대의 마지막 비행기들을 제작(61년) 11월 초순에 컨베어와 보잉 양비행기회사로부터 각각 완전히 인수하고는 새로이 주문을 않고 있다.
중성자는 모든 방사능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다. 생물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원자핵을 단순히 폭쇄(爆碎)해 버린다. 두터운 철판은 물론 2미터 가량의 콘크리트 차폐벽(遮蔽壁)에 숨어 있는 사람 같은 것은 순식간에 살해할 수 있는 무서운 살인광선이다. 중성자 20그램만 있으면 7억5천만 명의 인간을 순식간에 살해할 수 있다고도 한다. 20그램의 중성자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로서는 이중수소 0.4그램과 삼중수소 0.6그램 도한 1그램만 있으면 족하다고 한다.
이에 비하면 약 500그램의 우라늄으로 TNT 20만 통의 폭발력을 갖는 히로시마 형 원자폭탄은 여러 면으로 원시적인 동시에 불 경제적이다. 중성자폭탄의 또 하나의 이점은 원수폭(原水爆)과는 달리 고열도 충격파도 발생하지 않는데 있다. 즉 적지에 투하했을 경우 사람만을 살해하고 건물이나 시설에는 전연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성자폭탄을 사용해서 전쟁에 승리한다면 보통의 핵전쟁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전리품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과학의 수준으로서는 원폭 혹은 수폭을 방아쇠로 사용하지 않는 한, 대량의 중성자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원수 폭을 기폭제로 하는 중성자탄이라면 핵분열 또는 핵의 융합시에 발생하는 고열과 충격파를 수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중성자폭탄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진다. 그리고 가령 전장이나 적지의 상공에 운반할 수 있는 크기의 중성자폭탄을 완성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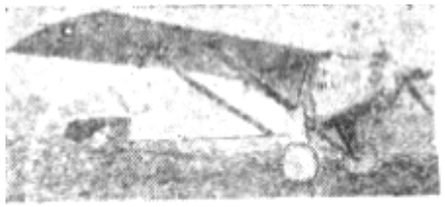
<민간항공(民間航空)>

초음속여객기(超音速旅客機) 개발경쟁(開發競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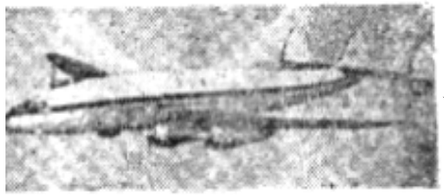
- 그 현황과 문제점 -

세계의 하늘은 또다시 커다란 변혁직전에 있다. 최근 수년래 본격적인 제트기 시대가 전개되었다고 떠든 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덧 그 제트기 시대도 지난날이 되려고 하고 있다. 그것은 일진월보 항공계가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음속 여객기'의 출현이 그것이다.
미·영·불·소련은 10년 후의 하늘을 내다보면서 제각기 머리를 싸매고 이의 연구와 계획에 몰두하고 있는데 그 경쟁은 자못 심각한 것이 있다. 특히 최근에 '초음속 논쟁'을 일으켜 세계의 이목을 끈바있는 영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불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음속 여객기의 프로필과 그 문제점을 탐색해 보기로 하자.
영국의 상원(上院) 이라고 하면 왕족을 필두로 켄터베리-대사교(大司敎)며 귀족들로만 구성한 '양반'들뿐이다. 작년 11월 중순 어느 날, 이 상원에서 곧잘 벌어지는 대 논쟁이 일어났다. 차례차례로 일어선 귀족 의원들은 어떤 하나의 문제에 관하여 정부의 견해를 꼬치꼬치 파고 있었다. 수퍼소닉 즉 '초음속'이라는 용어가 그것이었다. 꿈의 나라와 같은 초음속 여객기의 문제가 영국의 국내정치문제에 엇걸려 들어 중세풍(中世風)의 위엄과 전통을 이상 없이 존중히 여기는 영국 상원에 것 잡을 수 없는 회오리바람을 일으켰던 것이다.
현재 세계에는 700기 전후의 대형 제트기가 취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IAT세계 항공운수협회 추정) 대표적 기종인 DC8, 보잉707, 콘베아880, 900 (이상 미국), 코메트(영국), 카라벨(프랑스) 등은 모두 순항속도(巡航速度) 900km정도, 아음속(亞音速)이라 불리 우는 그룹이다. 이다음이 영국 상원에서 문제되었던 음속(1,225km=마하)를 돌파하는 여객기의 출현이 예상되고 누구보다도 앞서 이 초음속 여객기를 실현하는 나라가 세계의 항공을 영도하는 다음 시대의 챔피언으로서 그 영광과 실리(實利)를 획득하는 것이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많은 식민지의 독립과 경제적인 지반침하현상(地盤沈下現象)으로 그가 가졌던 세계적 지위를 상실하였지만 아직까지 "세계의 관(冠)이라는 자랑과 자부심을 잃지 않게 하는 국민적 우월감은 그들이 가진 항공기술의 우수성이라 생각하고 있다. 수년전, 런던=뉴

대서양 횡단 소요 시간표



스피릿 오브 센인트루이스호(린드바그기) 순항속도 약200킬로
뉴욕→빠리 33시간 30분



록히드·콘스테레이션(프로펠러기) 순항속도 약500킬로
뉴욕→런던 10시간 45분

보잉707(현재 운항중) 순항속도 약900킬로
뉴욕→런던 7시간

영불합작초음기계(機計) 순항속도 약2,000킬로
뉴욕→런던 3시간

미국초음속기(마하3)(계획) 순항속도 약3,200킬로
뉴욕→런던 2시간

해도-이것은 꿈같은 이야기지만-이에 대한 방어수단은 보통의 원수폭에 대한 것보다 훨씬 단순하기 때문에 그다지 겁을 낼 필요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에 와서는 중성자폭탄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요격미사일(AMM)의 개발

흐루시초프 소련수상은 지난 7월 14일 미국의 신문기자와의 회견에서 소련은 요격이 불가능한 지구 로케트 즉 파리채와 같은 미사일을 완성했다고 자랑한 바 있는데 이에 앞서 작년 10월의 제22차 공산당대회에서 소련 방어상 마리노프스키는 "나는 비행중의 로케트를 파괴한다는 과제가 훌륭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을 특별히 보고 한다"라고 말하며 주목을 끈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지난 7월 19일에 처음으로 나이키·제우스로 불리는 미사일 요격미사일의 제1차 전단계 실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비교하면 소련은 요격미사일 개발에서 미국보다 훨씬 앞선 것 같은

우욕을 연결하는 대서양 횡단항공로에 있어서 영국과 미국의 어느 편이 먼저 제트 여객기를 취항시키느냐하는 이른바 '하늘의 부루-리본경쟁'이 전개되었을 때 영국 국민들은 이것을 '대서양의 사움'(배틀 오프 애틀란틱)이라는 뜻에서 받아들여 거국적인 지원체제(支援體制)를 취했던 것이다.
결국 1958년 가을, BOAC(영국해외항공)의 코메트4형이 미국의 팬아메리카사의 보잉707보다 빨리 취항하여 그들의 항공기 기술에 개가를 올렸는데 초음속기의 경우에도 방금 영국과 미국은 맹렬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될 수 있으면 단독의 힘으로써 이 영광을 전취하고 싶은 영국이지만 영국은 자금난을 커버하기 위하여 같은 구라파의 이웃사촌 프랑스와 손을 잡고 이 사업의 완성을 성취할 궁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의 저명한 군책 항공기 제작회사인 BAC(영국항공기회사)와 프랑스의 제트·에이비에이션사는 수년전부터 공동연구로 추진하여 초음속기의 설계를 거의 완성하였다. 작년 9월 영국과 안보로의 항공 쇼에는 이 BAC와 제트·에이비에이션사의

인상을 주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는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ICBM의 탄두는 시속 1,600마일, 음속의 약20배의 속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이것을 도중에서 떨어뜨린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미사일 자체를 물리적으로 피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적의 미사일을 무력화시켜 그의 성능을 정지시켜 버리는 것이다. 첫째의 방법은 적 미사일의 탄도를 미리 계산해 두었다가 미사일의 탄도 상에 금속의 파편을 산포하여 미사일이 그 속을 통과하는 사이에 폭발력을 상실시킨다는 것이다. 이 파편을 중성자와 같은 방사능 혹은 열선으로 대치해도 탄두내의 핵분열물질의 연속반응을 저지 한다던가 과열시키는 것으로 탄두를 무력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미사일 요격미사일은 단기경보조직과 항적추적조직 및 탄두파괴수단이라는 삼자가 결합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작년 9월에 시작하여 1년 3개월간이나 연속되고 그 횟수가 120~130회(미국의 지하실험 56회를 제외)에 대한 미·소의 대기권내 핵실험에서도 미·소 공히 미사일 요격미사일의 개발과 적의 AMM에 대항하는 수단으로서 핵폭발이 레이다 및 통신망에 주는 영향의 조사 등의 목적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미국은 핵탄두가 아닌 보통탄두를 단 나이키·제우스의 실험에 성공한 것을 비롯하여 존스톤 섬에서 지상 60km이상의 고공에 핵탄두를 폭발시켜 적 미사일의 핵탄두를 무력화하는 중성자의 확산상태를 조상하는 AMM 개발용의 실험을 반복하고, 7월 7일에 1.4메가톤의 탄두를 400km의 초 고공에 폭발시켜 레이다나 무선통신망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했다.

이에 반하여 소련의 실험 실적을 개관하면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40-50회의 실험과 금년 월부터 현재까지의 32회의 실험을 통산할 때 그의 약 반수가 10메가톤급이며 그 중에는 60년 10월 30일의 58메가톤을 필두로 30메가톤급도 몇 개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대형의 핵실험은 AMM의 개발과는 인연이 먼 선전용의 것이며 동시에 현재의 과학수준이 어떠한 특정분야에서 소련이 미국보다 월등히 앞설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는 점과 소련이 흐루시쵸프나 마리노프시키의 말을 실증할 수 있는 아무런 구체적인 제시가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의 발표는 과장된 허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미국이 나이키·제우스를 전국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총액 224억불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는데 소련은 그들의 경제적조건 때문에도 이 고가의 AMM의 개발이나 생산은 아직 불가능했을 것이다.

설계인 초음속 여객기의 모델이 공개되어 갈매기처럼 스마트한 기체로 하여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새로운 하나의 여객기를 개척하는 데는 거액의 개발비를 필요로 한다. 문제가 되어있는 마하2(최고속도 2,000킬로 전후)정도의 시작기(試作機)를 만들어내기까지에는 금후 5년의 세월과 약 17,500만 파운드(약 875억원)의 자금이 소요된다. 이것을 영국 측이 7,500파운드 프랑스측이 14억 신프랑(1억파운드) 각각 분담하자는 것이 영불공동 플랜의 골자이다.

이 같은 거액의 자금을 민간사업회사가 독립으로 부담 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 양국정부가 전면적으로 가금을 공여해야만 한다. 여기서 양국관계당국자가 교섭한 결과 현재의 계획으로는 ① 1967년~8년까지에 마하2.2의 시작기를 완성, 그 다음에 본격적인 생산을 개시하여 1970년에는 취항하도록 한다.

② 장거리 형(항속거리 5,600킬로, 백인승)과 중거리 형(3,400킬로, 백인승)의 2종을 제작하고 장거리 형은 영국에서 중거리 형은 프랑스에서 제작한다.

③ 사용엔진(사발)은 영국 푸리스톨시드레 사에서 개발 중인 올림푸스 엔진으로 하고 프랑스의 메카가 기술적으로 협력한다.

④ 완성되면 공공의 판매클럽을 만들어 수뇌에는 영불 양 국인이 교대로 취임 한다 등으로 되어 있다. 프랑스측은 '구라파의 영광'을 외치는 드골 대통령을 본 따서 영국이 도중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프랑스는 단독으로 끝까지 완성할 것이라는 강력한 태도를 취하여 이미 작년도에 1억 2,500만 신프랑, 금년도(63년) 1억 1천만 프랑 예산조치까지 취하였다.

프랑스가 이렇게 나오자 영국정부도 작년11월 29일 런던에서 프랑스 정부와 정식으로 조인은 하였는데 넉넉지 못한 국가 재정에서 그것을 지출한다는 것이 과연 적당한가?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도박이 아닌가? 이것이 영국 상원의 '양반'들의 논쟁이 되었고 신문, 잡지 등에서도 찬부 양논 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것이다.

한마디로 '초음속'이라 하지만 스피드에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으며 차기여객기는 마하2 정도가 적당한가? 또는 한걸음 더 나아가 마하3(최고시속 3,600킬로) 정도를 만드는 것이 적당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항공계에서는 양론으로 대립되어 있다. 최대의 문제점은 기체를 만드는 재질(材質)이다. 초음속으로 나르면 공기마찰로 날개며 기체의 표면에 고열이 발생, 마하3의 경우에는 약 450도의 고열에 달한다. '음벽(音壁)' 다음에는 '열벽(熱壁)'이라는 것인데 이 벽을 돌파하려면 종래의 제랄루만과 같은 경합금으로서는 되지 않으며 티탄합금, 스프레스와 같은 내열자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종래의 경합금을 간신히 어떻게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마하2 정도(마찰열 140도 정도)이며 때문에 영불합동계획은 그것의 최대한도

핵탄두(核彈頭) 위력(威力)의 향상과 소형화

핵탄두의 경감(輕減)과 위력 대 중량비의 향상에 성공한다면 같은 중량과 용적으로 몇 배의 폭발력을 갖게 할 수 잇을 것은 물론 또 중량을 반감시켜서 여분의 유도장치(誘導裝置)를 적재하여 미사일의 명중정도를 향상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지난 4월부터 8개월간 크리스마스와 존슨의 양 섬 주변에서 실시된 미국의 태평양핵실험 토미닉 작전에서는 초고공실험을 포함하여 36회의 대기권내 핵실험을 실시했다. 미지(美誌) 뉴스위크의 보도에 의하면 이 일련의 실험의 결과 미국은 미니트맨과 폴라리스 양 미사일 탄두를 0.5메가톤에서 1메가톤으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고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통은 케네디 대통령이 최근에 와서 소련 측의 핵실험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크리스마스 섬에서 수행된 미국의 핵실험에서 로케트 전문가들은 미사일 탄두에 있어서의 위력 대 중량의 관계에서 큰 전진을 보여 미국은 현재 1958년 당시의 10배나 강한 탄두를 제작할 수 있는데도 그 비율은 중량 1파운드 당 5킬로톤의 위력을 갖게 되었다고 라고.

이에 비해 소련은 전술한 바와 같이 주로 대형폭탄의 실험을 거듭해 왔다. 핵폭탄에는 폭발력과 피해면적의 관계는 삼승근(三乘根)에 비례하며 8배의 폭발력으로서도 피해는 2배밖에 안 된다는 공식이 있으니 소련의 이와 같은 대형폭탄의 실험은 '선전용의 무기'에 불과하고 '소련은 기술적으로 뒤떨어져서 핵탄두의 소형화가 안 되기 때문에 로케트도 대형의 것이 발달되었다는'견해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다.

폴라리스 잠수함(潛水艦)

미국은 수준에서 폴라리스 유도탄(誘導彈) 16발을 발사할 수 있는 핵잠수함 9척이 이미 취역하고 있고 얼마 전에 열한 번째의 잠수함이 진수했다. 그리고 1965년까지에는 약45척의 폴라리스 잠수함이 생산될 것이다. 이것이 완성되면 미국은 소련 주변의 바다 속에 최소한 720메가톤의 핵탄두를 상시 배치할 수 있게 된다. 제2차 대전에서 58개의 교전국이 2,191일간에 온갖 수단을 다하여 상호 투발(投發)한 전 에너지양이 3메가톤에 불과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이것이야 말로 '철벽의 저지력'이 아닐 수 없다.

소련이 원자력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보도는 이때가지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이것이 확인된 것이 거의 없고 그 존재는 극비에 부(附)해져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소련이 이 뚜껑을 열기 시작하였다. 흐루시쵸프는 지난 7월 19일 해군총사령관 등을 대동하고 물란스크 부근의 잠수함기지에서 원자력잠수함을 시찰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소식통은 후르시초프가

인 마하2.2를 내세웠는데 미국에서는 보다 야심적인 구상으로 마하3에 도전하여 연방항공청, 항공우주국, 국방총성 등을 중심으로 미국 간 회사도 집결하여 실재질의 개발연구에 그 물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중이다

이'열벽'을 돌파하려는 마하3 초음속 여객기는 늦어도 1975년까지에는 완성되어 실용화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때문에 영불이 마하2.2를 만들어내었다 하더라도 곧 뒤이어 마하3의 시대가 출현한다면 모처럼 제작하였다 해도 수포에 돌아가는 것이며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면할 수 없게 되리라는 점에서 걱정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이러한 입장에서 신 중론을 펴고 "마하2 정도의 여객기를 제작한다는 것은 보수적인 아이디어며 하등 본질적인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될 수 없다. 마하2.2 논자는 미국의 마하3보다 적어도 5년은 앞설 것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항공계에 바보만이 모였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중요한 타이밍의 감각을 잃고서는 앞날을 내다보는 항공행정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수년래 본격적인 제트기 시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심각한 불경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 세계의 항공회사의 현상이다. 종래의 프로펠라기에 비해 수송능력은 훨씬 증가 했음에도 수요자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각사가 모두 공급과승(供給過乘)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세계항공 운수협회의 추정으로서는 62년도 가맹 각사의 적자 합계는 250억원이 넘을 것이라 하는데 현재의 아음속 제트여객기의 감가상각도 하지 않는 사이에 1기 30억원 이나 하는 초음속 여객기가 등장한다면 각 항공회사는 파멸적인 타격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초음속 여객기라 하지만 영국의 실업가가 뉴욕을 몇 시간 빨리 간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객들이 바라는 것은 대서양 횡단이 2, 3시간에 가능하다는 스피드가 아니고 싼 값으로 이용하고 싶다는 점이다. 초음속기는 각 항공회사를 구원할 수 없는 영원한 적자의 나라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불과하다"라고 영국의 전기한 상원의원들은 논란을 퍼부었던 것이다.

문제점은 이밖에도 여러 개가 있다. 첫째는 비행시의 폭음의 문제다. 초음속 여객기는 항로지대의 폭 약 30킬로에 걸쳐서 우레와 같은 폭음을 내기 때문에 주민이 밀집한 곳의 상공을 비행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대서양 상공은 무방하다 하겠지만 구라파 상공에서는 문제가 된다. 이러한 폭음의 문제 외에도 고도 2만 미터를 비행할 경우 우주선(宇宙線)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한다. 그런데 아무도 이 문제에 관해서 확실한 전망을 단정지을 수는 없다. 더욱이 임부(妊婦)와 젊은 여성은 이 위험을 범하고 초음속 여객기를 이용해야 한다. (영국 상원에 있어서의 브루반슨 경의 발언)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볼 때 초음속 여객기의 실현에는 많은 가시밭길을 걸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영국령정부는 프랑스부와 계약서에

그 익일 즉 7월 20일에는 함대에 탑승하여 원자력잠수함이 미사일을 수중에서 발상하는 광경을 보았다고도 했다. 그리고 북양함대잠수함전대 사령관, 원자력잠수함장, 동(同)전자공학전투부대지휘관 등 3명에게 소련 영웅의 칭호를 주고 레닌훈장과 금성상(金星賞)을 수여하였다고 한다. 이것으로서 소련도 미사일을 준비한 원자력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은 밝혀졌다. 이 미사일이 미국의 폴라리스와 같은 사정을 가진 '전략형'의 것인지 혹은 소련이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단사정(短射程)의 전술형의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고체연료의 개발 분야에서 소련이 미국보다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과 기타의 각종 정보나 자료로 미루어 후자일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소련의 해군 제1부사령관 호킹이 최근에 "소련 해군은 모든 전략적 전술적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전제하고 "그 화력은 대폭 증대시킴으로써 기술혁명을 이룩한 소련해군은 바야흐로 강대한 바다의 적에 대하여 기지를 멀리 떨어진 광대한 대양 상에서 적극적인 전투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놀라운 타격력이 되었다"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통하여 미국의 폴라리스의 우위가 붕괴되었다는 인상을 짙게 하는 발언으로 주목을 끈 바 있다. 그러나 금년 11월 27일 영국에서 발간된 제인 해군연감(1962-63년판)에 의하면 소련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잠수함은 12척에 불과하고 그것도 세 가지 형으로 되어 있어 두 가지 형만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 그것의 사정은 560km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원자력잠수함은 취약성이 적은 강력한 무기인 탓을 미·소 공히 이것을 중시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분야에 있어서 소련의 현실은 미국과는 감히 겨누어 볼 수 없을 정도로 뒤떨어져 있는 것이 확실하다.

경제력(經濟力)과 군비경쟁(軍備競爭)

미국의 국방지출은 연간 약 500억불이며 이것은 미국의 국민총생산의 9.8%에 해당한다. 미국과 소련의 국민총생산을 비교하면 소련이 미국의 약 절반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그런데 소련정부가 금년 UN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한 공식보고에 의하면 소련의 군사비지출은 국민총생산의 6.9%라고 한다. 절반정도의 국민총생산으로 미국과 대등한 군사력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부담률은 3%나 하회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이렇게 된 표면에는 군사비의 편성구조상의 괴리(乖離), 달러와 루불의 거율(據率)의 복잡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것은 소략하기로 하고 소련은 흐르시쵸프가 누누이 실토하듯이 과중한 군사비 부담으로 국민생활과 경제발전에 큰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술한 UN사회경제이사회에 대한보고 속에도 "만약 군축이 이룩되면 소련은 7개년계획을 조기에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열열히 군축을 희망 한다"고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소련 인민들이라 군사비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격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심각한 주택난이라는 한 가지 사실 만으로서도 능히 규지(窺知)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에서는 이번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형 행정부의 우주개발계획을 "광기의 사태"라고 비난하고 군사비와 우주개발의 과도한 지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견해에 대하여서는 공화당원들까지도 반발을 일으키고 국민은 민주당에게 많은 표를 던졌다. 이것은 현 수준의 군사비지출에 그다지 큰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소련은 그들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의 특정부분을 제외하고는 경제적 기술적인 갭 때문에 미국과 맞겨눌 수 없는 상태가 멀지 않아 도래할는지도 모른다.

조인하고 본격적인 초음속기 제작에 그 첫 발길을 내밀었다. 왜냐하면 국제항공이란 난폭하기 그지없으며 거기에는 상업성이며 기술적인 문제와 동등하게 나라의 명예라던가 정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프랑스나 또는 소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리하여 지구를 둘러싼 창공은 제트기의 시대를 넘어 초음속기 시대로 밝아지는 새벽에 놓이게 되었다.

일지(日誌)에서 황문구(黃文九)역

전자공학의 혁명아

일렉트로닉스의 세계는 바야흐로 새로운 아침을 맞으려 하고 있다. 현대의 알라딘 마술 램프라 불리며 무한의 이용범위가 상상되는 빛의 증폭장치 레이저가 금년부터 드디어 본격적인 개발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무기에서 공학, 의학의 분야까지 인간생활의 모든 분야에 레이저가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날도 멀지 않다.

원자를 흥분시키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파장과 위상(位相)이 갖추어진 광선을 방출시키는 장치 그것이 레이저이다. 레이저는 광선과 같이 극히 파장이 잦은 전자파를 증폭시킬 수가 있으며 또한 위상이 갖추어진 즉 발걸음이 맞는 파장을 내기 때문에 극히 작은 초점을 연속시킬 수가 있다. 광선을 증폭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레이저는 통신수단에 광선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광선을 사용하면 한 파장으로 전화 일억 회선, 텔레비전이라 하면 일천만선까지도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작은 초점에 광선을 집중시킬 수 있으므로 초점에서는 태양표면의 온도 육천도 이상의 고열을 낼 수 도 있고 이 성질을 이용하여 군사, 공학에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다. 공상과학소설의 살인 광선 같은 것도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제트 항공기(航空機)의 장래(將來)

홍성표(洪聖杓)
〈공군소령〉

우리 인류는 이 지구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하면 먼 거리를 보다 빨리 갈수 없을까 하는 염원을 갖었던 것이다. 그의 염원은 인간의 문명이 발전함과 때를 같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그 예로서는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만 하더라도 저 넓은 하늘을 새와 같이 한 번 마음 놓고 날아볼 수 없을까 하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벌써 프로펠러 항공기도 늦다하여 제트항공기가 출현하였고 제트기도 개량 발전하여 더울 빨리 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제트 항공기가 60년 전에 출현하였던들 신격화 문제로 숭앙하였을 터인데 그 만큼의 세월 속에서 인간의 욕망은 발전한 것이다.

그런데 1961년 4월12일 소련의 인간위성 보스토크 1호가 지구를 중심으로 비행하고 무사히 귀환한 후 현대인의 꿈은 벌써부터 혹성여행으로 꽉 차 있는 것이다. 이러한 꿈은 미소양국에서 다같이 1967년까지에는 달나라의 여행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그보다 약간의 세월이 단축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여하튼 머지않은 장래에 기필코 실현된다고 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록 달 여행은 어디까지나 꿈으로만 생각할 뿐 어떻게 하면 지구상에서 만이라도 문명의 이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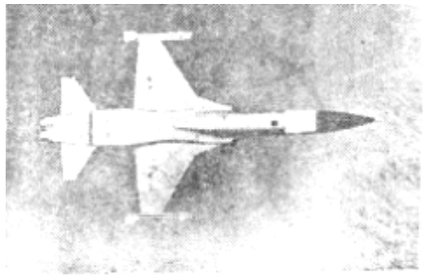
세계 제1의 제트기 공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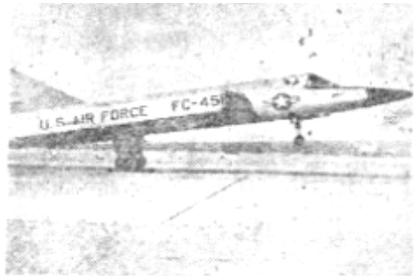
-달라스 공항 이야기-

제트기 새대의 공항이라고 불리우는 워싱턴의 달라스 공항이 준공되어 케네디 대통령,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작년 12월에 개항식을 올렸다. 이름은 미국의 냉전외교를 지도한 고(故) 달라스 전 국무장관을 기념한 것이지만 관광 워싱턴의 현관으로서 내외의 여행자를 집결시키는 하늘의 대합실이 되어 가고 있다.

61년 미국인이 해외여행에서 뿌린 돈이 22억불에 달한다.

그런데 외국의 여행자들이 미국에 뿌린 돈은 불과 10억여불이 었으니 적자가 12억불— 이 12억불은 61년도 미국 국제수지에서 생긴 25억불의 적자의 거의 절반에 해당된다. 불의 해외유출에 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적은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미국정부에서는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는데 머리를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미국에의 비자(입국사증(入國査證))를 얻는 수속이 복잡하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4페이지에 달하는 서류에 좁쌀알처럼 기입하여 제출하면 수일, 때로는 수 주일이 걸린다. 이것은 한 장의 카드로 만들어 그것을 제출하면 즉석에서 얻을 수 있는





이용하여 볼까하는 욕망밖에 없는 것이 솔직한 고백인 것 같다.

그래서 오늘날 제트기시대에 들어와서 그의 개량발전을 꾀하고 있는데 최근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미국과 영불양국과는 서로 경쟁적으로 보다 빠른 여객기를 제작할 준비를 완료하여 설계에 착수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 잠깐 제트 발동기의 원리를 들어 보기로 하면 제트의 원리는 오징어의 원리와 같은데 오징어는 그의 물주머니로 물을 잔뜩 마셨다가 그것을 압축해서 물을 힘차게 내뿜으며 그의 반동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제트의 원리는 적시로 로케트의 원리와도 같은 것인데 오징어의 예와 같이 고무풍선에도 바람을 불어 넣었다가 풍선을 풀어 놓으며 피익 소리를 내명서 하늘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뉴튼이 발견한 '운동의 제3법칙'이라고 하는 것으로써 작용이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와 동등하고 방향이 정반대인 반작용이 생긴다는 것이다.

제트와 로케트는 다 같은 뉴튼의 운동의 제3법칙을 적용하였으나 다만 틀리는 것을 로케트는 연료와 그의 산소는 로케트 기체 내에 적재하였기 때문에 무한히 높은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제트는 흡입구로부터 산소를 필요로 하는 대기의 공기를 빨아들여 압축기로 수배의 압력으로 압축시킨 후 연료를 분사하여 점화하면 고온의 게스가 생기는데 이 게스를 터빈에 도입하여 익차(翼車)를 구동하고 마지막으로 배기구를 통하여 미부(尾部)로부터 고속도로 배출시키면 거기에서 추진력이 생긴다. 오늘은 제트엔진 뒤에 후연소기(After-burner)를 배치하여 제트 엔진에 완전히 연소하지 않은 게스를 약간의 연료를 분산시켜 재연소 시킴으로 더 많은 속도를 얻는데 그때의 속도는 35%가 증가된다고 하였으나 현재에는 후연소기를 배치하지 않은 제트기는 음속을 돌파하기가 힘든데 이 후연소기를 배치한 항공기는 음속 2배 이상까지의 속도를 낼 수 있고 음속 3배까지의 제트 항공기가 미국에서 생산하여 1961년 말까지 처음 실험을 행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B-70 CRS (70-RS는 Reconaisance Strike의 약자) Vakyrie 대형 폭격기인 것이다.

이렇듯 음속 3배의 B-70 대형 폭격기가 벌써 실험이 시작될 단계에 돌입하였는데 과연 제트 항공기는 언제부터 출현하였을까? 우리나라에서 제트 항공기가 날기 시작한 것은 한국동란이 발발한 직후 미 공군의 F-80 Shooting star가 처음이지만 제트 항공기가 이 세상에 처음 출현한 것은 1930년대로써 미국의 Frank whittle이 1937년에 최초로 Turbo Jet를 시운전하였고 이어 독일에서 1939년 8월 27일에 HS3B형 Turbo Jet를 장비한 HE-178형을 세계최초의 항공기로써 처음 비행에 성공시킨 것이다. 그 후 미국에서는 1941년 5월 14일에 F28/39 제트기를 최초로 비행시킨 후부터 각국에서 열을 올려 제트기의 연구를 시작한 것이다.

간략한 것으로 고쳤다. 이것은 미국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서의 간단한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서 62년 5월에서 10월사이에 캐나다 멕시코를 제외한 여러 외국에서 미국을 방문한 관광객은 20만3천명, 6년 동기간에 비해서 18퍼센트가 증가하였다. 62년의 총수는 51만5천명을 넘었다고 한다.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중 그 반수는 틀림없이 찾아본다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비롯해서 그래드 캐년, 요세미티 국립공원 등 관광지를 비롯해서 뉴욕, 워싱턴,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엔젤레스, 뉴올리언스, 마이애미 등 도시도 외국 여행자에게 인기가 있는 곳이다. 그 중에서도 워싱턴은 백악관, 국회의사당, 링컨기념비, 무명용사의 무덤, 관광루트가 있다. 이같은 워싱턴에 신설된 델라스공항은 그 크기가 3천6백만평방 미터라는 것으로 미래에 있어서까지 가장 이상적인 공항의 견본으로서 모든 물량을 집중시킨 세계 제1의 것이다.

유니크한 디자인

워싱턴에서 서쪽으로 43킬로 버어지니아주 챤데리에 있는 델라스 공항은 아직 미완성이지만 이미 공사비 1억6천5백만불의 거액을 투입하였다. 새로운 시도의 하나로서 "움직이는 대합실"이라 불리는 초대형 버스가 있다. 공항 터미널에 이른 여객은 표를 사고 화물을 붙인다음 그대로 지정된 대합실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고 있으면

오늘날은 미국에서만 공군기들은 F-100계열전투기는 음속1 이상의 속도를 내고 F-104이상의 전투기들도 음속 2배 이상까지 속도가 나는 것이다. 폭격기만 하여도 중형폭격기 B-58형은 세계최대 속도를 가진 현재 운영하는 기체로서 음속 2배도 비행 할 수 있는데 이외에 해군기들도 전투기들은 F4H-1을 비롯한 최신형은 모두 음속 2배 이상까지 나가며 공격기만하여도 A3J-1 선재기는 항속거리가 3,700km이고 핵탄두도 적재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기만이 아니고 미국 공군의 Electric Lighting F1 전투기는 음속 2~3배이며 프랑스의 Dassault mirage 3C 전투기도 역시 음속 2-3배나 되는 것으로 최대강국의 전투기들은 모두 최신예기라하면 무엇보다도 최대속도가 음속 2배가 초과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소련에서도 1957년 8월 사상최초로 ICBM을 발사 성공시킨 후 흐루시쵸프 수상은 호언하기를 "오늘의 전략유인폭격기들은 모두 용광로에 들어갈 고철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고 장담 하였나 1961년 7월 6일 Tushino 공항에서 1956년 이후 5년 만에 공개적으로 시험 비행한 항공기들을 보면 역시 전투기들은 4종류가 모두 음속 2배 내외이며 폭격기들도 대형은 아니지만 중형으로서 음속을 훨씬 넘는 것이다.

흐루시쵸프 수상의 장담과 달리 유인 항공기가 많이 등장한 것을 보면 현대전이 고성능의 핵폭탄을 장비한 ICBM이 출현하였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유인항공기의 필요성은 절실한 것 같다.

여기에서 음속 즉 마하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속도와 음속의 속도 비이다. 그 비가 음속과 맞설 때를 1로 한다. 따라서 음속이하의 경우에는 O.X로서 표현하며 마하2.0이라 함음 음속의 두 곱을 말한다. 요컨대 Speed up하는 근대항공기의 속도를 말하는 단위이며 초음속기가 장래의 SPEED METER로써 측정하기 곤란한 고속을 MACH. METER로써 측정한 다음 당시 현지기온에 의하여 환산하면 소위 시속속도가 나온다. 원래는 독일의 물리학자 에른스트 마하가 비행기가 출현하기도 전에 하늘을 나는 것이라고는 기구뿐이었던 180년대에 속도에 관한 실험연구를 시작하여 발전시킨 소위 '가스에 의한 유속비 및 대지속도'이론을 십 수 년이 지난 오늘날 재발견 이용한 것이며 마하란 말 자체는 그의 이름을 기념해서 딴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항공기의 속도가 고속화됨에 따라 거리의 척도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하수로 표현하기에 이르렀다. 마하수가 온도에 따라서 그의 실제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상에서 기준온도 15도에서 시속 1,220km(340m/sec)가 마하 1.0이면 고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온도가 변하기 때문에 같은 마하수라 하더라도 고공 11,000m 상승하면 온도가 영하56.5도50분이기 때문에 실제속도는 상당히 짧은 것이다.

마하수를 계산하려면 0도씨에서 음의 속도가 33/45m/sec이기 때문에 T。C에 있어서의 음의 속도는 $A=33.145\times\sqrt{\frac{273+t}{273}}$ 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대기 온도는 1,000미터씩 상승함에 따라 -6.5도씨씩 하강하는데 11,000미터까지 상승하면 영하56도가 되었다가 온도는 20,000미터까지 단속되다가 그 위로부터는 약간씩 반대로 온도가 상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공기에서 속도의

된다. 시간이 되면 이 대합실이 그대로 움직여 비행기의 입구에 연결되어 한발자국도 바깥을 밟지 않고 그대로 지상의 사람이 된다는 셈이다. 내릴 때는 이의 반대 코스다. 즉 제트시대가 되어 비행장도 건물도 넓어져서 여객은 아래위를 왔다갔다 해야만 되게 되었는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 터미널과 비행기의 발착장을 분리하여 그 사이를 차로 왕복하자는 것이다.

1대 215만불, 98인승(대형 제트기 1기분의 승객)인 이 디럭스버스의 내부에는 소프트 뮤직이 흐르고 호화한 쇼파가 즐비하다. 이 같은 기능적인 아이디어를 채용하였기 때문에 터미널 빌딩은 사각진 아담한 건물로 축소되고 광대한 벌판에 외로운 입초처럼 서게 되었다. 설계자는 근대건축의 제1인자 사-리넨씨. 61년 9월 1일 이 빌딩의 준공을 보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데 공사 도중에 그가 "이것은 나의 걸작"이라고 외친 회심작이다.

그는 건물을 수도의 현관에 안 맞는 위엄과 힘찬 제트기 시대의 액션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특기인 콘크리트와 유리를 풍부하게 사용한 유니크한 디자인이며 "콘크리트의 숲에 놓인 한 모크"라고 그는 말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 새로운 특징은 제트기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활주로와 공항중심부 이외에는 풀밭과 숲을 만들고 15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황문구역)

마하계기를 볼 때 수면과 고공에서 같은 마하 1.0일지라도 실제지면을 비행한 거리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써 수면에서의 속도가 같은 거리이면 보다 빨리 비행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항공기가 공기 중이 아니면 그의 필요로 하는 산소 때문에 대기권내만을 비행하여야 함으로 로케트와 같이 무한히 고공을 비행하여 우주권 내를 비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공기 중을 비행하는데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항공기의 기체와의 공기마찰은 극히 고열이기 때문에 대기 중에서의 속도는 무한히 고속일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다.

이렇게 공기의 필요성과 공기에 의한 마찰열 때문이라는 이율배반적인 모순 때문에 제트의 장래성은 희망적인 무한성이 아니라 한정된 인간의 욕망밖에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이다.

그 위에다 제트의 속도는 대기 중이라 하더라도 그의 제트 추력의 한계로 인하여 또한 무한히 고속화 할 수 없는 것이다. 제트의 속도화는 대략 순항속도에 있어서 After Burner를 장치하지 않고는 마하 2.0 약간 넘은 정도이며 After Burner를 장치하였을 때에는 마하 3.5정도까지 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제트의 추력으로 인한 속도가 제한되었다고 하지만 대기내의 비행이라 조건 때문에 고도에 있어서도 2만~3만 미터 이상 비행할 수 없는데 오늘날까지 특수하게 제작한 제트엔진을 장비하고 최고도에서 실제 비행한 것은 U-2정찰기로써 대략 2만 2만7천 미터 사이에서 비행하였고 고도 상승기록은 F-104가 1959년 12월 14일 미공군의 조나단 대위에 의하여 31,515미터가지 상승하였던 것이다.

제트항공기로서 현대기는 마하 2.5이상 비행한 것은 없으며 1961년 말까지 실험 비행한 것으로써 최대속도 마하3.0으로 미공군의 B-70 VAKYRIE기인데 이러한 속도에 의한 기체표면 공기와의 마찰열은 고도에 따라서 공기의 밀도가 있기 때문에 상이하지만 대략 고도 1만 미터 내외에서 마하 1.0일 경우에는 10도인데 수면에서는 100도가 되며 마하 2.0일 때에는 고도 1만2천 미터에서 온도가 150도, 수면에서는 280도이고 마하 3.0이며 고도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300도인 것이다.

여기에서 속도가 음속 3배로 비행할 때에 일어나는 기체와의 마찰열은 300도인데 만약 수면비행이라면 보다 더 높은 고열이기 때문에 그와 상당한 기체의 표피를 제작하여야 한다는 것과 항공기내부의 승무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고속화의 항공기문제는 고도 3만 미터 이하로 속도는 마하 3.0을 훨씬 넘은 항공기를 제작한다는 문제는 여러 가지 애로로 인하여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물론 상기 논술한 곤란한 문제가 해결하고 극복해나가게 되면 더욱 고도상승과 고속화와의 항공기가 출현할 것이나 현재까지는 별로 해결할 만한 것은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

지금까지 군사항공기에 관하여 서만 논하였지만 군용기는 어디까지나 전투원에 미치는 영향만 해결하면 되고 사실상 곧 해결할 수 있지만 이것이 민간항공기로 제작될 때에는 전투원과 같이 선발된 자만이 탑승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분위기가 전투원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애로가 직면하는 것이다.

일반여객기는 1950년대만 하여도 DC-6 같은 프로펠러 기었기 때문에 속도에 있어서 마하 0.5에 불과하였던 것이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여객기가 제트화 됨에 따라 순항속도가 마하 0.9로 대표적인 것은 미국의 보인 707, 콘베아 808, 미국의 모메트 4, 소련의 TU-104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속도의 항공기는 벌써 매력(魅力)을 상실하게 되며 보다 고속화의 여객기를 제작한다고 발표하였는데 그것으로써 순항속도 마하 2.2, 시속 1,500마일로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형기가 1961년 9월초 미국의 항공시험에서 최초로 공개하여 항공계에 화제를 던졌는데 이 마하 2.2의 순항속여객기는 영국과 프랑스 양국이 공동으로 제작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의하면 개발과 생산에 5천만 달러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을 영국과 프랑스 양국이 분담하여 1960년대 말경에는 100명의 승객을 탑승시키고 대서양을 현재 6시간으로 비행하던 것을 훨씬 단축하여 2시간 반으로 비행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마하 2.2의 속도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58이 최대속도로 마하 2.0으로 밖에 비행하지 못하는데 순항속도가 마하 2.2라고 하는 대단히 빠른 속도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이보다 순항속도 마하 3.0(시속 2,100마일)로 비행할 수 있는 여객기를 제작할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여객기는 150명을 탑승시키고 고도 2만5천 미터를 마하 3.0으로 비행하는데 이 여객기의 이름은 확실히 발표한 바 없으나 보잉 733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고속화된 여객기는 일부에서는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에 반대한 바도 있으나 영국과 프랑스 양국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거니와 미국에서도 B-70 VAKYRIE를 개량 발전시킬 보잉 구733을 1970년까지는 제작하여 실용화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역시 인간의 애당초의 욕망을 저버릴 수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되고 보면 1970년대에 들어가서는 마하3.0의 순항속도를 가진 여객기가 출현함으로서 1850년대 마하 0.5로부터 1960년대 마하 0.9, 1970년에 들어가서는 그의 3배가 넘는 마하 3.0의 여객기가 출현하게 되어 속도의 기하급수화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계속적인 수증성(數增性)의 고속화가 될 듯한 인상을 주지만 그 이상은 제트항공기의 여객기가 아니고 로케트에 의한 여객기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영국에서 62년 11월 25일 발표한 바에 의하면 고도 25만에서 속도가 마하 2.5, 시속 17,000마일로 비행할 수 있는 우주여객기의 가능성을 논하였지만 이 여객기는 제트엔진에 의한 것이 아니고 로케트 추력으로 비행되는 우주선과 같은 것으로 추측된다.

일반여객기는 마하 3.0이하 순항속도로써 제트 추진의 최후기가 될 것이지만 군용기도 전략전폭기 B-70 VAKYRIE도 벌써부터 ICBM의 출현으로 군사적 가치를 중심으로 미국의회에서부터 왈가왈부의 논란이 있는 가운데 YB-70으로써 실험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전투기만하여도 삼각익기를 가진 F-108은 최대속도 마하 3.0 전천후폭격용 전투기이었으나 요격용으로써는 이미 지상대공중인도탄이 출현하였기 때문에 그의 필요성이 없다고 개발생산을 중지한 것이다.

세계 각국은 제트전투기를 다용도성으로써 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의 속도도 최대속도가 마하 3.0을 초과하지 못하여 최근에 미 공군의 TFX 계획에 의거하여 설계중의 전투기는 앞으로 정식명칭으로써는 F-111인데 이 F-111은 최대 속도가 마하 2.0을 약간 넘는데 그의 특징은 날개가 가변 익으로 되어 있어서 이 주익은 마치 자연의 새와 같이 자유로 변하는데 그 이유는 최고 속으로 부터 착륙 시에 저속도로 낮추기 위하여 신속성 있는 가변익을 사용케 한 것인데 문제점은 그의 추축(樞軸)의 위치를 어디에다 두느냐하는 것으로 이는 이미 해결되었으나 비밀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변익은 순항속도 마하 3.0의 여객기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가변익을 붙인 F-111 전투기는 인간이 탑승하는 최후의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되고 보면 제트 항공기의 운명은 속도가 마하 3.0을 초과하지 못하고 다만 마지막 장식하는 가변익으로서 인간은 그의 명철한 두뇌로써 자연을 정복한 것 같으나 종국은 자연으로 돌아간 결과가 된 것이다. 여하튼 제트항공기는 마지막 운명이 결정될 날이 돌아오겠지만 그때까지는 인간의 총아로써 지구를 단축하여 보다 고도화된 문명을 세계 각국의 곳곳에서가지 뿌려줄 것이다. (끝)

<군인과 영농교육(營農敎育)>

군내에서 영농교육을 실시함은 과거 농촌출신 장병의 많은 인원이 일단 군에서 복무를 마치고 제대하게 되면 농사와 부모와 고향을 버리고 도시로 나와서 무위도식하며 새로운 직업을 얻어 보려고 농촌을 이탈하는 경향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빚어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으나 그 중에서도 구정치인들의 무능과 부패와 실정으로 인하여 농촌진흥책이 강구 못 된데서 농촌이 제대 군인으로 하여금 외면을 당하고 말았으니 비참한 환경으로부터 그들이 도시에 나와서 본 풍경에 머리를 돌려보게 된 것도 무리는 아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많은 젊은이들이 농토를 이탈함으로서 농촌은 보다 황폐하여졌다. 그러나 5·16혁명 이후는 부패한 사회적 기풍은 일소(一掃)되었고 농촌도 도시에 못지않게 앞장서서 쇄신된 기풍으로 바뀌어 짐으로서 농민은 새로운 의욕에 부풀은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 다가오는 제대를 목전에 두고 고향을 꿈꾸며 각자가 구상하며 설계하게 되는 그들의 가야할 앞길에 불을 밝혀 줌으로써 보다 확고한 신념과 희망을 일깨워 주자는데 군내 영농교육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며 이제 그들은 온 겨레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각기자기의 향토재건을 위하여 젊은 힘과 인내와 정렬을 국가가 요구하는 목표에 바쳐야 할 때가 왔음을 가르쳐 주며 또한 재래식 영농법을 어떻게 개량함으로서 우리 농촌의 생활을 보다 향상 시킬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우리 농촌의 경제적 부흥을 꾀할 수 있는 가를 교육함으로서 희망과 자신을 가지고 향토 재건의 역군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귀향할 수 있게 하는데 이 교육이 의도하는 목표인 것이다.

하사관론(下士官論)

-하사관의 위치(位置)와 임무(任務)

임희섭<공군중위>

우리는 공군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임무(任務)를 논의하기에 앞서 현대화된 군대조직의 성격을 일고(一考)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군대는 그 목적에 있어서나, 구성에 있어서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는 업무(業務)의 기술적인 면에서 볼 때 과거의 군대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현재도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에 있음으로 우리의 임무에 임하는 기본적인 태도에 있어 새로운 적응(適應)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一)

군대의 기원은 아마도 국가의 발생과 그 역사를 같이 하였을 것이다. 군대는 최초에는 대내적인 질서의 유지와 대외적 공격, 혹은 방위의 수단으로써 국가권력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 왔던 것이다. 근세에 이르러 질서를 유지하는 대내적인 기능은 경찰에게 전담되고, 군대는 주로 대외적인 공격, 혹은 방위를 그 임무로 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대외적인 침략행위는 자유세계의 민주군대의 목적하는 바가 아니므로 오직 침략으로부터의 자기방위에 그 목적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군대는 국민화 된 군대이다. 국민의 위에 서서 국민을 호령하는 군대가 아니며, 국민을 억압, 독재하는 권력의 강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군대도 아니다. 국민개병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으로 구성되는 군대이며 국민의 생명, 재산과 안녕을 지키는 국민의 군대인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괴리(乖離)되고 국민의 혐기(嫌忌)를 사는 군대는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는 위험한 존재이다. 우리 국군은 4·19와 5·16을 통하여 진정한 국민의 군대임이 입증되었으니 이는 군국의 자랑인 동시에 우리 국민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민화 된 군대는 또한 민주화된 군대이다. 군대는 엄격한 계급서열과 군율이 요구되는 특수한 집단임은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지만 군대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기본적인 인권은 절대로 침해될 수 없는 권리이다. 대장에서 이등병에 이르는 모든 군인은 자기의 계급과 직책에 부과된 역할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부임된 군 본연의 임무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대 내에서 인간관계도 지배, 복종의 관계이기 보다는 하나의 기본목적을 중심으로 한 협력관계로 인식되어야 한다.

현대적인 군대는 또한 고도로 기술화된 군대이기 때문에 군대조직의 협력관계는 더욱 절실하게 강조된다. 오늘날의 군대는 제트항공기, 미사일, 핵무기 등을 사용함으로 기술적으로 특별히 훈련된 인원이 필요하며 작전, 군수, 인사, 행정, 교육, 경리, 정훈, 의무, 법무, 종교 등의 각 직종에 따라 특기교육을 통하여 훈련된 인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특기화 된 인원은 다시 훈련도에 따라 조수, 기수, 기사, 감독, 특수 장교, 참모장교, 지휘관 등으로 세분되어 편제상의 직능에 각각 보직되는 것이다. 따라서 군 조직 내의 모든 인원은 자기의 특기와 숙련급에 따라 편제상의 직능을 수행함으로써 군의 기본목적 달성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二)

앞에 서술한 바와 같은 협력체계로서의 군대조직에 있어서 하사관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하사관은 군의 기본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인가? 군 조직은 크게 구분하여 장교, 하사관 및 병의 3계층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조직 안에서 장교는 지휘 및 통솔을 하고 하관은 감독 및 관리의 기능을 병은 실무자로서의 작업원의 기능을 각각 담당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교를 군조직의 중핵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사관은 그 기간(基幹)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군조직상의 하사관의 위치를 좀 더 상론(詳論)해 보기로 한다.

규정, 기술지시, 작명, 업무연락, 교범(敎範), 기타의 서면양식의 지시에 의하며 책임 장교가 중요한 정책적 결정과 일반적인 기준상의 결정을 내리어 작업명령을 하달하게 되면 그 작업은 실제상으로 감독관인 하사관의 관리 하에 실무에 옮겨진다.

감독관은 지시된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까지 설명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자신의 적절한 작업계획을 세워 가장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감독관은 또한 비능률적이라고 깨달은 점을 시정함으로써 작업방법의 개선 및 능률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그는 또한 기술용어를 익숙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기술과 지식에 관하여 하급자의 질문을 받으면 해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작업의 진행 및 생산량을 기록, 유지하고 자재(資材)사용을 계획하고, 적절한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자재가 없으면 구할 의무가 있으며 기술이 부족하면 향상시킬 의무가 있다. 그는 실무교육의 교관이 되어 작업원의 훈련도를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병력이란 관점에서 인원을 관리해야하며 사실과 원칙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는 작업원의 생활면을 항시 파악하고 인사특기 소지자에게 필요한 건의를 해야 한다. 그는 발견할 수 있는 사고의 미연 방지를 위한 안전에 대하여 그리고 작업원의 사기에 대하여 항시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

이와 같이 감독관으로서의 하사관의 수행하는 기능은 무척 잡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요컨대 하사관의 위치는 군대라는 커다란 관리체제의 일부로서의 감독관인 것이다. 하사관은 가장 낮은 작업원으로부터 부대장까지 접촉하고 있다. 하사관은 첫째로 작업원에 대하여 관리자의 역할을 한다. 모든 작업이 원만히 진전되도록 자재, 공정, 장비 및 인원을 관리해야 되며 안전, 사기 및 작업조건의 향상을 도모해야 된다. 하사관은 둘째로, 더 높은 관리자에 대하여는 작업원의 역할을 하게 된다. 관리자인 상관은 감독관을 통하여서만 각 작업인원 개인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와 요구사항을 알 수 있으며 자신의 관리행동의 장단점을 알게 된다. 하사관은 셋째로 다른 감독관에 대하여 팀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 되며 이 팀의 기능은 그의 작용이 없으면 약화된다. 그가 무능한 감독관이면 그 팀의 기능은 또한 그만큼 약화된다. 하사관은 넷째로 공중(公衆)에 대하여 공군 혹은 국군을 표시(表示)하며 그의 복장, 예절, 행도 등은 곧 공중이 공군 혹은 국군에 대하여 가지는 인상에 영향을 준다. 하사관은 다섯째로 부대전체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표시하다. 그의 행동, 언어 및 열의에 의하여 유능하게 판단되거나 혹은 무능하게 판단된다.

이와 같이 하사관은 각층의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작업상 감독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는 그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그가 접촉하는 각층의 사람들과 협동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되며 결과적으로 협조를 더 많이 받도록 해야 된다.

삼(三)

위에서 우리는 현대적인 군대조직은 하나의 거대한 협력체계이며 관리기구임을 알았으며 그러한 협력체계 내지 관리기구에 있어서 하사관은 감독관의 위치에 있음을 보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감독관으로서의 하사관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어느 일에 있어서나 첫째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내고 다음에 그것을 가장 잘 수행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거기에 전력을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것이다.

<작업조건 향상의 임무>

완전이란 이상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완전을 향한 인간의 욕구는 그치니 않는다. 이러한 욕구에 의하여 향상과 수정이 계속되는데 이것이 곧 발전(發展)이다. 그러나 발전하기 위해서 완전을 향하여 실제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불완전한 현실에 대하여 반대운동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반대운동은 현상의 결점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감독관으로서의 하사관은 자기조의 작업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해야 한다.

1. 자기 팀이 분담하고 있는 편제상의 임무를 숙지하고 그것을 하부 작업원에게도 잘 알려야 한다.
2. 작업원이 불필요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작업은 고르게 배치되었는가? 훈련공은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등을 알아내기 위하여 작업원으로 하여금 개인별 과업목록을 작성하게 한다.
3. 개인별 작업 목록을 종합하여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작업 분담표를 작성한다.
4. 다음과 같은 질문을 지침으로 하여 현재의 작업분담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수정을 가하도록 한다.

⦿ 가장 중요한 일이 시간을 대부분 소비하고 있는가?
⦿ 실무사항은 업무 수행 상 전부 필수적인 것인가?
⦿ 숙련된 작업원이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일상 업무와 기타업무를 많이 하고 있지 않는가?
⦿ 과업은 여러 사람에게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배당되어 있지 않는가?
⦿ 어느 업무를 많은 작업원에게 분담시킨 결과 책임을 질 사람이 없지 아니한가?
⦿ 어느 작업원에게는 과중하게 분담되고 어느 작업원에게는 과소하게 분담되어 있지 않는가?

<작업방법 향상의 임무>

어떠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없다고 모든 사람이 믿어왔다면 오늘날에도 우리들은 활과 살을 가지고 사냥을 하고 달구지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을 것이다. 활로부터 총기(銃器)로 되기까지 혹은 달구지로부터 비행기로 되기까지의 단계는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다. 조금씩 개선하여 여러 세기 간 서서히 발전되어 온 것이다. 모든 향상은 불의(不意)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발명심, 불완전에 대한 의식 및 향상하려는 계속적인 연구심의 결과로 되는 것이다. 자기의 일에 대하여 실체적이고 능동적인 흥미가 없고서는 아무리 적은 향상일지라도 이루기 어려운 것이다. 감독관은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 분석을 통하여 향상시킬 임무가 있다. 작업방법의 향상 및 효율화를 위해서 감독관은 작업에 소비되는 시간과 돈을 절약하도록 머리를 써야한다. 그러나 돈이나 시간을 절약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돈이나 시간을 그다지 크게 희생시키지 아니하면서 안전, 건강, 안락 도는 편리를 도모해야 된다. 그러나 이러한 만족할 만한 절약은 그리 수월한 일은 아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고려(考慮)와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 이것을 시간관 동작의 경제(Time and motion economy)라고 말하는데 이 방법을 우리의 작업 면에 효율적으로 적응해야 한다.

시간과 이동 및 동작의 경제를 위해서 고려할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무실 및 공장의 배치법과 진행표 책상의 배치, 책상의 간격, 통로의 넓이, 조명과 환기, 작업의 종류, 사용하는 기계장비 등을 고려한다.

⦿이동 및 동작의 경제

인체의 사용, 기계의 사용, 공구 및 서류의 위치 등을 고려한다.

<작업계획, 지시 및 문제의 임무>

감독관의 능력은 작업의 능률, 작업원의 사기와 근면상태 등에 따라 판단된다.

바꾸어 말하면 각 작업원들이 수행하는 작업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역량을 가지고 감독관의 능력을 판단한다고 할 수 있다. 감독관이 작업을 성공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취할 단계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작업의 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둘째는 작업의 계획을 세워서 관계된 각 작업원에게 설명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한다. 셋째는 작업원을 지휘하고 상호협력을 이루어야 한다. 넷째로 작업 중에 발견된 잘못을 수정하기 위하여 교정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즉 기준을 다시 제정하고 기준운영계획을 검토하며 협조하거나 지도하는 방법을 다르게 생각해 보는 것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단계 중 어느 하나만으로 완전을 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느 한 단계에서 실시한 일은 다른 단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작업의 계획은 장기적인 것이건, 일일계획이건 어느 정도 융통성(融通性)있게 작성해야 한다. 질환(疾患), 회의, 훈련, 기타의 이유로 작업을 이탈하여야 할 필수적인 요소를 고려에 넣지 않으면 안 된다. 작업의 지시가 단순한 지휘나 지배이상의 것이다. 오히려 관리한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妥當)할지도 모른다. 작업의 지시는 기지와 판단력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 훌륭한 작업지시를 행함에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수행 가능성

업무를 분담 받은 사람은 그 과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필요한 권위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작업원의 흥미에 맞아야 한다. 또한 부대의 목적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를 각 작업원은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 계획성 있고 완전해야 한다.

작업의 조정은 여러 가지 일을 포함한다. 심지어 작업원과의 잡담까지도 포함시켜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행위는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준비하고 결심하고 조치(措置)를 취하고 재평가하여 오류(誤謬)를 수정하는 일이다.

준비란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을 수집하여 일정한 양식으로 배열함으로써 의미를 잘 나타내고 비교적 알기 쉽게 만드는 행동절차이다. 모든 사항을 준비하고, 가치판단을 한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심해야 한다. 결심한 것은 효력을 발휘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치의 결과를 평가해보면 준비, 결심, 혹은 조치의 행동절차 중에 잘못 판단한 점을 찾아 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수정하여야 한다.

<작업원 훈련의 임무>

감독관은 일상 업무 이외에 교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작업원의 기술과 지식을 사용하는 사람은 감독관 자신이며 감독관의 능력과 가치는 작업원이 수행한 작업의 성과에 의하여 측정된다.

그러므로 작업원이 분담된 작업을 수행함에 필요로 하는 기술을 향상 시키고 지식을 증가시키는 감독관의 임무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작업원의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은 작업의 전체적인 능률을 향상 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감독관은 우선 신임 작업원을 효과적으로 다루어 속히 새로운 환경에 익숙토록 인도하고 그가 대내(隊內)에서 유용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느낌을 주도록 해야 한다.

감독관은 자기의 작업원들의 작업능력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는 작업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술과 지식을 향상시킬 실무교육의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기준표에 의거하여 교안을 작성하고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적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진행도와 이해도를 트레이닝 차트에 기록 유지하고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교육이 감독관의 임무중의 중요한 일부라면 우수한 교관이 되지 않고서는 유능한 감독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감독관의 임무를 전체적으로 완수하려면 훌륭한 교관의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협동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할 임무>

감독관의 관리 업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일은 역시 인간관리일 것이다. 모든 개인은 제각금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일하고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며 다른 방법으로 행동한다. 각자는 한 인격을 갖춘 완전한 개인이며 특수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각자의 개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여 동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각 작업원이 서로 협동적인 분위기에서 일하는가를 감독하는 것은 감독관의 중요한 임무이다.

감독관은 우수한 기술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하겠지만 작업원을 잘 다루는 능력도 중요하다. 감독관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요령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인간관계를 최선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 알려져 있는 심리학적 원리나 사람을 다루는 간단한 규칙을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 사람을 다루는데 있어 다음의 두 가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은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사람의 한 행동이 어느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둘째로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즉시로 노골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반대의사가 강하더라도 외부감정을 억압하는 사람도 있다. 이상의 두 요소를 주의하여 사람을 다루는 경우에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람을 다루는데 있어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것이다. 안전을 구하는 욕구,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 소속감을 가지려는 욕구, 기타의 생리적, 사회적 욕구가 있다. 이러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적응하면 우리는 협동적인 인간관계를 이룰 수 있다.

끝으로 사람은 다루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개인에 대하여 되도록 많이 잘 알아 두어야 한다. 작업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 및 환경, 취미(趣味), 습관 및 성격을 알아 두어야 한다. 작업원에게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경우 감독관은 그를 도와주어야 하며 필요한때는 상급자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 감독관은 또한 문제가 되는 작업원의 교정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가 있으며 심한 경우는 인사 조치를 건의해야 될 경우도 있다. 감독관은 모든 작업원이 큰 불평 없이 협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잘 관리해야 되며 작업원의 사기와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四)

오늘날의 군대는 국민의 군대이며 민주적인 군대이다. 또한 현대화된 군대의 중요한 성격을 고도도로 기술화되고 기계화되었으며 분업적인 협력조직으로 발전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군대조직은 그

(P34로 계속)

자발적 예의라야 참 예의다

정 인 승

속담에 '옆구리 찔러 절 받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절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강요하여 절을 받는다는 말이니 절하는 사람 측으로 본다면 마음에 없는 절을 부득이 해서 한다는 말이 된다. 절은'공경'의 표시인데 이러한 부득이하는 절은 참 절이 아니라 거짓 절인 것이니 그것은 자기의 본마음에서 울어나서 하는 곧 자발적인 절이 아닌 까닭에 절한 사람 측으로도 스스로 상대편을 공경한 것으로 의식되지 아니하며 절을 받은 사람 측으로도 또한 공경을 받았다고 느껴질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절은 예의의 하나이거니와 절뿐이 아니라 모든 예의가 다 마찬가지인 것이다. 예의의 본질은 마음의 공경에 있고 예의의 형식은 행동의 절차로 나타나는 것이니 형식이 그 본질에 맞을 때는 참 예의가 되는 것이고 형식이 그 본질에 맞지 아니할 때는 참 예의가 아닌 허례요 비례인 것이다.

옛날 공자의 본국인 노나라(魯)의 대부벼슬에 앉은 양화(陽貨)라는 이가 공자를 한 번 만나보아야겠는데 점잖은 어진이를 오라고 부를 수도 없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기가 먼저 찾아가기는 싫고 하여 어떻게든지 공자가 자기한테 먼저 찾아오지 않을 수 없게 하기 위한 꾀로서 공자의 외출한 틈을 타서 공장의 집에 선물로 돼지고기 찜을 보냈다. 이는 그 때의 관례에 귀인에게서 보낸 선물을 몸소 받들어 받지 못하면 반드시 그 답례로 몸소 가서 찾아보는 법이기 때문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이것을 본 공자는 양화의 교만한 술책임을 알고 짐짓 양화의 외출한 틈을 또한 타서 답례로 왕방함으로써 그의 잘못을 깨우치도록 했다고 한다. 이러한 선물은 결코 참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참 예의가 아닌 것을 참 예의로 대할 수 없음을 보인 것이다. 만일 양화가 정말 공자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만나보고 싶었을 것 같으면 마땅히 자기가 먼저 예를 갖추어 공자를 찾아보았어야 할 것이며 그리 함으로써 공자의 좋은 지도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었다.

참 예의가 아니어서는 피차에 다 유익함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피차에 다 불유쾌할 뿐이요 참 예의로써 서로 대하는 데서 사회가 명랑해지고 모든 일이 원만히 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나의 기억 똑똑하지 않으나 어렸을 때에 어떤 중학 영어독본에서 본 것으로 미국의 한 육군대장(이름을 잊었음)에 대한 이야기 인데 언제 어디서 어떠한 사람이 그에게 경례를 하든지 그는 반드시 아무리 바쁜 중에라도 그냥 받지 않고 꼭꼭 깍듯하게 답례를 하니까 이것을 늘 보는 가까운 부하가 "무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아니다 "저편이 나에게 경의를 표하니까 나도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 내가 그한테 경의에 지게 되면 나는 그만 못한 사람이 아니겠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는 경례는 결코 강요나 허식으로 하는 예의가 아니고 참으로의 자발적인 예의인 것이다. 이러한 예의는 하는 이나 받는 이나 다 같이 유쾌하고 다 같이 고맙고 서로서로 원만하게 일하여 명랑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된다.

예의는 인간사회 이외의 다른 어떤 생물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곧 단순히 먹고사는 일 이상의 고차적인 것이니 사랑과 의리와 의지와 및 자유와 질서들로 더불어 인간사회를 특징짓는 것이다. 그러기에 일찍이 철인 맹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인간사회에 있어서는 한술 밥 한 점의 국을 얻어먹으면 살고 못 얻어먹으면 죽게 된 경우일지라도 이것을 욕지거리하면서 주면 떠다니는 나그네도 받지 아니하며 이것을 발길로 차서 주면 거지라도 더럽게 여기는 것이 인간의 예사일 것이다. 속담에 '의가 좋으면 콩 한조각도 나누어 먹는다'는 말과 같이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정으로 서로 대하고 주고받고 하는 것이 참다운 교제가 되고 예의가 되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서 마음에도 싫으면서도 혹은 어떤 강요에 마지못해서 혹은 어떤 의미의 생색을 내기 위해서 또 혹은 어떤 유혹적인 술책을 꾸미기 위해서 예의의 본질에 어긋나는 형식만으로의 예의를 가식하는 것은, 이는 인간이 인간으로의 고귀한 특징, 바꿔 말하면 인간된 특권을 스스로 부인하는 자학행위라고 할만도 한 것이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스스로 공경으로의 자발적이어야 하며 절제 있는 자발적이어야 한 것이니 공경에 배치되는 악의로의 자발적이거나 또는 악의는 아닐지라도 무절제한 기분으로의 자발적이어서는 안 된다. 가령 양심으로의 공경을 떠나서 어떤 이기적인 동기로 남을 해침으로서 자기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겉으로 예의를 가장하는 것 같은 일은 아무리 상대자를 혼연하게 대해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웃음 속에 칼이 있다'는 말과 같이 일종의 교활한 교제 수단인 것이매 도저히

예의라 할 수 없는 것임이 물론이며 그와는 달리 비록 선의의 자발적 동기로 남을 상대하는 경우일지라도 '공경'이라는 본질에 알맞지 않게 형식을 위한 형식에 지나치게 흐르는 일도 없지 않으니 가령 일부러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필요 이상의 언동으로 아유구용을 한다든가 도는 관혼상제 같은 때에 헛된 면목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 이상의 형식을 차리는 일 같은 것은 모두가 이른바 '과공이 비례'(공손에 지나친 것은 의가 아님)인 것이니 이러한 것은 아무리 자발적일지라도 정당한 절제가 없는 따라서 예의의 본질에 맞지 않는 자발적이기 때문에 결코 참 예의가 아닌 것이다.

요약해 말하면 예의란 절제 있는 공경의 표현이므로 그것이 자발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라야 참 예의가 되는 것이다.

에티켓의 본질

-서양과 동양의 차이-

김 은 우(金恩雨)

에티켓이란 말은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예절이라는 말 밖에는 별로 적당한 말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예절이라는 말은 그 어감이 에티켓하고 약간 다른 것 같다. 예절을 지킬 줄 모른다고 하면 대개 윗사람과의 관계에서 버릇이 없다든가 지켜야 할 법도를 모른다든가 하는, 요컨대 전통적인 지도를 잘 지키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에티켓을 모른다고 하면 사교나 대인관계에서 늘 겪게 되는 조그만 일들에 쉽사리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결국 우리에게는 비슷한 말이 되겠으나 현대의 젊은이들은 예절이라는 말보다는 에티켓이라는 말이 더 쓰기에 편한 모양이다.

서양의 에티켓은 그 근원을 다지자면 아무래도 기사도(Chivalry)에서 찾아야 될 것 같다. 중세기 서양에서 기사가 되려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아야했다. 처음에는 귀부인들의 시동으로 기사들의 생활양식과 귀족의 예법을 배우고 다음에는 기사의 시생(侍生)으로 직접 기사를 쫓아다니면서 심부름을 해주고 말의 시중까지 들어주면서 직접 각종 무술(武術)을 배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기사가 될 때에는 군주나 교권자(教權者)들 앞에서 기사문예식(騎士文禮式)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기사가 되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를 경배할 것, 둘째,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고 이에 복종할 것, 셋째, 부녀의 권리를 옹호하고 약한 자를 보호하며 교회를 받들 것 등의 맹세를 하는 규칙이었다.

기사들이 이러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만이 아니라 그들의 몸가짐이나 생각하는 것이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기사도라는 것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된다. 여하튼 요즈음도 급한 경우에 여성을 돕는다든지 약한 사람을 도울 때 우리는 흔히 기사도를 발휘한다고 말한다. 어떤 때에는 이 말이 비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우리 동양에서도 예절을 잘 지키는 사람을 '배운 사람'이니 '군자'니 하고 부르지만 예절이 아무리 잘 지켜진다 해도 그 행위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온 것이 아니면 대접을 받는 사람이나 옆에서 보는 사람이나 그다지 편안하지가 못하다.

에티켓이란 동서양을 막론하고 상대방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마음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서양의 예절을 우리는 보통 '레이디 퍼스트'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사실 서양의 예절 중에 대표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이 '여존남비'의 정신이라고 할 만하다. 이 사상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기사도에서 비롯했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말이 난 김에 우선 이'레이디 퍼스트'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우리 동양에는 이러한 예절이 없는가? 사실 동양에서는 여자가 의례 남자에게 순종하고 남자는 당연히 그런 것으로 알고 받아드리는 것처럼 겉으로 보인다. 음식을 만들어도 남자에게 먼저 먹게 하고 방안에 같이 앉을 때면 으레 남자가 먼저 앉고, 길을 가드라도 남자가 앞을 서서가는 것으로 되어왔다. 이러한 재래의 풍습(예절이라고 해도 좋겠다)이 우리 한국여성들에게는 심히 굴욕적이었을 것이다. 그래 요즈음은 차츰 이런 형식적인 예절을 벗어나려고 하는 풍조가 엿보인다. 하지만 한국남자들이 여자를 서양의 남성들만큼 위할 줄 모르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나는 믿는다. 대개 서양의 사회에서 감정의 표현이 직시적이고 외형적이라면 동양인의 감정표현 방법은 잠재적이고 내성적이라고 할 만하다. 마치 서양인의 애정이 아침저녁 키스로 표현 된다면 도양인의 그것은 부드러운 눈초리나 말없는 미소로서 표현 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국 서양과 동양의 차이는 이런데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예절이나 에티켓의 표현도 이런 원리에서 다르다. 서양에서 애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열어보고 좋아하는 표현을 해야 하고 이것이 에티켓이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에게 선물을 할 때 그 자리에서 펴 본다거나 좋아서 키스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남성은 아마 흔치 않을 것이다. 자기가 돌아간 뒤에 아무도 안보는 곳에서 펴 보고 그 선물을 가져다준 자기의 마음에 감격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선물을 준 애인은 돌아올 때 자기의 애인이 지금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면서 미소를 짓는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구에게 선물을 받는 경우 '감사합니다'라고 똑 떨어지게 인사하기도 힘들어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음이다. 남의 집에 물건을 사가지고 가면 그것을 주인 눈앞에 불쑥 내 놓는다거나 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슬그머니 구석에 놓고 나오려고 한다. 그러면 주인은"그런 것 왜 사오셨어요?"하면서 미안해한다. 이런 가운데 서로의 마음이 통한다. 내가 만일 주인이 아주 현대적(현대적이란 말이 요즘은 다분히 서양적이라는 의미로 통하는 모양이다)이어서 손님이 가지고 온 물건을 그 자리에서 펴보고 감사해 한다면 대개의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간 물건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면구스러워하고 얼굴을 붉히는 것이 보통이다. 나는 이곳에서 어떤 것이 더 좋다거나 더 나쁘다는 것을 말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다 두 세계의 표현의 차이가 이렇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손님을 청해 음식을 대접 할 때면 이것저것 권하면서 주부의 솜씨를 자랑하는 것이 흉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손님을 청했을 때 의례 하는 말이 있다. "차린 것은 없어도 많이 잡수 십시오", 결국 손님이 많이 먹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 표현 방법이 서양에서는 직접적이고 동양에서는 간접적이다.

음식이나 석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자기의 자식을 남에게 소개할 때 한국에서는 돈아(豚兒)니 가돈(家豚)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서양에서는'내 아들'이니'우리 딸'이라고 한다. 에티켓의 표현은 서양과 동양에서 서로 다를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기의 마음을 나타내려는 표현이라는 데에서 같은 것이다. 다만 서양의 표현은 노골적이고 솔직한 반면 동양의 표현은 간접적이고 암시적이라 하겠다. 이것은 서양인과 동양인의 생활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도 하겠으나 아무래도 그 차이의 근원은 두 세계의 문화의 탓이라고 보고 싶다.

만일 요즘의 젊은이들이 일세기전의 한국사회에 간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 예절을 모르는 데에 곤란을 느낄 것이다. 그렇다고 요즘의 젊은이들이 현대사회에서의 예의를 모른다는 말은 아니다. 그만큼 한국의 에티켓은 뻔한 것이다. 예전에는 집의 어른이 돌아가면 상제는 머리를 풀고 베옷을 입고 울어야 하는 것이 예의였다. 자가의 슬픔을 나타내고 돌아가신 어른에 대한 애모하는 마음을 나타내려는 데에서 이런 풍습이 생겼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오히려 상제가 옷을 단정히 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고 눈물을 감추고 서러움을 참는 것이 예의처럼 되었다. 그렇다고 사람의 마음이 예전보다 무뎌졌다거나 슬픔을 느끼지 못하도록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시대에 따라서 예절의 표현 방식이 달라진 것뿐이다. 예절은 앞서도 말한 것처럼 자기 마음의 정중한 표현이다. 예절이나 에티켓이 다분히 형식을 지녔다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이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언제고 형식이 굳게 지켜질 때 마음은 그만큼 덜 나타나게 되기가 쉽다. 상가에 가서 상제를 보고 "상사말씀 여쭐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조문하는 예절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이 말을 끝까지 또렷하게 마치는 조객은 드물다. 오히려 "상사말씀....."하고 뒤를 흐르는 것이 보통이고 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진정으로 감사할 때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진정으로 위로해야 할 경우 우리는 실상 위로의 말을 찾기 힘든 것이다.

아마 이런 것이 동양인의 특징이고 때로는 미덕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동양의 특징이 항상 옳고 아름다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모양이다. 시대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도 변했다. 해방이후 늙은 세대가 자주 입버릇처럼 하는 말은 요즘의 젊은 애들은 도무지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그들에게는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현대 한국사회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가 이러한 두 세대의 가치관의 차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차이가 생긴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해방이후 오늘날까지 십여 년 동안 한국이 걸어온 길은 다른 나라가 백년을 지낸 만큼의 길을 뛰어 온 셈이다. 해방이전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오늘날의 우리의 사고방식은 다른 나라의 것과 비교 한다면 일세기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고방식만이 아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사회의 복잡화 등 모든 것에 그만한 변동이 생겼다. 그 원인은 다른 무엇보다도 서양문명의 급속한 침투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자기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 아직 채 찾지 못한 젊은 세대에게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외래의 풍조가 덮쳐온 것이다. 젊은이들은 결국 자기 고유의 것을 똑바로 볼 기회가 없게 되었다. 거기에다 6·25 사변은 이 땅에 새로운 가치관을 씨 뿌려 놓았다. 개인주의, 찰라주의, 현실주의 같은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퇴폐적 풍조가 아니다. 심각한 세대의 변화다. 요즘의 우리 사회의 에티켓이 어떤 것인지 뚜렷하게 말하기 힘든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도 아직 한국 고유의 풍조가 남아 있는가 하면 또 동시에 다분히 서양식의 풍조가 늘어가고 있다. 거기에다 서양에도 없고 동양에도 없는 이상한 에티켓은 생겨나는 모양이다. '윗사람 앞에 앉을 때 무릎을 꿇는 것은 재래의 예절이다. 여자와 차를 탈 때 남자가 나중에 타는 것은 서양식 에티켓이다. 그러나 교수가 옆에 있는데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극장 안에서 껌을 딱딱 씹는다든지, 길을 가다 어깨를 부딪쳤다고 시비를 거는 것 등은 동양의 예절도 서양의 에티켓도 아니다.

어떤 수필가가 자기 글에서 한 말이 생각난다.'요즘의 청년들은 자기 아버지 이름 하나 똑바로 댈 줄 모른다'고. 어른 신에 함자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받을 때 '×자×자 이십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대개가'××씨 입니다'라고 태연히 대답 한다고, 여기에서도 늙은 세대와 젊은 세대와의 갈등이 나타난다. 젊은이에게는 이것이 하등 이상하거나 버릇없는 대답이 될 이유가 없다. 그들은 자기 어른의 함자를 '×자×자'라고 부르는 것이 예의라는 것을 배우지 못한 것이다. 다른 사람을 존대해서 부를 때 '××씨'라고 하듯이 자기 어른의 함자도 그 밑에'씨'자 하나만 더 부치면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것이다. 실상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까지 아무 시간에도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시간은 없는 모양이다. 귀에 익지 않은 말이니 그것을 배웠다 해도 쉽사리 쓰기가 어색한시지도 모른다. 결국 동양의 예절은 차츰 그 모양을 변해 가는 것이다. 늙은 세대는 지금의 젊은 세대의 예절이나 가치관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두 세대의 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지금의 기성세대가 자라던 시대와 지금의 젊은 세대가 자라는 시대와의 차이가 큰 것 같이.

그러나 지금의 젊은 세대가 자라서 기성세대가 될 때에는 아마 그때에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갈등이 지금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지금의 과도기적인 에티켓이 아닌 어떤 새로운 에티켓이 있게 될 때가 있을 것이 아닌가 한다.

국민도의(國民道義) 재건(再建)과 군인(軍人)

홍 인 표(洪 仁 杓)
<국방부 정훈과장>

1

허물어져가는 국운을 바로잡고 유구(悠久)한 민족역사를 다시 빛내기 위해 궐기(蹶起)한 5·16 군사혁명은 전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호응 속에 이제 바야흐로 국민혁명으로 발전하여 눈부신 개혁과 약진(躍進)을 거듭하여 왔다. 그리하여 복된 민주국가 건설을 위한 토대가 공고히 다듬어져가는 오늘날에 있어서 청신한 국민도의의 재건과 건전한 자립경제의 부흥이라는 2대목표는 우리 민족의 사활적인 과업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문제로 되었다.

무릇 혁명은 기존체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확인함을 그 생리로 하고 있거니와 아무리 제도가 바뀌고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어 이상적인 기구가 완비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고 실천하는 인간 개개인의 마음이 바로잡히기 전에는 참다운 혁명의 성공은 시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기성정치기구 안에서 누적된 부패(腐敗)와 부정이 일소(一掃)되어도 그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 각자의 마음의 바탕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얼마 안가서 인간의 마음 속에서 흘러나오는 악의 균(菌)이 또다시 정치기구 속에까지 침투(浸透)해 버리기 때문이다. 구국제민의 길은 모든 사람이 먼저 자기 스스로 돌아가서 마음의 혁명을 일으키는 데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퇴폐(頹廢)한 사고방식과 생활태도에서 탈피하여 혁신된 새 세대에 알맞은 인간혁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5·16혁명의 이념적 근저를 이루고 있는 공약은 그 3항에서 국민도의, 민족정신의 재건을 강조하고 인간혁명과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천명(闡明)하고 있는바 이것이야말로 혁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근간이 되는 것이며 여기에 5·16혁명이 혁명역사에서 차지하는 웅심(雄深)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우리나라는 고래로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이라 하여 고구려의 상무정신과 신라의 화랑도정신 그리고 유교의 삼강오륜(三綱五倫)을 기초로 하여 터를 닦아 국민도의는 자라왔다. 인, 의, 예, 지, 신을 신도의 범주(範疇)로 삼아 윗사람을 섬기고 아랫사람을 헤아릴 줄 아는 겨레였고 대인공경을 군자의 도로 삼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민족의 드높은 윤리의 향기는 살아지고 퇴폐한 폐습(弊習)이 이 나라 사회를 좀먹게 되기까지에는 근대에 이르러 고통과 비극 속에서 걸어 온 우리 민족의 수난사와 더불어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부패는 이것이 단순한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라는 데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기(李期) 5백년의 전제군주제와 봉건제도는 국민으로 하여금 권력 앞에 극복하는 노예근성과 강대국에 대한 사대주의적 의타심을 부식(扶植)시켰으며, 관존민비(官尊民卑)의 계급사상을 고정화시켰다. 혈연사상과 대가족제도는 자신의 낙달(樂達)과 가문의 번영을 목표로 처세하는 인생관을 만들게 하였고 그러기 위한 사회적 기반으로서의 계급과 편당정치(偏黨政治)는 이조사상사의 특색인 사색정당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사조는 궁정정치의 부패에 편승하여 왕의 신임과 권력 장악을 위해서 모략과 重傷을 일삼게 되고 일단권력을 장악하면 반대세력을 역적으로 몰아 잔인하게 제거해 버리는 배타적인 파벌성을 조장시켰다. 이러한 권력의 악순환을 말단관리에게까지 전염(傳染)되어 관기(官紀)는 문란하고 매관매직과

국민에 대한 수탈이 강제되어 국정은 부패와 혼란의 극에 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강자에게는 체념적으로 아부하는 비굴한 노예근성과 약자에게는 허세로 강압하는 관료적인 악습이 고질화된 병폐로 되어 버렸던 것이다. 봉건제도와 쇄국주의 하에서 인간평등이나 민권사상이 싹틀리 만무하였고 약육강식의 풍조는 가진 부패와 사회악의 온상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국내 혼란의 틈을 타서 침입한 일본 제국주의는 36년간의 식민지적 통치를 통하여 가뜩이나 병으로 멍든 이 나라 사회의 제 분야를 더욱 기형화시킴으로서 현대 한국으로서의 발전을 제약하였던 것이다. 갖은 미명 아래 수행된 경제적 착취는 물론, 심지어 교육과 문화를 통한 정신적인 강탈을 도모하여 민족성의 말살 고유의 언어와 예술·문화의 금지, 그리고 민족의 미풍양속을 뺏어갔던 것이다. 이와 같은 강압적인 무단통치 아래 일부 국민은 또다시 전통적인 노예근성과 사대사상을 나타내어 아부와 부역으로 놈들의 위세를 빌어 동족을 괴롭히는 자까지 출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국민성(國民性)은 몹시 왜곡(歪曲)되고 비굴해졌으며 순간적인 안일과 현실도피적인 풍조가 생기게 되었고 더욱이 일본의 저속한 풍습과 생활양식이 전염됨으로서 한국인의 윤리관과 생활태도는 극도로 추락(墜落)하여 식민지 특유의 부패와 사회악은 점점 고질화(痼疾化)되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역사적인 유산을 지닌 채 맞이한 해방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주체적인 역량이 없는 우리 민족에게 서구물질문명의 거센 조류는 오히려 분류(奔流)에 밀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지어내게 하였다.

군정(軍政)하에서의 행정질서의 혼란과 국민의 사상적 과잉상태는 경제적 피폐(疲弊)와 더불어 국민에게 갈길을 잃게 하고 생활의 빈곤과 더불어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는 퇴패(頹敗)해지고 말았던 것이다.

민국수립과 더불어 비롯된 이 정권 12년은 장기집권을 위한 권력정치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제 법률은 집권자 자신들에 의하여 유린을 당했으니 일반사회에 공정한 질서가 유지될 수 없었으며, 권력만능의 사조는 수입된 물질문명의 배금사상과 짝지어 돈이나 권력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풍조를 길러냈다. 관료들에 의한 월권, 횡포(橫暴), 수회(收賄)는 공공연히 자행되어 '빽과', '사바사바'라는 그 당시의 유행어는 하나의 상용어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관권(官權)에 의한 소수 실업가의 부의 독점은 기아선가에서 허덕이는 민생고와 좋은 대조를 이루었으며, 도시를 중심으로 한 사치(奢侈)와 향락과 범죄 등의 악의 꽃이 번성은 갈수록 궁핍하여만 가는 농촌의 빈혈상태와 너무나도 기막힌 대조를 이루었던 것이다. 권력연장을 위한 폭력배에 대한 비호는 깡패의 난무(亂舞)를 가져왔고 불의와 사기는 원칙화 되고 모략, 중상, 엽관(獵官), 매직 그리고 아부와 비굴만이 유일한 처세술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부패와 사회악은 마침내 권력 연장의 방법으로서 감행된 인간의 기본권의 유린인 부정선거에 이르러 국민의 분노를 폭발케 하여 부패와 독재 속에서 연명하여 온 이정권(李政權)에 종지부를 찍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4·19혁명은 이러한 불법 탄압을 용납할 수 없어 일어났던 한국민의 본원적 역량의 표현이었다. 이 불꽃같은 국민의 열망과 기대 속에서 탄생한 장정권(張政權)은 그 무능과 파쟁 그리고 금력본위의 부패로 인해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너무나 무력하였다. 사회를 좀먹고 있는 제 별패의 개혁은 커녕 이정권(李政權) 때의 부패에 무능과 금력본위의 정치방법이 가해졌을 뿐이다. 정실인사(情實人事), 국고 금의 유용, 증수회(贈收賄), 탈세 등은 역사적으로 누적된 부패와 구악을 증가시켰을 따름이다. 실업과 기아는 구제의 길이 없었으며 조직된 깡패는 여전히 시민생활을 위협하였던 것이다.

3

온갖 병폐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점차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띠고 멸사봉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군대 내에도 부지불식간에 침투하여 왔다.

6·25의 쓰라린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신성한 국민 된 의무의 하나인 병역을 기피하는 경향이 사회에 미만(彌滿)하여 갔다. 돈 있고 권력 있는 가문의 아들들은 사치와 호강으로 도시의 향락을 만끽(滿喫)하고 있는 반면에 노동과 품팔이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던 도시의 실업자나 농촌의 젊은이들만이 치루는 것이 병역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소위 '빽'이 없는 사람은 일선에 가야만 했고 좋은 자리는 배경 있는 사람의 독점물처럼 되어버렸던 것이다. 능력에 따라서 균등한 기회를 준다는 민주주의 원칙은 법질서가 문란하고 사회정의가 없는 곳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공염불이었다.

보급이나 기타 특수계통 등 소위 좋은 자리라고 일컫는 직책에 근무하는 하사관들의 생활은 오히려 일반장교들의 생활보다도 훨씬 윤택하였었다. 그리고 고지식하게 일선에서 근무하는 장병을 사회는 어리석다고 비웃지 않았는가. 그러기에 좋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제자리를 튼튼히 하기 위해 직책을 악용하여 온갖 부정과 범칙(汎則)을 하면서 상관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하였던 것이다.

4

이것이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한국의 숨김없는 사회상이었으며 군대의 실정이었다. 그러나 혁명은 이러한 부패된 사회에 일대수술을 단행하여 붕괴 직전에서 허덕이던 우리 민족에게 소생의 희망을 가져다주었다.

질식직전에서 소생한 국민들이 하여야 할 급선무는 부패와 구악의 일소(一宵)란 한마디에 그친다. 혁명은 모든 것의 일신을 요구한다. 부패를 빚어낸 것도 인간이며 광명과 희망을 불러일으킨 것도 인간이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인간의 창조, 인간혁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새로운 인간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논리와 기풍을 만들어야 한다.

혁명 후 한때 사회질서와 도의를 파괴시키던 기피자와 도망병이 일소되고 전력을 저하시키던 군수품 주정사건 등이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은 대단히 흔쾌(欣快)한 일이거니와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과연 자율적이냐 또는 타율적이냐 하는 것이다. 도의재건은 국민 스스로의 자각적이고 자율적인 행동이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으며 어떤 법규의 제약이나 공포감에 사로잡혀 타율적 행동으로서 표면상의 일시적인 것이라면 그야말로 사상누각(砂上樓閣)과 같은 것이다.

유교의 영향을 받은 과거 우리나라의 도덕관념은 그저 자기만 점잖게 생활하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면 그것으로 도덕의 준행자(遵行者)로 여겨왔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도덕관은 자기 자신은 물론 온갖 도(道)적인 힘을 규합하여 사회의 부도덕한 것과 도전하여 승리하여야만 참된 복지국가건설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군인 개개인으로 하여금 그런 자각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과 바탕을 마련해 주어야 함은 물로, 각자는 다른 사람이어야 어떻든 나 자신이 먼저 도덕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일단 나 자신을 무자비하게 비판하고 반성해서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자기의 부도덕하고 고쳐야 할 점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단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자존심이나 이기심이 가로막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이기적면에 손상이 온다손 치더라고 보다 나은 군대와 사회를 재건하기 위하여서도 용감히 단행하면서 마치 어떤 수술을 한 뒤에 완쾌된 것과 같이 시원해지며 자신이 개변되는 동시에 자기 가정은 물론 군대와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군대의 구성원인 바로 나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펴져 나가게 하면 그 군대와 사회는 마침내는 도덕적 기초 위에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게 될 것이다.

이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솔선수범하게 될 때에 비로서 군은 상하가 존경과 신애로서 결합하고 좌우 동료 간이 신뢰와 우의로서 단합하는 참된 인화단결이 이룩될 것이며 집단의 힘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는 강한 군대가 될 것이다.

국민은 우리들의 일거일동을 주시하고 있다. 국운을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궐기(蹶起)하여 국가재건의 국민대열의 선봉을 걸어온 군인들의 언행은 그대로 일반국민에게 반영되어 연쇄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순시(瞬時)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구국제민의 길은 재건과업완수에 있으며 국가재건은 우리들 개개인의 참된 인간개조에서 오는 도의의 재건과 청신한 사회기풍을 이룩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불혹(不惑)의 혹(惑)

나이 사십을 불혹(不惑)이라고 한다. 이것은 물론 공자에서 나온 말이다 위대한 스승이었던 공자는 70여년의 긴 수양(修養)의 생애를 돌아보고 자기의 인생을 감개무량한 심정으로 술회하였다. "내가 학문에 뜻을 두게 된 것은 열다섯 살 때다(지학(志學)). 서른 살에 이르러 하나의 독립된 사회인으로서 세상에 서게 되었고(이립(以立)), 사십세에 불혹의 경지에 도달하였고(불혹(不惑)), 오십에 이르러 천명을 알게 되었고(지천명(地天命)), 육십세에 이르러 남의 말이 귀에 거슬리는 일이 없었다.(이순(耳順))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여도 도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경지에 도달한 것은 칠십 세에 이르러였다.(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

나는 중학교에서 한물을 배울 때 공자의 이 유명한 술회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 때는 별로 나의 관심이 동하지 않았다. 그저 멋모르고 읽곤 하였다. 이 술회의 깊은 뜻을 생각하기에는 나의 정신적 연력이 아직 어렸었다.

나는 새해에 불혹하고도 넷이다. 삼십 말할 때에는 인생이 창창한 것만 같더니 사십 줄에 접어드니 인생에 대한 생각이 저절로 진지해진다. 기억력은 오히려 후퇴하는 대신 사물에 대한 이해력이 깊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뜨이는 것 같다. 생을 응시하는 눈초리가 맑아지고 생을 사색하는 태도가 성실해 진다.

공자는 사십을 불혹이라고 했다 불혹(不惑)이란 혹하지 않는다는 뜻이요 또 혹(惑)이 없어졌다는 의미다. 하필이면 왜 사십을 불혹이라고 했을까? 공자는 결코 범연한 생각에서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게다.

나는 공자의 불혹의 뜻을 혼자 생각해 보곤 한다. 사십에 불혹이라고 한 것은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사십대가 가장 혹이 많은 때인데 그 혹을 떼어 버렸다는 뜻일 게다 모든 사람이 사십에 혹하는데 또 혹하기 쉬운데 자기는 혹하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라고 나는 해석한다. 사십 고개는 넘기 어렵다고 한다. 인생으로서 아무런 티와 실수 없이 곱게 깨끗하게 보내기가 어려운 고비다.

분명히 사십대는 혹의 대(代)요 혹의 고개다. 인생의 온갖 욕심들이 저마다 고개를 쳐든다. 이상주의의 숭고한 정신과 정열을 사라지고 현실주의적인 관심과 타산이 앞서는 때다.

"청년은 술이 없어도 취한도"고 괴테는 노래했다. 이십대에 예술가 아닌 사람이 없고 사십대에 현실주의자 아닌 이가 없고 육십대에 종교가 아닌 인간이 없다고 톨스토이는 말했다.

사십대는 술 없어도 취하는 때는 아니다. 인생은 꿈과 순수와 정열과 낭만과 감상을 노래하기에는 사십대는 이미 뼈가 굳었고 피가 흐려졌다. 그의 마음은 현실에 대한 강한 관심과 인생으로서의 의무와 사회적 활동으로 바쁘다.

<안동욱(安東煜)씨의 '사십고개'에서>

북한 산봉(山峰)에 있는 이른바 '성분등록소(性分登錄所)'

"20년후에 오시오"

-북한실태-

깨어진 낙원(樂園)의 꿈 (중)

세살난 아기의 결혼

우리들 '일조협회(日朝協會)'사절단 일행은 금강산에서 3일간의 휴양을 하기도 되었다. 신문에서나 '신조선(新朝鮮)'이라는 잡지에서나 북괴당국은 설명하기를 북한의 노동자들은 1년에 1회씩 20일간의 유급휴가가 있으며 교대로 이 금강산에서 쉬게 된다고 말했다.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격렬한 '생산투쟁'에 지친 노동자들이 휴양을 한다는 금강산이란 어떠한 곳인가. 시설은 어떤가. 그리고 노동자들은 어떻게 휴양하고 있는가?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금강산에 가게 된 나는 삼일포, 구룡연, 만물상 등 3일간에 걸쳐 탑승했으나 우리 일행과 만나게 된 것은 중국청년단 일행뿐이었으며 북한 노동자는커녕 한사람의 휴양객도 만나볼 수가 없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셈인가? 금강산 휴양소는 외국인을 접대하는 곳이며 당(黨), 정부 상부층의 전용이었다는 것을 나는 전연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들에 대한 접대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매일 진미가효(珍味佳肴)로 주식(酒食)의 향연을 베풀어 포식시키며 식당에서 여 동무와 손에 손을 잡고 댄스를 시키는 등 이대로 그들의 접대에 기분을 내다가는 우리는 바보처럼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정말 '낙원(?)'에서 헤매다가 일본으로 돌아오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꿈에 그리던 공산주의 낙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자 바다와 대륙을 거쳐 수 천리 이곳을 왔기에 그들의 진미가효에 홀딱 반할 그러한 위인은 아니었다.

때문에 나는 보았다. 금강산 숙사(宿舍)의 하룻밤, 식당 한 구석에서 흰 '쯔메에리'복의 동포가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그는 밥 한 그릇에 김치와 된장국이었다. 이것은 분명히 나를 놀라게 하였다. 그 사람의 신분과 직위가 무엇인지는 나는 모르나 금강산에서 일류 가는 호텔의 종업원의 식사가 이렇다니 말이 아니며 내가 대접받는 음식과 비교해 볼 때 나는 가슴이 막히는 것만 같았다. 왜냐하면 내가 그러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마치 이들 동포의 골육(骨肉)을 갉아먹는 것만 같았으니까 말이다.

북한은 지금 심각한 식량난이다. 나는 금강산 호텔 종업원의 식사를 보고 알 수가 있었다. 이들 배고파하는 동포를 생각해서도 우리 사절단 따위 일행은 빨리 돌아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니 금강산 탐승기분이 없어지고 말았다.

북한은 어느 거리를 거닐어 보아도 식량을 자유 판매하는 것이 눈에 띠지 않 는다. 엄격한 통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통제가 전시이상으로 계속되고 있다. 부족한 것은 식량뿐만이 아니다 의(衣), 주(住) 모든 생활필수품의 창고가 바닥이 들어났다.

나는 북송동포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았지만 친척, 지인들에게 보내온 편지도 많이 보았다. 다음에 그 한 예를 인용해 보자.

수개월 전 오까야마(岡山)에 살다가 북한으로 간 사람이 일본에 남아 있는 친척에게 보내온 편지이지만 이 밖에도 한 통, 북한으로 간 가족이 젊은 사람이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사연이 들어있는 편지가 왔다. 굶어 죽었다는 것이며 일본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젊은 사람은 북한에서 노동을 기피한 일도 없으며 또는 반항적인 행동을 취한 바도 없고 듣건대 자진해서 북한으로 갔다고 한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고 공산주의자들은 말했다고 하는데 이 젊은이는 일을 했는데도 어째서 굶어 죽었단 말인가. 일본에서는 놀고도 아직 굶어서 죽었다는 소문은 없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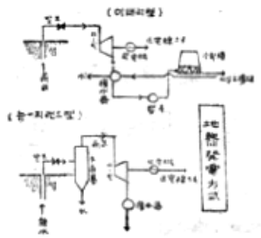
다음의 편지를 잘 읽어보자,

'일용품은 아직 생산이 잘되어 있지 않다. 내년부터는 불편이 없어질 것이라고 정부에서는 말하고 있다. 자네 친척에 ○○자가 있지. 그 ○○자는 꼭 일본에서 결혼을 해서 북한으로 오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하네' 북한은 한국동란으로 젊은 남자의 부족이 대단하다는 사실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편지에 나타나는 ○○자의 결혼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는 올해 3세의 여식 애며 북한을 오려면 20년 후에나 오라는 암호인 것이다. 북한 당국의 검열을 빠져나가는 교묘한 수단인 것이다.

'여기까지 와서 이런 부탁 죄송하오나 북한으로 오는 사람 편이 있으면 아이 바지, 치약, 전기 쌍소케트, 비닐 우장, 탈지면, 비누, 사탕, 운동화 아직도 많지만 이것만은 꼭 히 가져오도록 부탁드립니다. 저의 생리대도 이곳에 와서 말리다가 몽땅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오는 사람에게는 될 수만 있다면 못 한 개라도 남기지 말고 가져오도록.....'세 살 난 아이가 성장해서 결혼한 뒤

<과학상식>

지열발전(地熱發電)이란?



◇발전의 방법

지열반전이라고 하면 대단히 어려운 술어 같으나 원리적으로는 화력발전과 다름이 없다. 증기터빈을 돌려서 그것으로 발전기를 움직여 전력을 얻는 원리에 다름이 없다. 단지 증기가 화력에서는 연료가 필요하지만 지열발전에는 천연 또는 열수(熱水)에서 취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 증기며 열수는 지중의 암장(巖漿)속에 포함되어 있는 지하수가 이 암장이나 암장 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지열발전은 이 천연증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태리형)과 열수로부터 분리기를 사용하여 증기만을 뽑아서 사용하는 방식(뉴질랜드형)이 있다. 이태리형은 증기의 온도, 압력이 높고 분출량의 전량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출력도 크다. 그러나 증기에 불순물이 혼입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류가 부패될 우려가 많다. 또 증기가 분출하는 지점의 색출이 어렵다. 뉴질랜드 형은 이 반대로 비교적 간단히 지점을 발견할 수 있으나 얻어지는 증기의 양이 적으며 분출구가 막힐 걱정이 많다.

◇이점(利點)과 결점(缺點)

지열발전의 최대 이점은 연료비가 전연 무료다. 수력발전처럼 커다란 댐이 필요치 않으며 화력발전처럼 석탄, 중유가 필요치 않고 따라서 그것을 운반하는 시설이며 저장장소가 필요 없다. 또 재를 처리하는 시설이 필요 없기 때문에 건설비가 수력이나 화력에 비해서 거의 절반도 들지 않는다. 1 키로와트 시 코스트를 원화로 환산해보면 미국에서는 45전, 이태리65전, 뉴질랜드는 83전, 일본에서는 90전 정도이다.

결점으로는 막대한 조사비가 먹힌다는 점이다. 첫째 지열발전을 가능케 하는 열원의 발견이 힘들다. 1천 키로와트의 지열발전을 하려면 섭씨 200도, 수 기압의 증기가 매시 10톤 연속으로 얻어져야 한다. 이처럼 다량의 안정된 증기가 분출할 지점을 발견하면 그 곳에 1본당(本當) 약 2천 만원이 먹는 보링을 해봐야 한다. 그런데 지열발견을 위한 조사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보링의 확률도 매우 낮다.

오라는 것은 적어도 20년 후에나 오라는 것이며 이것은 결국, 북한은 사람 살 곳이 못 되니 올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냐. 적어도 발신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나는 평양에 있는 동안에 안질(眼疾)에 걸렸다. 평양시 적십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안약을 받았다. 돈은 받지 않았다. 안약은 20그램 정도인데 그것이 보통 병에 들었기 때문에 눈에 넣을 수가 없었다. 북한에서는 아직 스포이드식 용기가 없다.

용기쯤은 그래도 좋다고 하자. 딸의 결혼을 해야겠는데 옷을 해 입힐 감이 없다. 일본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첫째로 가장 놀란 것이 도둑이 많다는 사실이다. 여러 가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은데 사회주의 사회에 도둑이 이처럼 많다니 어떻게 된 셈인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무엇이든 필요한 것은 다 준비되어 있다고 그처럼 떠들어 대어놓고 이건 무엇으로 어떻게 변명하려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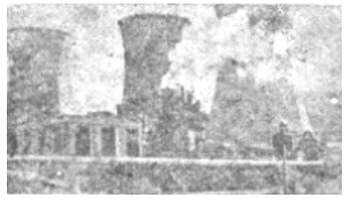
변명이고 해명을 필요치 않는 곳이 북한 공산정권인 것이라 말인가. 옛날 한국에는 '3일을 굶으면 누구나 도둑이 된다'라는 속담이 있었다. 이러한 속담의 배후의 사정을 생각해 볼 때 그 사회가 얼마나 가난한 역사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시피 오늘날 이 속담이 그대로 인용되는 북한의 대중생활은 능히 그 핍박상을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어째서 이렇게 물자가 부족한가? 그 이유는 명백하다 원래가 가난한데다가 전쟁의 상처는 너무나 크다. 모든 물자부족 생산시설 부족, 헤이면 끝이 없고 팔방이 막혀있다. 여기에 중앙집권적 전체주의 정치노선인 공산주의 바윗돌이 인민을 억눌러 중공업 중점, 기간산업 중점으로 일체를 국영화하여 그것의 무리한 목표 달성을 오직 뼈만 남은 인민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정권은 그 벅찬 목표를 오직 인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하자는 것이다.

이 목표가 달성될 때가지 북한 인민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희생되어야 하며 그것은 1년이나 2년의 문제가 아니요 10년, 20년 아니 몇 십 년이 계속될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공산당원이 된다는 길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몇 갑절의 힘과 몇 갑절의 격렬한 경쟁에서 승리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공산당원 된다고 해서 곧 이 지옥에서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다. 자기개혁을 완성해가며 치열한 권력 다툼과 싸워 일보일보 조심성 있게 전진하여 간부급에 올라서 비로소 인간답게 먹고 입을 수 있는 것이다. 공산당원이 될 때까지 그는 그의 피와 살을 송두리째 당에 바쳐야 한다. 그러한 적격성(適格性), 순응성을 전제로 가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뼈만 남게 되기 마련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를 가리켜 약육강식이라고 한다. 공산주의 사회의 격렬한 경쟁은 자본주의 사회의 몇 갑절의 약육강식이 행해지고 있다. 이것은 소련을 비롯하여 세계 어느 곳의 공산당의 역사가 여실히 증명하고 있지 않는가. 북한이 이 예에서 빠지지 않고 있음은 뚜렷한 사실이다.



이태리의 라루데미로 지열발전소

한편 지열발전은 화력발전에 비해서 온도가 낮으며 압력도 낮기 때문에 특별히 저압용 터빈이 필요하며 증기 속에 유화수소나 아유산(亞流酸)가스를 함유하는 경우에는 기계류의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조사의 방법

지열발전을 개발하려면 열원이 있는 장소, 증기 등의 통로, 분출용량 등을 알아야 한다. 증기나 열수가 있을 듯한 지질구조를 확정하며 지하수의 유무, 지온의 측정 등 간접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질적, 화학적, 물리적인 여러 가지 수단이 있으나 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지하심부의 조사에 사용되는 물리탐사다. 전기심사, 지진심사, 중력심사, 자기심사 등이 그것이다.

전기심사는 지하수, 암석의 열 변질, 지하구조를 조사하는데 사용되는데 이를테면 물이 있는 곳에는 전기저항(電氣抵抗)이 감소되는 것으로 지하구조를 알아내는 등이다. 또 다이나마이트로 인공지진을 일으켜 지질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현상으로 지하구조를 탐색하고 지층의 시대결정에는 방사성동위원소 탄소14 등이 이용되고 있으며 지중의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에서 열원까지의 거리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열수, 증기 등의 저류 층이 있다고 추정되었을 경우 보링을 행하여 증기의 질, 양등을 조사한다. 대상이 고온이고 가스등이 함유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견디어내는 내열측정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나라에서도 방법은 대동소이하며 이태리에서는 증기심사, 뉴질랜드에서는 중력, 지진, 자기심사를 중심으로 지열심사방법이 진보되어 가고 있다.

황문구(黃文九) 역

구석구석 살펴보자
붉은 마수 노리는 곳

나는 이러한 생각을 되풀이 되풀이 자문자답했다. 이러한 나의 심리는 분명히 크게 요동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었다. 나로서는 과거에는 상상도 않던 새로운 고찰이 머리속에 발아하였고 전연 반대의 사실이 눈앞에 전개하기 시작했다. 나의 마음의 동요는 더욱 더욱 커져갔다.

나는 말하자면 체험적사회주의자다라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것은 나 자신의 경력을 반성해보면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나는 항상 피압박민족, 소수민족으로 생장하여 가난과 고통을 오체에 체득하였고 조국을 빼앗긴 민족의 비극을 몸소 맛보아 왔다.

반면 나의 눈에 비친 것은 지배자, 점령자, 권력자 부르조아의 호사와 거만 불손이며 그 앞에 굴종하는 매족적(賣族的) 권력맹자(權力盲者)의 동포였다.

나는 가정의 경제적 급변으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 했다. 향학심은 불타고 있었으나 간신히 독학으로 당장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나에게는 기회도 오지 않았다. 나는 중요한 인간으로서의 인격형성기에 만족할 만한 체계적 학문을 닦을 수 없었음이 지금도 유감이다. 맑스, 레닌이즘도 학문으로서 충분히 체득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일본의 패전 당시의 재일한국인이 모두 그러했듯이 나는 60년간의 일본제국주의의 기반(羈絆)으로부터 해방된 조국 한국, 이번에야 동포를 위하여 조국독립이 이루어지며 그 정체(政體)는 자본주의나 제국주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38선은 한국인의 희망을 짓밟았으며 조국으로 하여금 또 다시 두 조각을 만들고 8·15의 감격을 엉뚱한 것으로 변형시키고 말았다. 그러나 나는 주저함이 없이 김일성이 이끄는 정체에 동조하였고 일본에 있어서는 조총련의 중견으로서 과분할 정도로 활약했었다. 항상 민전(民戰)을 비롯해서 평화운동, 조국통일운동 그리고 북송운동의 선두에서 싸워왔다.

나는 나의 부동의 신념과 행동에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나의 자식들에게도 나의 사상과 신념을 가르쳤다. 때문에 3년 전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미군의 폭격으로 초토가 된 땅을 보고 눈물을 지었으며 소위 승전기념관을 방문하여 그들의 싸움과 중공 의용군에 대해 묵념을 올리며 나의 여생을 북한을 위하여 바치고 마침내는 북한 땅에 뼈를 묻겠다고 자식들에게까지 말했던 터이다.

그런데, 그런데.....

38이북의 거짓말

우리들 일행이 청진을 향하는 열차 중에서 생긴 일이다. 일행의 멤버의 한사람인 테라고카(寺尾五郎)씨(평론가·조일협회상임이사)가 세 명의 청년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며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었다. 청년들의 항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우리들은 당신이 쓴 책을 읽고 북한에 왔다. 그런데 와보니 당신이 쓴 사실과는 전연 반대다. 우리는 당신한테 속아서 일생을 망친 셈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약간의 예비지식이 필요하다.

1958년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으로 '38이북'이라는 책을 읽은 분들이 이글을 읽는 독자 중에도 많을 것으로 안다. 그 저자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테라고카씨다. 테라씨는 그에 앞서 북한을 방문하고 그 견문기로 '38이북'이라는 책을 썼다. 당시 이 책은 특히 재일 한인들에게 많이 팔렸다. 아직 이 책을 읽지 않는 분들도 대개 내용을 추찰할 수 있겠지만 말하자면 북한을 구가(謳歌)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북한을 찬미하는 것으로 그치는 내용으로 이 책이 재일교포의 북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만은 사실이다. 테라씨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38이북'은 좌익평론가로서 보람 있는 저서일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 책을 읽는 것과 북한의 진상의 어처구니없는 차이를 독자는 알 길이 없었던 것이다. 때문에 그 청년들은 배신당했다 해서 항의한 것이다. 그러나 테라씨는 결국 그것은 주관의 차이라고 믿고 나갔지만 옆에서 듣고 있던 나는 적지 않게 당황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실은 나도 1959년의 북한여행기'중국·조선을 방문하고'라는 소책자를 발간(1960년 3월)했었기 때문이다. '중국·조선을 방문하고'는 백 페이지 남직한 소책자이며 자비출판, 비매품으로서 우인(友人)들에게만 배포했었기 때문에 행인지 불행인지 '38이북'처럼 항간의 눈에 띠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내용의 경향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다. 나는 한국에서 태생하여 한국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투쟁하고 일본인의 국적을 가지게 된 후에도 한국문제에 있어서는 제3자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나는 말하자면 '조선사람 이며'내가북한을 보는 눈에는 아무런 필터도 끼워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테라시가 세 명의 청년으로부터 항의를 받을 때 나의 가슴은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왜?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지금 내가 그때 그 광경을 회상해 볼 때 나는 고의로 그 항의에서 눈을 돌리고 있었을 것이다. 나의 마음은 지금 완전히 북한을 떠나고 말았다. 그 훌륭했던 선배, 은사, 지우(知友)들은 모두가 실각이 아니면 행방불명이 되고 말았다. 도대체 그들이 북한 땅이라도 팔아먹었단 말인가? 그러한 근거도 징조도 나는 호말만치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두 번째 방문인 금번의 방조(訪朝)는 57년에 방조했을 때 신세를 진 사람들을 만나보고 얘기하자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으로 삼아왔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가 행방불명이며 나를 찾아온 사람들조차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공산주의 국에서 이름 있는 사람들이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할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그들은 왜? 처형되어야만 했단 말인가. 그 가운데에서도 57년 당시 과학원 경제법학 연구소장이었던 윤행중의 행방불명은 나로 하여금 단장(斷腸)의 슬픔을 자아내게 하였다.

일본인으로서도 윤행중을 아는 이가 많겠지만 일본점령당시에는 경성대학 교수였으며 한국제일의 경제학자였다. 나는 선생과 동일한 전라남도 순천태생이며 57년 방북 시에는 수 십년 만에 만나 함께 동심으로 돌아가서 고향의 산천을 얘기하며 더욱 투쟁 할 것을 굳게 언약했던 것이다. 그 때 나와 이승만 폭정에서 순천을 하루 빨리 구하자고 굳게 악수 했다. 이러던 근엄한 경제학자 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숙청을 당한단 말인가? 나의 놀라움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3년 전 내가 만났던 지도적 인물 치고 제자리에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들이 모두 거물급만도 아닌데 지금 그들의 행방은커녕 그들의 가족조차 한 사람의 거처도 알 길이 없었다.

적십자부사장인 유영후(劉永後)(여)나 평화위원회서기장이었던 최성환 등 행방이 묘연했다.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나는 참고로 여기에 행방불명이란 이름의 숙청의 시례를 몇 개 들어보기로 하련다. 잊어서 아니 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53년

박헌영(朴憲永)은 남조선노동당의 당수로서 민족파에 속해 있었으나 북한에 들어가서 부수상겸 외상이 되었다. 그러나 간첩(間諜), 반국가활동이라는 죄목으로 민족파 12명과 함께 숙청되었다.

※1956년

부수상 박창옥(朴昌玉), 동(同)최창익(崔昌益), 고종상(高宗相), 윤공흠(尹公欽)의 3인은 반국가, 반당, 수정주의자라는 죄목으로 숙청되었다.

※1958년

김과봉(金科奉)은 중공파에 속하며 중국에서 민족통일전선에 참가, 연안에서 조국독립 운동을 계속한 인물로서 1957년까지 '북조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있던 요인이다. 그런데 1957년 8월 '북조선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가 행해지고 김일성(金日成)이가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자 김과봉을 노동당에서 제명하고 그 직에서 추방하고 말았다. 이제 여기에 이해하기 곤란한 하나의 사실을 소개해 보자

1960년 8·15해방 경축기념의 전 행사를 통해서 중공과의 우호를 강조하는 슬로건은 하나도 없이 '위대한 소련만세', '조소친선만세', '김일성수상만세', '조선노동당만세',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하자!', '건초 생산은 고기가 된다'따위로 가득 찼다. 6·25동란 때 그들은 중공으로부터 절대적인 원조를 입지 않았는가. 소련인은 한사람도 죽지 않았어도 중공군은 얼마나 많이 죽었는가. 그런데 중공과의 우호에 관한 슬로건이 하나도 없다니 실로 괴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지 않는가.

공산당(共産黨) 단원행상기(團員行狀記)

북송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 일행이 청진을 갔을 때 일이다. 마침 이 배에는 히로시마에서 필자가 경영하는 사업체에 오래 근무한 한 일본 여성으로 자원해서 북한으로 간 남편을 따라 이번에 자신이 북한에 단신 뛰어 들어온 사람이 타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갑자기 울음을 터드렸기 때문에 나는 적지 않게 당황했다. 남편이 그리워 생소한 다른 나라에 그것도 일본과는 모든 제도가 다른 땅에 여자 혼자서..... 그 심정을 나는 짐작할 수가 있었다. 나는 그 여성을 위로해 주고자 그의 옆으로 다가섰다.

그러자 구주대표(九州代表)의 단원(구태여 나는 여기서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모씨가 나의 손을 잡으며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가.

어름어름하는 동안에 나는 끝내 그 여자와 얘기를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구주대표는 알뜰한 공산당원이며 부 비서 격으로 일행의 일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자에게 여러 가지로 방해를 받은 사람은 나 뿐만은 아니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북경에 도착해서 어느 날 조총련의 부의장인 황봉구(黃鳳九)를 거리에서 만났다. 그때 황은 넥타이를 매고 있었는데 모단원이 그 넥타이를 가르치며 "저 넥타이는 모씨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인데 황씨는 자기가 매고 다니 잖어."하고 방언(放言)하였다.

황봉구라면 알려진 인물이다. 그런데 그가 넥타이 하나를 탐내어 그럴 수가 있겠는가하고 생각했으나..... .

단원명단에 나의 직함을 '동양 블록 주식회사'(정식으로는 동양블록공업주식회사)라고 쓰여 있기에 정정을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았고 또 나는 '일조협회 오까야마(岡山)지부 부지부장'인데도 '이사'라고만 기입되어 있었기에 정정을 요구했으나 묵살됐다. 또 나는 평양에서 감기가 들어 부비서 격인 그에게 약을 요청했으나 다른 단원에게는 주면서 나에게는 거절했다. 뒤에야 알았지만 그를 조종하여 나로 하여금 모함하려고 한 자가 있었던 것이다.

앞서 잠깐 얘기 했지만 평양 호텔에 체재 중 구주에서 북송된 모 청년이 이 단원을 만나고자 칠십리 길을 걸어서 찾아왔으나 청년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후일담이 있다.

청년은 그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구주대표에게 뛰어가서 울면서 필사적으로 편지를 전했던 것이다. 나는 그 때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편지를 읽어보고 청년의 신변에 특히 영향이 없을 경우 그것을 공작원에게 주는 것은 무방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찢어버리는 것이 그 청년을 위해서 좋겠다."하고 권고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나의 부탁을 아랑곳없다는 듯 "나는 공산당원이니까요....."하고는 그 편지를 자랑삼아 공작원에게 주고 말았다.

나는 그 청년의 편지를 읽어볼 수는 없었지만 어떠한 내용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는 있다. 1주일 동안이나 호텔을 찾아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드디어는 최후의 수단으로 금지된 직소(直訴)의 수단을 취하게 된 것이다. 그는 견딜 수 없었고 참을 수 없었던 그 무엇이 있을 것이다. 그는 그러한 편지(북한당국에서 볼 때 있을 수 없는 어떤 진상)를 그 대표를 믿는 나머지 직소했다가.....아.....이 이상 무엇을 쓰겠는가. 그 청년이 무사하기를 나는 빌었으나 아마 지금쯤 그가 살고 있는지는 의문인 것이다.

이 당원단원의 비인도적, 그리고 그 냉혹한 행장기는 그만두고라도 우리 사절단일행이 일본으로 돌아와서는 보고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보고를 해야 하는가? 나를 제외한 다른 단원은 단순히 북한정권의 선전이나 조총련 측의 선전을 그대로 받아들여 외관상으로 보고 온 북한을 그대로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럴 수가 없다. 나는 다 같은 동포의 입장에서 보는 것, 듣는 것, 나의 관찰은 근본적,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들은 이방인이며 만능의 사람도 아니다. 언어를 모르고 관습을 모르고 생활을 모르는 그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모든 실태, 실상을 나만치도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초대받은 여행자, 초대받은 관광객이다. 거기다가 사회주의를 칭송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여행자도 아니요 관광객도 아니며 동포의 진상을 조사하려고 간 사람이다. 어찌하여 보고 듣고 느끼는 점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단 말인가. 나의 추측은 들어맞았다. 대다수의 사절단원은 귀국하자 그들의 선전, 그들의 공식발표만을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낙원이 있었다.", "거기에 인류의 꿈은 개화하고 있었다."고 떠들어 대었다.

왜곡(歪曲)된 '북조선시찰담(北朝鮮視察談)'

사절단의 피상적이고 천박한 견문보고 가운데 '조선은 풍치(風致)와 청결(淸潔)을 좋아하는 나라임으로 아파트에도 일본의 아파트처럼 세탁물이며 침구를 널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다. 이것이 얼마나 피상적이며 천박한 보고인가를 알아보자.

그것은 함흥에서 아파트를 견학하는 때였다. 예에 따라 외관은 거창한 아파트이다. 어느 창구에도 수건하나 널어놓은 것이 보이지 않았다. 어린애 기저귀도 없다. 이럴 수가 있겠는가. 사람이 사는 방에 수건도 한 장 없다니 말이다. 모단원이 짓궂게도 이렇게 물었다. "이 커다란 아파트에 수건 한 장, 애기 기저귀 한 장 보이지 않는 군요 어디 다른 곳에 빨래 너는 곳이 있습니까?"

얼핏 생각하기에는 우리 일행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걷어 치웠던가 그렇지 않으면 오토메이션 건조설비가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는 전연 반대였다. 공작원은 가까이 있는 광장에 단원을 안내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말리지요"

단원은 그것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석가래 몇 개가 세워져 있고 대나무 몇 개가 걸쳐져 있었다. 이 많은 세대가 어떻게 여기서 그 빨래를 다 말릴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은 수건하나 널려 있지 않지 않은가. "이곳에는 많아야 5~6세대, 무리해서 10세대 더 이용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하고 단원이 반문했다. 그랬더니 그 공작원은 "우리들은 빨래를 아무 대나 널지 않습니다. 풍치와 청결을 좋아하는 국민입니다."하고 엉뚱한 대꾸를 했다. 그리고는 한국말로 "이상한 자식이다. 여기서 넌다고 말하면 그렇게 알 일이지 왜 꼬치고치 캐는 거야..... ."하고 중얼 대었다.

독자는 이것을 한 토막의 희극으로 알는지 모르지만 북한실정을 볼 때 이것은 끔찍한 비극인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만큼 물자가 부족함을 뜻하는 것이지만 내가 여기서 이 얘기를 끌어내는 것은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인간이란 생활의 물자 면이나 환경이 너무 격절(隔絶)되어 있을 때 말의 뜻조차 달라진다는 것이다. 지금의 북한사회와 생산과잉(生産過剩) 노이로제에 걸려있는 일본과는 그만큼 사이가 크다는 것이다.

북방단원이 얻어온 형식적 공식적인 외래자를 위한 숫자나 외관만으로 서는 재일교포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터무니없이 그르치고 있는 것이다.

(P22에서)

기본목적을 중심으로 거대한 관리기구(管理機構)로 볼 수 있으며 그 관리기구안에서 장교, 하사관 및 병은 제각기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군 본연의 임무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군 조직에 있어서 장교를 그 중핵적인 존재로 본다면 하사관은 그 기간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장교가 지휘자의 기능을 담당하는 한편으로 하사관은 그 지휘관에 작업원을 관리하는 감독관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감독관으로서 하사관은 작업조건을 향상시킬 임무가 있으며 작업을 계획하고 지휘하고 조정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실무자이며, 작업원을 훈련하여 작업능력을 향상시킬 책임을 가지며 작업원을 효과적으로 다루어 협동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의 사기와 안전을 도모할 임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하사관의 임무는 일견 잡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중요한 임무이며 필수적인 임무이다. 하사관 제관들이 이와 같은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해 나감으로써 우리 공군은 명실이 상부한 세계의 강군이 될 것이다.

흐르는 시간과 같이

글·그림 김기창(金基昶)

나이에 무게가 더 할 수로 뻐저리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 그것은 미사일보다 빠른 속도로 줄 다림질처 가버리는 시간이란 것이다. 작년 이맘때 새해 새아침이라 해서 무엇인가 한 해 동안 해야 할 플랜을 세워보던 날이 아무래도 어제 같은데 벌써 365일이 후딱 흘러가 버렸고 이제 다시 맞이하는 새해고 보니 거짓말 같은 환각마저 느끼게 한다.

어린 시절에 하루가 무척 길고 길다고 생각하던 기억이 난다. 청년시절에도 그랬다. 한데 중년기에 들어서면서 이와 같이 시간의 눈에 띠일 정도로 빠르다고 느껴지는 것은 무슨 탓일까? 생활이 바빠진 탓일까? 그 석도 있을 것이다. 몸이 늙어가서 게을러진 탓일까 그것도 한 목 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도 더 큰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간도 기계도 생활도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줄 다림 치는 기계문명의 시대이기 까닭이 아닌가 한다. 옛날 같으면 서울서 부산까지 기차 편으로 가면 적어도 하루가 더 걸렸으나 지금은 제트기로 수 분만에 닿는다.

한국서 미국을 가자면 한 달은 걸렸으나 지금은 수시간(數時間)이면 서울서 워싱턴에 도착 할 수가 있다. 이러고 보니 365일의 흐름이 어제 그제 같은 환각마저 생기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모든 속도가 빠른 세대에 오기 까닭일 것이다.

언젠가 TV에서 본 영화가 생각난다. 만일 인간의 생활이 초속도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필름을 통해서 보여 주었다. 잠자고 일어나서 옷 입고 세수하고 밥 먹고 나가는 시간이 단 몇 초밖에 안 들기에 인간의 동작이란 참으로 놀라운 정도로 그야말로 눈 깜짝 할 사이에 전광석화로 후딱 후딱 지나쳐 가게 했다.

보는 사람의 눈이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정말로 이런 시대가 온다면 이 아니라 정말 우리인간 생활이 그와 같이 빠른 속도의 시대가 올 것이라 예언의 영화였다.

아무튼 빠른 시간을 우리 인간이 따라서려면 우리 자신들의 생활과 동작도 역시 빠르지 않으면 뒤지고 말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인간의 능력이란 결과에 있어 시간에게 완전한 패배를 마시고 말 것이 아닐까. 그러기에 나는 또다시 새해부터는 좀 더 부지런해야겠다고 자신을 속여 보는 것이다.

아이디어의 광장(廣場)

아이디어의의 시대와 창조적 인간형

이원영(李元榮)
〈공군소위〉

1. 지혜의 시대

미국의 뉴멕시코 고원에서 사과재배를 하고 있는 영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한 해 수확을 앞두고 굉장한 우박의 피해를 입어서 그 주요한 재산인 사과는 전부 검은 반점(半點)이 생겨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좀처럼 실망을 하지 않고 심사숙고를 계속한 나머지 그는 어느 날 그 사과를 며개를 골라서 껍질을 벗겨 먹어 보았다. 그랬더니 사과의 껍질에 반점이 있어 보기 흉하다는 것 외에는 맛이나 속에 아무런 변함이 없음을 알았다. 하루 저녁을 숙고한 영은 이튿날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서 인쇄한 후 반점 투성이의 사과 상자에 그 펴지를 한 장씩 넣어서 그 사과를 각지로 발송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지금 송부하여 드리는 이 사과의 반점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우박이 닿은 흔적입니다. 이 사과가 바로 유명한 뉴멕시코에서 재배되고 있다는 증거올시다. 어떠세요? 향긋한 고원의 사과 맛을 감상해 보지 않으시렵니까?"라고

이리하여 보통 같으면 반점이 있는 흠으로 팔리기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튿날부터 반점 있는 사과의 경기는 만회되고 그로인하여 이 반점 사과는 평균 가격보다도 5할(割)이나 비싼 가격으로 매진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물론 이 반점이 생긴 사과를 잼 공장이나 건조 사과로서 처리 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쯤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생각인 것이다. 그러나 영은 이러한 간단한 보통과 다른 착상(着想)으로서 그의 사과 농사를 실패로부터 성공시켰으며 그에게 닥친 난관과 악조건을 극복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흔해빠진 것으로서 수많은 성공담이나 위인들의 입지전을 들쳐보면 이런 등속의 이야기는 항상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평범한 사실 중에서 원칙이나 진리를 추출할 수 있듯이 이런 하찮은 이야기에서 우리들은 훌륭한 교훈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다. 더구나 고도한 과학문명의 진보와 기술혁신 시대에 접어든 금세기의 움직임은 몹시도 그 템포를 빨리하고 있다. 가파른 호흡 속에서 새로운 발견이나 발명은 곧 모방되고 새로운 유행은 바로 진부한 것이 되고 만다. 이러한 움직임에서 우리들이 경쟁에서 이기고 발전과 진보를 지니기 위한 수단은 두말 할 것도 없이 Idea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미 현대의 경쟁이라 곧 Idea의 경쟁이란 말까지 나오게 되었으며 Idea개발에 대한 운동을 앞을 다투어 진행시키고 있는 터이다. 오늘의 개선과 내일의 번영을 위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독창적인 Idea라면 지나친 과장일까? 이미 시대도 지식보다는 지혜를 요구하고 있으며 독창적인 인간형을 기다리고 있다.

일찍이 Einstein도 "독창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거니와 구태여 그의 말을 빌릴 필요도 없이 독창력의 중요성은 오늘의 시대조류에 편승한 현실적인 요청이며 필연적인 귀결일 뿐이다. 이에 모든 질서와 사회적인 추세는 나날이 그 모습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격동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도저히 지식만으로 살 수 없으며 보다 독창적인 Idea 그리고 보다 참신한 지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은 지나치게 지식 편중의 교육만을 일삼아 왔고 학생들의 독창력을 개발시키는 데는 그리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 독재적(獨裁的)인 지혜를 아쉬워하는 현실임을 다시 한 번 말해본다.

2. 독창력(獨創力)의 뜻

그러면 도대체 그럼 필요하다는

독창력이란 의미는 무엇인가? 거리의 간판이나 신문 잡지의 기사에서나 대인간의 대화에서 우리들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용어가 곧 독창력이니 하는 것들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독창력이란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사고의 형태를 이름 한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다. 본능적(本能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시행착오나 습관적인 방법을 써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겠고, 가장 귀중한 동찰(洞察)을 통한 방법이 있는데 비하여 보다 치밀하고 정확한 과학적인 문제해결 방법이 있다. 이들 문제해결의 방법에도 제각기 특징과 특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시한 이들 방법들은 모두 주어진 문제에 대한 수단들은 되어 왔으나 이러한 방법에 의한 해결 방안은 현상적인 해결에 그치는 것이지 거기에서 우리는 창조나 창의적(創意的)인 착상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여기에 독창적 사고의 필요성과 중요성(重要性)이 등장하게 된다. 즉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완전한 틀에 잡힌 질서와 순서에 따라 사고함으로서 조직적이며 빈틈없는 사고를 하려는데 반하여 독창적 사고란 좀 더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사고로서 형식이나 틀을 무시하고 창의적인 착상(着想)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인 사고를 하여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습관적인 즉 Stereo type적인 사고가 비 진보적임에 비하여 독창적 사고는 보다 효과적이며 발전적인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십년 고생이란 말이 있다. 그러한 이야기는 현대적인 감각에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며 이러한 시행착오적인 문제해결 방법은 낡은 시대의 유물이며 무모한 것일 뿐이다. 좀 더 바람직하게 머리를 써서 독창력을 길러야만 치열한 오늘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 갈 수 있으며 생활의 진보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두뇌의 기능인 독창력이 아닐까?

3. 독창력(獨創力) 개발(開發)의 역사(歷史)

사고방식의 독창화를 위한 노력은 아득한 인류역사의 시원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이 독창력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그 개발이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체계를 지니고 교육되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대개 Idea 개발을 위한 운동이 하나의 완전한 내용을 지니고 나타난 것은 1936년 미국의 유명한 회사인 General Electric으로부터 출발한다. 1936년, 이해 독창력의 중요성에 착실(着實)한 General Electric 에서는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들의 협조를 얻어서 설계 기술자용의 Creative engineering program을 작성하였다. 이 과정을 실시한 결과 이 과정을 이수한 기술자들은 보통 기술자 보다 3배나 더 많은 발명특허(發明特許)를 얻을 수 있었던 실적을 올렸던 것이다. 여기에서 얻은 실제적인 성과는 인간의 독창력은 신장시킬 수 있다고 하는 심리학자나 생리학자(生理學者)들의 의사를 입증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여기에서 시도된 이 교육은 바로 미국의 모든 산업계, 정부기관, 군대, 학교 등에 이 과정을 채택 실시하기 이르렀으며 오늘날에는 권위 있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힘을 입어 독창력 개발의 운동은 아주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더구나 현 Creative Education

오스번의 아이디어의 6개법칙

오스번은 아이디어의 창상법을 다음과 같이 체계화 하고 있다.

① 목표(目標).....목적을 찾아내고 그 표적에 집중해야 한다.

② 발사(發射).....상상력을 총동원하여 발사해야 한다. 남의 비판을 두려워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소박하고 보잘 것 없게 생각되는 것이라도 아이디어라는 아이디어는 전부 기록해 두어야 한다.

③ 재검토(再檢討).....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냉정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세 개를 골라내어 그것을 조용히 생각해 보라

④ 휴식(休息).....얼마동안 이런 생각을 모두 잊는다. 음악을 듣거나 극장에 가거나 교회에 가거나 하다. 잠을 자면서 아이디어를 부러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⑤ 의논(議論).....그래도 아직 모자랄 때는 아이디어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 자기의 문제를 확실히 이야기 하는 것으로서, 또 그것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계획한 표적에 광명이 비치는 것이다.

⑥ 재장비(再裝備).....그래도 아직 표적에 명중하지 않을 때에는 또다시 상상력이라는 탄환을 넣어 재 발포한다. 그리하여 명중할 때까지 발표를 계속한다.

Foundation의 이사장인 Dr. Osborn의 창안에 의한 Brain storming이라는 Idea 생산을 위한 회의형식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 Idea개발을 위한 운동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오늘날 Butfulo 대학의 Creative thinking course를 위시하여 미국의 저명한 각 대학에 이 과목은 정규과목으로 취급이 되고 있으며 정부기관이나 각 군 학교에서 이 코스의 움직임은 자못 활발한 상태에 놓여 있다.

각급 사회에는 종업원이나 간부진 등의 Idea개발을 위한 C.T.C.가 대개 설치되기에 이르렀고 더구나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산업능률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다. 독창력 개발운동은 아주 괄목할 만하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혁명의 구호는 새로운 창조를 위한 사고의 독창화를 부르짖고 있다. 능률을 높여라.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버려라.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능률을 극대화하라 등. 물론 이 같은 운동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믿으면서도 모든 업무가 능률적으로 시도되는 반가운 현상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낳은 진보와 우리의 후진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먼저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이 독창적으로 될 수 있는 기틀과 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 아닐까?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 더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독창적인 사고에 대한 조직적이며 구체적인 교육을 서로 해야만 우리는 세계문명의 대열에서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생활은 항상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다시 독창적인 인간형이 되기를 위해서 지닐 자질과 태도는 무엇인가를 알아보기로 하자.

4. 독창적(獨創的)인 인간형(人間型)의 자세(姿勢)

독창적인 사고도 사고의 방법인 이상 이는 역시 그 사람됨의 소산이라고 보겠다. 즉 사고란 개인이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에 따라서 생성되는 것임으로 아무리 머리가 좋고 기억력이 비상하더라도 그가 지닌 태도 자체가 비 독창적인 경향을 고수하고 있는 인간은 항상 Stereo Type적인 생활 습성에 젖어서 그는 정신 기능의 민활성을 갖추지 못하며 항상 습관적인 사고만 고수 하게 된다. 때문에 독창적인 인간은 그의 사고의 방향이 항상 개방적이며 진보적인 융통성을 지녀야 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본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Gilford는 말한다.

첫째, 문제에 대한 민첩한 감수성(感受性)이 있어야 한다. 독창력으로 사고하는 제일의 태도는 먼저 문제에 당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감수성이 강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항상 강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사고하는 태도를 길러야 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민첩하고 예민하게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강한 인상과 왕성한 호기심으로 그 문제 자체가 지니고 있는 불만한 요소에 대한 재빠른 포촉력(捕促力)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방향과 태도가 전혀 문제의식이 박약할 때 우리는 그에게 독창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좋다는 것과 지혜롭게

이런 것이 아이디어다.
-창의력이 성공을 가져온 예들-

1. 부인동반(夫人同伴)을 서비스합니다.

십수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가정주부들은 주인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각 항공회사나 여행자들은 이것을 중지시키려고 갖은 애를 다 썼다. 그러나 신통한 방법이 없었다. 바로 이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항공회사에 창의력에 넘친 윌리암 A 밧슨이란 인물이 있었다. 세상의 주부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는 그는 자기 회사 비행기로 여행하는 손님은 아무리 원거리 여행을 하더라도 부인동반은 서비스하기로 했다. 그러자 그때까지 비행기 여행에 겁을 내고 남편의 공중여행을 막기 위하여 별별 애를 다 쓰고 있던 가정부부들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수천 명의 부인들이 남편을 따라 비행기 여행을 한다는 사태가 발생했다.

2. 애연가(愛煙家)는 킹사이즈를 좋아한다.

한때 미국의 필립모리스 담배회사에서 말보르라는 담배를 팔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품질이 좋은데도 어쩐지 담배가 잘 팔리지 않았다. 중역회의는 새로운 디자인을 가지고 판로를 확대하기로 했다. 필립모리스회사가 광범한 조사기관을 통하여 대중이 어떤 담배를 좋아하고 있는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생각한다는 것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둘째, 신기(神奇)하고 유창(流暢)한 Idea를 구성할 줄 알아야 한다.

주어진 짧은 시간에 보다 많은 Idea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양이 질을 낳는다는 이야기나 대체적으로 많은 양은 역시 질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Idea는 낡고 가치 없는 것 보다 좀 더 기발하고 참신한 것을 요구한다. 만약에 가치 없는 아이디어만 나온다면 그것은 공전(空轉)이며 도로(徒勞)에 그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Idea란 항상 신기하고 유창한 구성을 하도록 마음가짐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셋째, 항상 태도는 신축성 있게 가져야 한다. 문제 해결을 저해하는 가장 큰 악습을 습관이나 태도가 고식적이고 편견과 고집으로 일관한다면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며 태도에 융통성이 없는 한, 그에게 독창력은 기대할 수 없다. 독창적인 태도의 신축성과 사고의 융통성이 있는 이어야 하며 강직한 고집불통에게 독창성을 기대함은 무리한 것이다.

넷째, 분석력과 종합력을 가져야 한다. 어렵고 복합한 사태에 직면하여 그 상태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힘이 필요하다. 어떤 문제 사태에 당하여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하고도 신속한 성격의 파악과 분석하는 결과 또 많은 Idea를 종합 정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 관념구성을 광범위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한다. 복잡한 사태를 개념의 혼돈이 없어 순간적으로 광범위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하며 여러 조건과 상태를 파악하여 문제를 역동적으로

남의 과오를 비판해야 할 때는 이렇게
-존경과 우정을 얻는 카네기의 법칙-

1. 남의 과오를 발견한 경우 될 수 있으면 24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그 과오를 바로 잡아 주도록 권하고 싶다. 과오를 발견하고 아직 자기가 흥분돼 있을 때라든가 사태를 충분히 검토해 보기 전이라든가 할 때에는 과오의 시정을 권고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잠시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2. 남의 과오를 교정해 줄 때는 제3자가 있는 앞에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당사자를 불쾌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유쾌한 기분을 가진 사람은 호의적인 태도를 가질 수는 거의 없다
3. 남의 과오를 교정하려고 하기 전에 그 사람의 성격의 좋은 면이라든가 하고 있는 일이 성적이 좋다든가 하는 점을 은근히 칭찬해 줌으로서 모나기 쉬운 비판의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다.
4. 과오를 범한 사람을 그대로 비난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여 그러한 과오를 범하게 되었나 이유를 물어보아야 한다. 말하자면 과오를 범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다.
5. 과오를 비판할 때는 될 수 있는 한 조용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① 대중이 담배를 생각할 때면 항상 깨끗한 것을 연상한다. 그러므로 포장은 흰빛을 바탕을 한 것이 좋다.
② 애연가들의 심리는 좀 긴 담배를 좋아한다. 따라서 킹사이즈를 채택하는 것이 좋다.
③ 바깥상자의 포장은 킹사이즈를 강조하는 디자인이라야 한다.
④ 최근 니코틴이 인체에 미치는 해독에 관한 시비가 많음으로 대중은 필터가 달린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⑤ 품질이 좋은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또 고귀한 느낌을 나타내기 위하여 가운데 금빛 무늬와 같은 마크를 넣는 것이 좋겠다는 것 등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흰 바탕을 주조(主調)로 한 담배 갑에다 가운데 금빛 마크를 넣고 Marbollo라는 담배 이름을 나타내는 글자를 길쭉길쭉하게 쓴 디자인을 하였다. 담배는 물론 필터가 달린 킹사이즈였다. 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말미암아 말보르 담배는 그 후 일 년 안에 종래의 15배나 팔 수 있었다.

3. 거북의 등에서 용궁(龍宮)을

미국의 골드라고 하는 사람은 거북을 팔아 부자가 되었다. 바다에서 잡아온 거북을 그냥 판 것은 아니다. 그런 거북은 그렇게 많이 팔리는 것이 아니다. 그는 거북의 등에다 빨강, 노랑 등 각종 채색을 하였다. 가지가지 색깔이 칠해진 거북이 물속으로 차차 가라 앉아 가는 모습은 사람에게 화려한 용궁의 궁 같은 것을 연상케 하여준다.

다룰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문제를 보는 방법과 그 처리 기술은 아이디어의 구성에서 아주 필요한 태도 되는 것이다.

여섯째, 평가력이 있어야 한다. 끊임없이 문제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해결안에 대한 비판을 가하여 나가는 힘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사고하는 동안에 적절한 해답을 얻게 될 것이요 나타난 해결안을 재정리 완성된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다만 독창적인 사고로 하는 이의기본적인 준비와 태도를 말해 본 것에 불과하다지만 적어도 이와 같은 태도만이라도 가꾸게 되면 우리의 사고는 독창적인 경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독창력(獨創力) 개발(開發)의 조직화(組織化)

독창력을 개발하자는 운동은 여러 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 건실한 성장이 가능했고 정상적인 발육을 할 수 없었던 우리의 문화를 재건하고 우리의 당면한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하루속히 강구되어야만 되겠다. 모든 비능률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비합리적인 양태를 불식(拂拭)하여 보다 새롭고 발전적인 우리의 역사를 창조하기 위하여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의 미국은 미국인들이 지닌 독창력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독창력은 노력과 교육으로 신당 교육시킬 수 있으며 남녀나 노소의 구별 없이 모두 갖출 수 있음이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인 것이다. 혁명의 종말을 뜻있게 장식하고 보다 낳은 내일로의 발전을 위한 비약의 자세 앞에 우리는 다 같이 천부(天賦)의 독창력을 개발해야만 하겠다.

독창력은 지식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인슈타인이 말했다.

독창력은 인류를 만물의영장이 되게 했다고 섹스피어는 말했다.

독창력은 세계를 지배한다고 디스 렐리가 말했다.

독창력의 개발, 그것은 몹시도 아쉬운 우리의 목표이다. 이제 주저할 필요 없이 이 독창력을 개발하기 위한 보다 광범하고 조직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갖추어 우리의 잠재적인 독창력을 개발 신장 시켜야만 하겠다.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기상을 지니고 비능률 비합리적인 방법을 지양(止揚)하며 보다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생활태도를 갖게 하고 나아가 우리의 생활을 개선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두의 독창력을 제단위에서 끌어내려야만 하겠다.

사고(思考)의 TWIST

유 철 종(劉 哲 鐘)

〈공 군 대 위〉

중학교 학생들 몇이 어울려 백운대에 등산을 했더랍니다. 바위를

거북은 날개가 도친 듯 팔렸다. 10년 동안에 팔린 거북의 수는 무려 백만 마리나 되었다.

4. 따님을 사교계에 내보내려면

뉴욕의 어떤 백화점에서 값이 싼 피아노가 팔리다 남아서 곤란을 겪은 때가 있었다. 흔해빠진 광고로서는 손님을 끌 수 없었다. 예를 들면 이 피아노는 특히 음조(音調)가 좋고 잘 제조되었다고 게다가 값도 싸다는 따위의 광고는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욕의 각 조간신문에 '따님을 사교계에 내보내려면'이라고 대서특필한 광고가 나왔다. 광고의 내용을 보면 음악은 교양의 제1요소이고 피아노를 연주할 줄 안다는 것은 사교상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라는 것이다. 이 광고가 나온 지 24시간 후에는 백화점의 피아노는 다 팔리고 말았다.

5. 화장하는 아내에게서 카브레이터(氣化器)

찰스 E 듀리아는 어떤 날 그의 부인이 분무기(噴霧器)로 몸에 향수를 뿌리고 있는 것을 곰곰이 바라보다가 그가 그 때 제작중이던 자동차의 실린더에다 가솔린을 안개와 같이 퍼 붓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가 향수의 분무기와 가솔린의 분무기를 머리 속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 만들어낸 것이 최초의 카브레이터(氣化器)였다.

기어오르다가 한 학생이 미끄러져서 서너자 가량 절벽 아래쪽으로 떨어졌더랍니다. 이때 부르짖는 소리가 "아버지, 어머니!"였다고 옆에서 듣고 있던 익살맞은 녀석이 "임마 바쁜 세상에 욕심 두 많다. 차라리 부모님하지 그래"

세상이 확실히 변했습니다. 이유 없는 격식과 고집 때문에 공연한 골탕을 먹는 일들이 타당한 이유 위에서 전개되는 새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처럼 가난하고 고된 살림 속에서 허덕이는 백성이 무슨 정성으로 "아버지, 어머니"라는 긴 놀라움의 표현이 소용되겠습니까? 물론 이 시시한 이야기는 만들어 낸 한 토막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지만 그대로 흘려버릴 수 없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능률(能率), 능률(能率) 많이들 입에 올리는 멋진 낱말입니다. 특히 5·16혁명 이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말끝마다 즐겨 쓰는 어휘입니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자'는 등 '개인생활을 능률화해서 생활개선을 이룩하자'는 등..... 그러데 '굳모닝'만큼이나 귀와 입에 익숙해진 〈능률〉이라는 말이 실제로 얼마나 행동화 되 었는 가에는 의문이 앞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능률화인지조차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현상이 아닌가 합니다. 마치 실존주의가 일대 유행이 되었을 때 너도나도 〈실존주의〉인 척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행동화는 물론 명확한 이론도 파악을 못한 채 능률 운운하는 것이 우리의 현상이라고 단정한다면 지나친 속단일까요? 물론 능률이라는 것은 소비와 부족이 없는 이를테면 In put과 Out put의 균형을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능률화를 시도하는 마음의 자세를 말해보고 싶습니다. 〈능률적으로 개선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이루어져 있느냐〉는 것과 〈그런 마음으로 자기 주변의 모든 대상을 항상 살펴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좀 더 불편을 없이 하고 좀 더 시간을 절약하려고 하는 자세야 말로 문제의식이라는 심리학적 용어로 표현되는 가장 소중한 태도이겠습니다. 현상에 만족하지 않고 언제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닌 그 마음이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인간혁명을 이루는 기틀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문제를 찾아보겠다고 혈안이 되고 찾아진 문제에 대해서는 와락 달려들어 요리해 버리는 왕성한 의욕과 태도야 말로 우리가 목마르게 바라는 우리민족의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자주 예를 드는 이야기입니다만 내쇼날 금전등록기 회사 사장 패터슨의 이야기를 또 해봅시다. 하루는 한 직장감독을 불렀습니다. 패터슨의 말이 "요즘 자네가 맡은 부서에선 잘 되어 가고 있나?" 그 존이라는 현장감독이 "네 만족스럽게 되어가고 있습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자네는 더 이상 개량할 여지가 없다고 보나?", "아 그럼은요 충분히 만족 할 정도입니다.", "음, 그래? 그럼 자네는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좋아! 잘 가게"이렇게 하여 존은 즉석에서 파면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의식이 없는 친구는 미국의 산업계에서 이겨나가는데 큰 지장을

6. 3천만 원짜리 악마의 꿈

어느 날 밤 한 사나이가 악마의 꿈을 꾸었다. 악마는 머리맡에 나타나 그 사나이에게 대들었다. 악마는 그 손에 창을 들고 있었다. 악마는 그 창으로 사나이의 가슴을 푹 찔렀다. 그런데 악마가 사나이의 가슴을 찌른 창 그 창끝에는 이상하게도 조그만 구멍이 뚫려있었다.

사나이가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눈에는 생생히 창끝에 있던 구멍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사나이는 문득 생각하였다. '그렇다, 지금까지 바늘귀는 머리에 있었는데 만일 그것을 끝 쪽에 낸다면.....'

이 사나이의 꿈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쓰는 재봉틀이 탄생되었다. 이 사나이란 다른 사람이 아닌 미국의 발명가 엘리아스 하우였다. 그 후 하우는 재봉틀 발명에는 직접 성공을 하지 못하고 빈사의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싱거가 그 디자인을 이용하여 재봉틀발명에 성공하여 큰 부자가 되었다. 하우는 자기가 디자인을 출원한 바늘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싱거에게 권리사용료를 요구하였고 마침내 해마다 20만 달러의 권리사용료를 받게 되었다. 꿈에서 얻은 새로운 아이디어는 실로 3천만 짜리였던 것이다.

초래한다는 패터슨의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쉬쉬하여 안일무사주의로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재 그대로를 어떻게든지 고수하려고 골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 하자구? 원 천만에 말씀! 누구를 죽이 려구 이러나?" 창의적인 계획도 진일보한 아이디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대로 도 잘 되어 가는데 자네들은 자주 모험을 하려고 하지" 머리를 가진 부하도 이런 상사 밑에 있으면 며칠 안가서 바보가 되고 맙니다. 동시에 문제의식이 없는 부하도 취급하기 어려운 두통거리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게", "이 사람아 왜 하나만 보는가? 전체를 봐야지 전체를", "허 또 빠뜨렸군 당연히 고려되야 할 사항이 빠졌단 말이야", "전후가 모순되지 않아" 이런 말을 윗분에게 듣는 부하도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의식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라고 지시를 해야만 움직이는 사람, 현상유지를 하는데 급급한 사람, 창의적인 일을 못하면서 남의 착상까지도 묵살해 버리는 사람, 이러한 Mr. 석두(石頭)가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 많으십니다. 비약적인 발전을 이런 분들에게 바라다니 두드리며 건너는 신중성도 중요하고 꼭 갖추어야 할 태도입니다만 그에 앞서 우리 주변의 모순과 기형적인 것, 불편한 것, 발전시킬 것 등을 찾아내는 왕성한 문제의식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이미 늙었으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석두는 석두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지려고도 하지 않고 또 아무런 착안도 할 수가 없는 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문에 여기서 저는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해 보려는 것입니다. 능률적으로 내 주변을 개선하는 데는 마음속의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고 문제를 찾으려는 의욕과 용기를 지녀야 합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크게는 이 나라가 또 적게는 우리 공군이 요구하는 장교가, 사병이, 문관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음의 자세 즉 문제의식을 지닌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만드 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Twist가 한창 유행했습니다. 초비체커의 툭툭한 리듬에 발가락이 으스러져 라고 비벼대는 광경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젠 한풀 슬어져 간다지만 어디 당신도 저와 함께 한 번 멋진 Twist를 추어 보지 않으시렵니까?.....잠깐 진짜 춤을 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의 Twist를 해보자는 것이니 오해 마십시오.

사고의 Twist 정말 이상한 말입니다. '붉은 벽돌 한 장의 용도를 물었습니다.' 가지각색의 대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머리 때리기" "대머리 때리기", "마누라 바가지 긁을 때 때리기", "또 때리기" 때리기 하여 때리기만 한 없이 나옵니다. 이것이 아주 Mr. 석두적인 태도 즉 문제의식이 없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한 번 사고를 Twist하자는 것입니다. '벽돌의 용도'. 네. 그것을 Twist하면 "육면체의 표본", "눌러놓고 무게 대용", "화분받침", "당수 격파용" 등등 생각하는 각도를 여러 면으로 가능하면 입체적인 삼백 육십도의 관찰을 하는 것이 사고의 Twist입니다. 여자를 고르는데 앞에서만 보고 성급하게 장가를 들었더니 머리천정이 대머리더라는 유머도 있습니다만 항상 문제란 각도에 따라 그 매력이 달라집니다. 밤에 볼 때와 낮에 볼 때, 화장을 했을 때와 안했을 때, 앞과 뒤, 옆과 위, 방향과 위치와 각도에 따라 그 매력은 달라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관찰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체크 리스트가 될 것입니다. 장난삼아 한 번 이용해 보십시오. 그 효과를 느끼시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고의 Twist만 할 줄 알면 문제의식을 지닌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간성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아직 이것으로 미흡합니다. 보충적인 테크닉이 있고 이 테크닉에 익숙토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초점이 되는 것은 사고를 Twist할 수 있는 기동성과 융통성입니다.

문제의식을 지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유도하는 교육을 독창성 개발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 훈련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체크리스트 없이도 사고의 Twist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는 교육이냐 구요? 교육기관 말씀일까요?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창의력을 길러주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도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독창력 개발은 자기 스스로가 시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고의 Twist연습을 자주 하십시오, 내 주위에서 문제를 찾는 노력을 가지십시오. 종이와 연필을 준비하시고 하나하나 차례로 써 보십시오. 수십 가지 해결책의 생각을 Twist해 가면서.....

당신은 문제의식을 가졌고 참으로 능동적인 인간형입니다. 당신은 창조적이며 당신이 알고 있는 이상으로 독창력을 타고 났습니다. 이러한 독창력을 사용할 때 불편을 덜어주고 능률화는 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1. 신문지 한 장의 이용도(5분간에 15가지 이상 열거)

2 연필 한 자루의 이용도

3. 10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아침 출근 때는 승강기를 이용하고 퇴근 때는 6층까지만 승강기로 올라오고 다음은 걷고는 한다. 무슨 까닭일가? 가능한 이유의 열거하기!

△ 참고서적

※진정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독창성의 개발과 그 기법
우에노요이치(上野陽一) 기보당(技報堂)
2. 생산적 사고 Wertheimer
시츠타(失田)역 암파현대총서(岩波現代叢書)
3. Applied Imagination; Osborn
4. Your Creative power; Osborn
5. 경영학 입문 마스모토료(坡本藤良) 감빠북스
6. 능률학 원론, 우에노요이치(上野陽一) 기보당(技報堂)
7. 아이디어 엔도켄치(遠藤健一) 한국번역판

내 사고(思考)의 간척(墾拓) 지역(地域)

- 사고의 신경지(신경지(新境地) -

김 응 삼(金應三)
〈공 군 중 위〉

크리스마스 경축이 예배당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뒷골목 구석까지 스며들어 간 것이 그리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모두들 야단스럽게 떠들썩하니 나도 이날이 되면 공연히 들떠오는 마음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난 25일 낮에도 친구들과 함께 거리로 나섰습니다.

예상외로 조용해진 거리에 의아스런 생각이 갔으나 다방에 들어섰을 때 짐작이 갔습니다. 우중충하고 후끈한 방안엔 메어지도록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초췌한 모습들과 지치고 피곤한 표정들이 딱할 지경이었기에 말입니다. 한날 밤을 꼬박 새우며 마시고 춤추고 소리 지르고 누적된 퇴적물을 한껏 폭발시키고 자기를 송두리째 발산한 후에 밀려드는 노곤과 몽롱 이었는가 봅니다. 하품과 기지개의 경연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실로 따분하고 어이없는 정경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환희와 격정이 그렇게도 하루 밤 동안에 값없이 탕진되는 것처럼 인간의 일생도 국가의 역사도 지구의 운명도 어쩌면 다 가을 어느 시간의 단 한 번의 폭발과 발산을 위해 마련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폭발의 정점이 정말 창조에로 연한 계단이라면 실로 그 준비는 거룩하고 값있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가공할 과학문명의 혜택 속에서도 무서운 전쟁무기의 위력에 떨고 불안해 하고 있으나 이것도 인간의 지혜가 미치기만 한다면 문제는 쉽사리 해결 될 것입니다. 명백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실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번역과 편익을 자랑하며 더 넓은 세계의 확대와 새로운 문명이기와 삶의 양태를 발명 개선하여 나가는데 열중하고 있음 양대 진영의 분열냉전으로 전쟁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나 인류가 현명한 처사에 용기를 내고 지혜롭게 앞 길을 개척한다면 맑고 밝은 세계가 약속될 수 있는 전기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과학문명의 이기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약소국가군을 제외하고 인간들에게 편익과 안일과 풍만한 생활의욕을 북돋아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개발과 새로운 기술로서 무진장한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인간생활의 저 분야 걸쳐 창조적인 활동을 쉬지 않고 전진하고 있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변은 어떠합니까?

난 어느 종교가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의 인류가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민족의

모습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다가오는 죽음의 고비를 겨우 막아 내면서 자기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태 하에선 발전의 가능성이나 변혁의 시도는 그 태도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동기가 주어져 있지 못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유지하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우리의 생활을 풍부하고 희망에 가득 찬 것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웃 보다는 넉넉해야 하겠고 김서방 보다야 빨리 돈을 좀 벌어야 하겠고, 도 누구보다는 진급이 빨리 되어야 하겠고 언제까지는 우리나라도 좀 다른 나라 이상으로 잘 살아야겠다는 꿈이 늘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자기를 지키고 사랑하고 발전시키자는 뜻이오, 가족을 거느리고 걱정 없이 잘 살아보자는 생각이오, 나가서는 국군의 일원으로 국토방위의 성업에 크게 공을 세우자는 염원에서 비롯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저마다 모두 품어 보는 꿈과 포부가 달성이 못되고 내일의 기대 속에서 내일은 오늘의 재판이 아닐 것이라고 굳게 다짐을 합니다만 대개 제자리걸음에서 세월만 까먹는 것은 어쩐 일일까요?

여러 가지 구실과 마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전통이, 습관이, 가난이, 시대적 불행이, 생존 경쟁이 심해서 도무지 알아주지 않는 세상이'....., 그리고는 '맴도리 같은 직장생활', '명령과 복종의 일정한 재생공장', '모두 이기적이니까?', '충신이야 제기랄', '네거냐 내꺼냐?' 이렇게 어두운 생각을 계속하다가는 그냥 지치고 따분해 져서 묵직하고 변덕 없는 대포 잔이 그저 정직하고 후하고 무던한 친구로서 믿음성이 있으니 내그를 벗하노라 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궤도가 불가피한 것 일가요.

요새 우리의 주변은 갑자기 변해가고 잇습니다. 군사혁명 이후 모든 분야에서 진취적인 의욕과 발전을 위한 여건들이 만족할 만큼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의 파급은 격렬하여 벌써 경영학상의 새로운 용어들이 널리 쓰여 지고 있으며 새로운 착상과 창의를 요청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혁명의 출발에서 줄기찬 구악일소와 퇴폐적인 풍조의 진작에 착수하였고 현실적인 제반 정치, 경제, 교육 문화상의 개혁은 인간자체의 혁명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여 재건국민 운동은 인간변혁과 인간개조에 목적을 두고 활발히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은 요원하고 결실의 수확은 예측조차 불가능한 막중한 고업으로 조급함을 경계해야 하도록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손자병법의 원리를 알면서도 지피지기하는 방법에 눈멀었고 전쟁하려는 목적이 전술이 어떠해야 할지 구체적인 분석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여깁니다.

"인간은 약하디 약한 한 그루의 갈대에 지나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이다"라고 파스칼이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한 데카르트의 명제를 빌릴 것도 없이 인간의 존재성과 위대성은 생각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데 이 생각이란 새 것을 창조하고 전에 없었던 방법과 기술을 창안해 내는데 그 있음의 본래적인 사명이 있는 것이오. 참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문화 창조의 찬연한 역사를 가능하게 했던 그 근본 힘은 바로 이 사고 작용의 창의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의욕에 넘치도록 발랄하게 하고 진취적이고 희망에 찬 것으로 변화시키며 자신 있는 생활태도를 육성하는 길은 밖에서 오는 변화나 혜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의 근본적인 변혁을 통해서만 가능성이 약속된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다분한 윤리적인 강령인 카네기 처세술이나 가지고 결코 뚫고 나갈 수 없이 개개인의 민활하고 정확한 사고력과 창의성이 요청되는 시대요, 자기의 독자력으로 자기구축과 자기 확장을 명확하게 시도하여야 할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은 나의 사고기능에 아직도 황폐한 채 개간하지 못한 넓은 부분을 깊이 파헤치어 개간하고 거기 생수를 부어 넣어 옥토로 개간을 함으로써 창의성의 참신한 발휘를 통해 생활을 개선하고 직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개인의 방향을 독자적으로 구축하며 인간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전한 사회성을 육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뜻 우리는 창조성이란 특정한 선천적 천재들의 전유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상사에서 새로운 각도로 문제를 찾아내려들지 조차 아니 함으로 우리의 두뇌는 생산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확한 기억과 모방에만 충당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많은 불편과 시간낭비와 필요 없는 고역을 치루어 내고 있으며 엄청난 손해를 당하면서도 태연할 때가 많고 혹시 의욕을 지니고 눈을 부릅뜨고 머리를 기웃 둥 거리다가도 자기에게 그럴듯한 변명을 늘어놓거나 교묘한 도피구를 마련해 주고는 슬쩍 돌아앉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식은 넘치도록 우리 주변을 채우고 있지만 현명한 지혜와 기발한 착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뻔히 해야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고 책임 있고 양심적인 태도로 처리를 하여야 할 줄 알면서도 어물어물 덮어 두거나 일종의 행사나 기록을 남기기 위한 장난으로 슬쩍 넘겨버리는 일이 무수하게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창의성과 현명한 지혜의 아쉬움을 통감하며 이의 개발이 시급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두뇌의 귀한 사고 기능을 그저 지식의 창고, 기억의 도구, 모방의 연장 기준 없는 비판의 펌프로만 습관처럼 사용하여 왔으며 대부부의 사람들은 남의 창의력의 산물을 이용하는 데만 여념이 없는 비생산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만이 창조하고 마음껏 누리는 문명의 태반인 창조적 사고의 개발을 촉구한다면 먼저 우리 공군은 과학적인 토대위에 관리의 합리성을 기하고 능률이 향상되는 새로운 발전의 전환점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독창성이란 어느 정도로 개발될 수 있으며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가? 지면관계로 그 적극적인 방안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로 미루어 두고 먼저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창의성 있는 인간으로서의 의욕과 태도를 가지는 길을 폐쇄하는 몇 가지 요인에 대해서 고찰 해 보기로 합니다.

첫째, 너무 무던한 마음입니다. 너무 관대한 태도입니다. 그저 무엇이든 타협하고 양해하려 들며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새로운 생각의 실마리를 놓쳐 버리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착상은 바늘 끝처럼 예리하고 면적조차 없는 듯한 점에서 출발합니다. 난로위에 올려놓은 물주전자 뚜껑이 덜그럭거리는 모양을 보고 증기관을 발명했다거나 사과 한 알이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의아심을 일으켜 마침내 만유인력의 법칙을 창도해 내었다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이없는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근대 미국 자본형성의 공적을 이룩한 재벌들의 성공비화도 같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불편을 느낄 때, 공연한 수고를 해야 했을 때 까닭 없이 번잡한 방법이나 절차로 머리가 어리둥절할 때, 하찮은 일로 해서 지독한 피해를 입을 때, 우리는 항용 '불가피한 일이로군, 이만한 고생이야 무슨 일에든 으레 따르게 마련인 걸', '조상적 부터 이렇게 하고도 밥 세끼 먹고 살아 온 걸', '내야 그 까닭을 알아서 뭘 해' 이렇게 하여 아주 너그럽게 잊어 버려둡니다. 그리고 일이 무척 어려워지고 영 풀리지가 않으면 그 까닭은 생각도 않고 도움을 청한다든지 심하면 아주 다른 놈에게 슬쩍 떼여 맡기고 딴청을 부리는 수가 많습니다. 예리하게 문제에 집착하고 깍쟁이 같이 사소하고 까다로운 성미가 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고 날카로우며 재빠르게 감각기능과 사고 작용을 발휘해야 합니다.

둘째 무관심입니다.

애당초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착오를 일으켜 전적으로 외면해 버리는 감정의 고정입니다. 외부의 사물과 자신을 완전히 격리시키고 차단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오는 것인데 가령 자신의 투철한 가치관,

이이디어와 장수(長壽)

창의력은 장수(長壽)와 관련이 있다. 창의력은 필요로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창의력을 조금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수명이 길다. 예를 들면 시인은 66세, 소설가는 67세, 역사가는 73세, 철학자는 67세, 발명가는 72세의 평균 수명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예를 개별적으로 보면 평균 수명보다 훨씬 오래 산 사람들이 많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보다 더욱 자기 일에 열의를 가지고 보다 활동적으로 보다 풍부한 자기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믿어진다.

한 예로, 톨스토이를 보면 그는 84세라는 장수를 누렸다. 시인 괴테는 83세까지 살았고 바로 죽기 전에 그의 필생의 역장 '파우스트'를 완성하였다. 북구의 문호 입센은 78세까지 살았고 이태리의 예술가 치치안은 98세라는 장수를 누렸다.

독선주의, 포만 된 권태감, 허무감 철저한 이기주의, 극심한 자기 집착 등의 경우 현저히 나타납니다.
이러한 태도는 무사안일주의, 임기응변주의, 형식적인 적당주의로 기울어져 결국은 철저한 구심적 인격 형이 되고 심한 경우는 외부에 대한 무관심이 증오와 적대시로 되어 파괴적인 행위까지도 발전하거나 자학적인 분열증에 걸려들게 되어 그 사고기능은 철저히 파괴 본능의 충족을 마련하는 파괴적 사고로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열등감과 자신의 상실입니다. "난 못났다. 난 배운 게 없다. 내 머리는 이제 굳었어, 난 머리가 애당초 나쁜걸, 난 계급이 얕아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남이 비웃을 테지, 잘난체 한다고 얼마나 또 법석을 떨라구, 나 같은 얼간이가 이런 생각을 할 적에야 다른 사람들은 낮잠을 자고 있었을까?"이런 생각은 모처럼의 문제의식과 기발한 착상과 엄청난 특허품이 그만 그대로 물거품이 되어 버리게 하는 독소인 것입니다.
제아무리 똑똑한 놈이라도 여럿이서 바보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옛말에도 전해옵니다만 주위에 대해 자신을 잃고 자기에 대한 신념이 상실될 때 그 누구도 바보가 안 될 재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바보는 자신의 신념을 죽음과도 바꾸는 바보입니다. 저 유명한 갈릴레오는 화형장으로 끌려 나가면서도 "글쎄 그래도 지구는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는데....."하고 혼잣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도 자기 소신의 강한 신념과 자신에 있었던 것입니다. 항용 새로운 생각이란 으레 조소와 비난과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공포심과 겁
만일 내 의사가 묵살되면 내 체면은 무엇이 되나, 실패로 돌아간다면 내골은 어쩐담, 이러한 실패감의 예견에 대한 망상이 자신의 인정과 우월감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를 크게 클로즈업시켜서 생겨지는 감정적 위축이 이것입니다.
인간은 욕망의 달성의 과정에서 장해를 만났을 때 목표 지향적인 갈등과 자기 지향적인 갈등의 어느 하나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자기 지향적 갈등의 사태에서는 자기 보존욕구가 강하게 발현되어 방어와 메카니즘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래서 자기 안전의 방도를 미리 마련하는 방편이 퇴피 현상으로서 애당초 불안과 공포심으로 위장된 자기 방어에 도입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뇌리는 정서 반응으로 독점되어 사고 기능은 완전히 억압되고 까닭 없는 긴장과 흥분으로 충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습관적 범주
우리의 언어 행동이나 사고방식은 대개의 경우 이미 습득한 습관적인 궤도나 형식에 철저히 포착되어 있으며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가 생각해 낸다고 하는 활동은 기실 현재의 습관이나 과거의 어느 습관을 추려 내거나 그 어느 부분적 요소를 떼어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억, 관찰, 판단의 모든 사고 활동은 이 습관적인 범주 안에서 그 근거와 방도 기준과 내용을 찾아내고 있으며 좀처럼 탈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1. 반사적으로 반자동화 조건화 되었다.
2. 척 익숙하다.
3. 쉽게 힘 안들이고 해낼 수 있다.
4. 시간과 노력의 필요를 잘 안다.
5. 아심이 된다.
6. 목적달성이 확실하다.
이런 점을 극복하고 모험적인 시도를 과감히 실천에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끝으로, 일보다 자기를!
어떤 일을 이룬다거나 업적을 꿈꾸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하고 세우자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기에게 열중하거나 급급하여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시작도 하기 전에 조급하게 자기 계획의 기발함을 침소봉대하여 넘치도록 과장하거나 자랑하거나 자기를 잘난 체 해 보이는 태도는 그 방법의 여하를 막론하고 창의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뉴튼이 실험실에서 일에 열중한 나머지 계란을 삶는다는 것이 제 손목시계를 푹푹 삶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미의 자기성장을 위해서는 일의 가치와 중요성과 성과를 올바로 겨냥하고 황소처럼 꾸준하고 묵묵한 노력을 통하지 않고는 참다운 지혜의 샘은 솟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독창성은 우직하고 고요하게 안정된 마음에서 비롯될 것이며 영리나 이욕에 쫓기지 않는 차분한 마음에서 용솟음쳐 나오리라는 것을 두말 할 나위도 없습니다. 직무수행에 능률을 높이고 나 자신의 인간변혁을 위해 아직도

황량한 사고의 미개척지를 개간하여 창의성과 지혜를 거두어들이는 옥토로 가꾸어 가는 쟁기를 든 농부가 되지 않으렵니까?

창의(創意)무용론(無用論)

- 파킨슨의 평사원의법칙 -

C. N. 파킨슨

분수를 잊지 말라

젊은 비즈니스맨으로서의 당신이 인생의 초기에 있어서 우선 배워둘 것은 당신의 진실한 진언(進言)이라는 것이 선배나 상사에게서 있어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것이다. '회사재편성안'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선배나 상사에게 접근한다는 것은 아주 헛된 일이다. 그런 플랜에는 '우리 회사는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 그 이면에 있기 때문이다. 회사를 다시 고쳐 만든다는 제안이야말로 비즈니스맨이 상사에 대하여 줄 수 있는 최대의 모욕인 것이다.
가령 그 제안이 허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제안자(提案者)가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되 절대로 당신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인간이란 말인가? 겨우 차장보좌 정도의 대단치 않은 존재가 아닌가? 그런 처지로써 중역들에게 대하여 회사경영에 대해서 운운하다니. 어디 시험 삼아 당신의 의견서라는 것을 제출하여 보라. 그리고 이것으로써 승진은 틀림없을 거라는 꿈을 그리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윽고 전무취체역 앞에 불려간 당신이 들어야 하는 것은 칭찬 뿐만은 아닐 것이다.
전무 "이 의견서는 잘 보았네. 존슨군 이것을 읽고 도대체 자네와 나는 어느 쪽이 우리 회사의 경영담당자인가 하고 생각 했네"
존슨 "그것은 물론 전무님입니다."
전문 "나라고? 그러나 내가 회사 일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일걸. 30년간 일개의 제조업자로서 살아 왔지만 아직도 젊은 제군들로부터 지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될 모양 일세 존슨군, 그런 일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나?"
존슨 "그렇습니다. 아니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무 "아마도 자네에겐 내가 하는 일이 아주 시대에 뒤떨어져 보일 걸세"
존슨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전문 "나에게는 오랜 세월을 거친 경험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자네도 알겠지, 그리고 자네에게는 경험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잘 알겠지,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네는 자네만치 박식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가?"
존슨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저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 "자네는 간부 중에서 이 의견서의 겨우 반 정도의 불손한 제안을 했다하여 해고가 된 사실을 알고 있는가? 자네는 내가 자네의 경우만은 더 관대하게 취급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존슨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니 저 아닙니다."
전무 "(부드럽고 아주 조용하게) 정말로 자네의 일신을 생각해서 말해 두겠는데 자네가 더 경험을 쌓을 때까지 자기의 의견을 밖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이 좋을 걸세. 자네의 선배제군은 자네의 말을 듣지 않아도 자기일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네. 어쨌든 회사는 자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하네. 그리고 회사는 자네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두는 것이 좋을 걸세, 더 공부하고 반성하여 골똘히 생각해 보세. 그러면 (돌연 노한 소리로) 그만 나가주게!"

목표(目標)를 명확(明確)히 하라

이런 모양으로 경영담당자와 만난다는 것은 당신의 승진을 빠르게 하거나 마음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문제 전체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어프로치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따라서 당신의 계획안이 더 할 나위 없이 견실하고 매년 회사의 돈을 50만 파운드나 절약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자.
여기에서 이 계획안은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로 당신이 회사의 번영에 플러스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당신이 민완가(敏腕家)라는 명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 셋째로 당신이 회사의 계급 제도적 구조를 완전히 변혁하여 자기 자신의 지위가 더욱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 예를 들면 당신밖에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새로운 포스트를 만들어 낸다 – 일이 가능할 것 이상의 세 가지이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계획안일지라도 섣불리 제안하여서는 당신의 입장이 난처하여 질 것이다. 잘못하면 음모가라는 평판을 듣게 되고 또 거기에다 "저작자의 음모는 반드시 실패 한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으로 끝날 지도 모른다.

적당한 인물을 택하라

절대로 이러한 상태에 자기를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신의 창의에 의한 계획안은 그 근본을 이루는 아이디어는 최초에 자기가 생각해 낸 것이라고 고지식하게 믿어 버리고 마는 제3자에 의해서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칭찬도 비난도 당신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더더군다나 당신이 음모를 꾸미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이라고 타인들이 생각할리도 없는 것이다. 아마도 모든 행정 기술 중에서 자기의 견해를 타인에게 추진시키는 기술만치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최초에 해야 할 것은 이 일에 적합한 인물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것은 전무취체역도 그 의견에는 귀를 기울일만한 인물이어야 하고 회사에서는 오래 일해와 신용이 있어야 하며 당신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동시에 자신의 의견은 별로 갖고 있지 않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런 인간은 어느 회사에도 있는 것이며 가령 그의 이름을 헨리라고 해두자, 그는 골프클럽의 열성적인 회원이며 당신이 그에게 접근하는 것도 이 골프 클럽에서 이다. 당신의 자세는 철두철미 겸손함이 넘치는 찬미의 태도가 아니면 안 된다.

"저에게도 헨리씨와 같은 기업의 지식이 있으면 좋으련만....."하고 한숨을 쉬어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는 "헨리씨와 같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되려면 다년간의 경험이 필요하겠죠."

그리고는 약간은 불평스러운 얼굴도 해 보인다. "그건 그렇다하고 헨리씨는 꽤 연세가 많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안색이 좋고 젊으세요?"

이쯤 되면 그의 대담 무쌍한, 그리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당신이 주장하게 된 것도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

"헨리씨 그런 생각을 해내시다니..... 헨리씨가 아니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전무의 아이디어인줄 알고 왔었는데 모든 것이 헨리씨 한데서 나온 것이었군요."

이와 같이 사제의 관계를 확립한 후에는 당신은 다음의 기회를 기다려 헨리씨를 파티의 클락 룸에서 붙잡는다. 당신은 헨리씨 보다 술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

"오우 헨리씨 안녕하십니까, K부문을 독립 회사로 한다는 선배의 이 계획안 인데요 –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계획안이라고?"

"지금 빌리 한테서 방금 들었습니다. 물론 절대 비밀을 지키기로 하고 말입니다. 저의 얘기 아시겠습니까?"

"어째서 나에게 그런 일이..... 나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

"그렇습니다. 나는 그 작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빌리, 그분은 천재이시다.'하고 그게 진정 이냐고요? 진정이고 말고요."

"도대체 무슨 얘긴데?"

"아니요, 저, 저는 진정으로 당신이 천재라고 말했습니다."

"어째서 인가?"

"K 분문에 관한 당신의 계획안 때문입니다. 빌리가 말하고 있더군요."

"빌리라니 누군가?"

"빌리를 모르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비밀이라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작자는 이런 얘기까지 나에게 할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비밀이고 말고 그런데 그는 어째서 그 비밀을 지키지 못했단 말인가?"

"대체로 그는 너무 수다스러워요. 그건 그렇다 하고 그 계획안은 정말 훌륭한 것이군요. 이렇게 멋진 아이디어를 저는 아직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세금의 각도에서 보더라고 훌륭합니다. 헨리씨 참으로 천재적인 수완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K 부문에 관한 당신의 계획안 말입니다."

"아 그것 말인가? 이것은 자네만 알고 있게"

"그거야 물론 이죠 그런데 한잔 하시지 않겠습니까?"

"좋지, 그야 말로 천래(天來)의 묘안(妙案) 인데."

"천만에요, 헨리씨야 말로 천래의 묘안이 샘솟듯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어림도 없습니다. 정말로 헨리씨의 계획안은 훌륭한 것입니다. 자 축배를 듭시다."

"무슨 계획안이더라?"

만약 당신이 만사를 빈틈없이 끝마쳤다면 헨리씨는 나는 암만해도 누구인가 하고 아주 중대한 일에 대해서 의론을 한 것 같다는 막연한 인상을 가지고 그 파티에서 나올 것이다.

이튿날 그는 누구와 무엇에 대해서 의논을 했는가 하고 머리를 기우뚱 거리게 될 것이다. 그에게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이 당신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는 전화는 쓰는 것이 좋다. 이것이 본사의 전화교환대로부터 확실히 소문이 퍼져갈 것이기 때문이다.

"아 헨리씨입니까. 실은 헨리씨의 K 부문에 관한 계획안이 저 어제저녁에 의논한 아이디어인데 그 1부가 외부에 흘러나간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전화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모두들 굉장히 멋진 아이디어라고들 하더군요."

"굉장히 멋지다니? 설마? 기본적으로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인데."

"그 단순한 아이디어라는 것이 누구의 머리에도 쉽사리 떠오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 문제로서 내가 감명을 느낀 것은 그 계획안의 적용 방법입니다. 헨리씨는 벌써 최종적인 세부까지 완전히 계산을 마치셨습니까?"

"응? 그야 그렇지, 애매한데가 있어서는 큰일이니까."

"저는 말이지요, 너무도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자마자 즉시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그 메모가 헨리씨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그려낸 것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뭣하면 그 메모를 나에게 보내게 한번 훑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

"즉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잘 모를 점이 있습니다. 물론 헨리씨에게는 간단한 일이겠지만 일단 지적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생각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야 뭐 어렵지 않지 점심이라도 함께 들면서 얘기하지, 12시 반에 카운티클럽에서."

"고맙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헨리씨 저 같은 것과 회사의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겠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아직 너무 풋내기라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공부만은 몹시 하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자네를 도울 수 있다면 기쁘게 생각하네. 그러면 이따 12시 반에 만나기로 하고 수고하게."

상대방의 의심을 풀게 하라

당신의 메모의 도착은 그 내용이 통일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헨리씨에게 있어서 의문을 풀어주게 될 것이다. 그는 당신이 대단히 배운 점이 많았다는 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 메모는 특히 재능이 엿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은 확실히 합리적이라는 것도 별로 없다. 부정확한 곳이 몇 군데 있으면 그는 자동적으로 정정할 것이다. 적어도 단어 한 마디는 스펠링이 틀려 있을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그는 "요즘 젊은이는 일을 잘 모르는군."하고 미소 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그것을 한 번 보기만 하고는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은가를 곧 알 것이다.

어쨌든 나쁜 계획안은 아니다. 하나하나 연필로 잘못된 곳을 고칠 때마다 그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하나 개선되어감에 따라서 그 아이디어는 확실히 그의 것이 되어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당신은 점심을 먹으며 자신의 두 가지 이의(異議)를 얘기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전부터 마음을 써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는 법률상의 의문점이라 하고, 가령 북아일랜드에 있어서 회사등기 같은 문제인 것이다. 그러자 헨리씨는 "그러나 새로운 회사는 캐나다에 등기될 것일세."하고 말한다.

"아 그렇지 물론 그렇죠."하고 당신은 감탄해 보인다. "그것을 잊다니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식으로 다음으로 당신이 말하는 이의는 좀 더 어려운 것으로써 예를 들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계열회사 전체에서 팔라고 내 놓은 주권을 이미 현재에 와서는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증자(增資)를 해야 할 것이라는 문제 등이다. 이것이 볼링의 쓰러뜨리지 않으면 안 될 하나의 기둥이며 그것도 아무 두 번째에는 쓰러지고 말 것이다.

이 전략의 목적은 헨리씨에게 승리의

쾌감을 주는 것이다. "나는 나의 계획안에 대한 두 가지 이의를 꺾어버렸다. 이 이상 나에게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하고 여기에 이르면 앞으로 목표하는 것은 이 아이디어 전부가 실제는 당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까 하는 헨리씨의 잠재적인 의심을 운산무산(雲散霧散) 시키는 것이다.

"정말이지 그 약간 모자라는 풋내기가 처음에는 그것에 반대를 하다니 결국 쓸데없이 귀찮은 일만을 생각해 낼 뻔 했어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 후부터 오히려 대단히 쓸모도 있고 최후의 단계에서는 그 계획안에 몰두하여 잘 일해 주었다. 잘만 쓰면 유능한 국차장(局次將) 쯤은 될 것이다. 아직 이렇다 할 만큼 적극적은 아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의 좋은 결점일 것이다. 새파랗게 젊은 녀석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나뿐이다 라는 듯이 그 뛰는 꼴을 볼 수는 없는 것이니까. 존슨군은 자기의 분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 이런 평가는 장래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창의라는 것은 더 경험이 쌓여진 후 비로소 나오는 것이다. 그는 장차 어쩌면 국장쯤은 될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쓸모 있는 사람이고."하고 헨리씨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새로 씨를 뿌리라

그렇다면 그 계획안을 최초로 생가해낸 사람은 아무런 칭찬도 받지 못하는가? 그렇다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는 처음부터 그 아이디어가 헨리씨 이외의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눈치 채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 회사관리의 일반원칙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항상 당신 아이디어를 누군가 딴 사람을 통하여 추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 정반대의 정책을 실행하여 하나의 계획안을 변호하고 그것을 채용하는 것에 의해서 신용을 얻고자한다 – 적어도 한 번은, 그 겨우 한 번의 성공에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일을 당신이 하려고 할 때마다 반대하는 소리이다. 너무도 민완가(敏腕家)라는 소문이 나게 되면 당신은 샛길로 몰려가 서서히 중요성이 없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출세 코스는 적어도 당신이 처음으로 발을 들여 놓은 회사에서는 자, 이제부터라고 생각할 때에 이미 끝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당신이 취할 유일한 길은 새 출발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회사 사람들에게 다른 인상을 주는 것이다. 당신이 옮긴 새로운 회사에는 전무취체역도 그 의견에는 귀를 기울이는 누군가가, 회사에서는 상당히 고참 이고 발언권이 서는 누군가가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을 잘 들어주는 누군가가, 거기에다 자기 자신의 의견을 별달리 갖고 있지 않는 누군가가, 안성맞춤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거기에다 그 사람을 골프클럽의 열성적인 회원이며 당신이 그와 만나는 것도 골프클럽인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자세는 철두철미 경험담이 넘치는 찬미의 태도가 될 것이다..... 당신은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를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읽은 지금은 인간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한 지식을 틀림없이 가졌을 것이다.

(민철홍 역)

아이디어와 나

한 기 제
<상병 · 공군대학근무>

나는 공군대학 학술연구부에 근무하고 있다. 어느 날 행정관실에서 공문을 찾아가지고 사무실에서 돌아와서 문서 접수부에 기재를 하려고 공문의 제목을 보았을 때, 사무실 재배치에 대한 계획 사항이 나와 있었다. 자세히 읽어본 즉 지금 있는 사무실에서 300미터나 떨어진 딴 건물로 이동을 하고 며칠날 까지는 이동 완료 보고를 하라는 공문이었다. 날씨가 따뜻하면 모를까 추운 날씨가 계속되어 손이 나도 모르게 호주머니를 찾는 때이라 걱정이 앞선 며칠을 보냈다. 드디어 사무실 이동을 해야 할 날짜는 닥쳐와 오전 11시경 사역병을 동원하여 책상이며 케비넷, 의자, 책 차트

등 네 트럭이 넘는 짐을 주의 깊게 날랐다.

이 많은 짐을 새로이 이사한 사무실에 들여다 놓고 보니 지금 막 한바탕 전쟁을 치루고 난 뒤처럼 각종 물품들이 여기저기 되는대로 흩어져 있어 무엇부터 어떻게 정돈을 행할지 엄두가 안 났다.

얼마 전인가 읽은 기억이 희미하지만 우거진 수풀 속에 핀 몇 송이의 아름다운 꽃도 즐기는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 가지각색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한다.

철인이 그 꽃을 보았을 때는 왜 그 꽃이 그 자리에 피었으며, 무엇 때문에 그 꽃의 색이 딴 꽃과 다르며 무엇 때문에 홀로만 사람이 즐겨 보지 않는 곳에 피었는가를 주의 깊게 심사숙고 할 것이지만 음악가가 그 꽃을 관찰할 때는 들쑥날쑥한 몇 개의 꽃송이와 높고 낮게 달린 꽃 봉우리들을 아름다운 음률로 생각할 것이며 화가가 보았을 때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 화폭에 옮겨 놓지 않으면 안 될 충동을 느낄 것이고 그저 평범히 보고 넘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무실 인원이 많고 고급장교가 많은 우리 사무실에는 모든 물품을 새로이 정돈 하는데 의견의 일치가 참으로 어려우리라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의외로 착착 잘 정돈이 되어 누구에게나 새로운 맛을 주었으며 연구하기에 좋게끔 책상 배열이 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은 옷거리, 모자거리 하나하나가 물건들을 위해서 나들어 놓은 공간인 모양 잘 어울리고 차분히 온화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다.

이튿날 오후 느낀 일이지만 내가 있는 사무실은 지반 바로 위부터 투명한 유리창이어서 오가는 사람이 눈에 거슬렸고 서쪽태양광선이 접어 들어와 눈이 피로했다. 생각다 못해 나는 갱지를 예쁘게 오려 유리창에 붙였더니 한결 좋고 눈에 피로가 덜했다. 이것을 본 우리 사무실 고급장교 한분이 "굳 아이디어!"하고 나에게 던져준 말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아이디어라는 어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고 사전, 신문, 잡지 등 갖가지 책들을 마구 들쳐보기 시작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혼자 보기에는 아까울 정도이며 꿈같은 사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본래 아이디어란 단순한 낱말은 인식 관념 생각을 의미하나 철학 상으로는 플라톤에서 관념(이데아)를 뜻하며 또 불안전한 경험에 있어서의 사물에 대한 규범으로써의 의의를 갖는 영원한 원형 또는 본질적인 존재로서의 현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 우리의 인간 생활에 있어서의 아이디어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연결을 갖는 계획, 고안, 착안이라는 듯으로 그 고안, 착안, 계획이 기능적이고 아름다우며 견고하여야 하겠다.

그러기에 오늘날 세계인류를 위해서 공헌한 많은 아이디어는 우리 생활과 동떨어진데 있지 않고 우리주변에서 생각을 부르고 섬광과 같이 우리의 머리를 두드려 얼른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만 불편을 알면서도 생활에 젖어 생각의 한도가 넘치지 못하는데서 그 자신의 아이디어는 자라나고 있지만 순간적으로 오는 그 아이디어가 자신에 이익뿐만이 아니라 인류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20세기의 60개 중요한 발명 중에는 비행기, 전자현미경, 페니실린, 디디티, 원자탄 등 많은 종류의 것이 있지만 1895년 보스톤 어느 여관방에서 면도를 하다 안전 면도날을 생각 해내어 수십만 달러를 번 킬질레트의 아이디어도 그 중의 하나인 것이다.

발명가들은 시간은 돈이 아니라 시간은 생명이라고 말한 것처럼 몇 사람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지구의 거리를 단축시켰고 핵폭탄 몇 개로 인류의 존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아이디어는 참으로 쉬운 것도 같지만 무섭게 생각이 드는 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때 일본에서 큰 부작 된 양화점 주인의 예를 들면 그는 일본에서 영화 분홍신이 '상영 중일 때 빨간신을 신고 오시는 분은 무료입니다.'라고 광고를 냈다.

그 당시의 구두의 색은 흑색과 백색, 고동색 밖에는 없었다. 양화점 주인은 여성이 아름다운 색을 좋아한다는 것을 재빨리 케취 하고 묘한 광고와 함께 빨간 구두를 만들어 팔았더니 기대 이상으로 많이 팔려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 교통안전 포스터의 모델이 노란 장갑을 낀 것이 문제가 되어 노란 장갑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도매상에서 노란 장갑을 공장에 폭발적인 주문을 했다는 사실 등을 볼 때 아이디어는 터무니없는 곳에서 마냥 자라고 있는 수도 있다.

우리는 책상위에 놓인 책꽂이 하나, 벽에 붙인 포스터 한 장도 무심히 붙이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쳐다봐지게끔 장소를 택하여야 하며 일사삼성(一思三省)이라는 말과 같이 모든 일에 차근히 자기생각을 넣어 단 사람보다 조금 달리 모든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데서 아이디어는 자라는 것이라고 믿는다.

군내 현상 논문 가작(佳作) 입선

전우애(戰友愛)

김 춘 식(金春埴)
〈공군중령 공사교(空士校)〉

서론(緖論)
제1장 우애(友愛)
제2장 전우애(戰友愛)
제3장 자애(自愛)
결론(結論)

서론(緖論)

군대에서 그 성원 상호간에 단결과 협동이 절대적으로 요망(要望)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 단결과 협동은 무슨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먼저 군에 어울리는 강제적인 명령이나 철저한 감독을 예상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일반 사회에 어울리는 인간의 천성의 자연스러운 사랑을 토대로 하는 전우애를 통하여 자율적인 과정에서 그것을 달성하게 하는 방안도 예상할 수 있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그 두 가지의 방법을 비교해서 고찰 하건대 후자의 것이 단연 바람직하든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음직하다. 이와 같이 전우애는 우리 군대에도 깊고 넓게 존재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지는데 이에 관한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

어떤 사람은 우리의 현상에 관하여 비평하기를 "요사이 우리 군대에선 전우애란 하나의 낡아빠진 구시대의 패물로 전락해 버렸고 그것에 대치되어 각자의 이기적인 고립주의 사조가 노골화되어 있다"라고 했다. 이런 평은 너무나 추상적인 혹평(酷評)이어서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냉정한 눈으로 우리의 주변을 엄밀히 관찰해 볼 때 그런 혹평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리라 믿어진다. 우리의 반성적인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러한 실망적인 결과는 막연한 체념으로 얼버무려 지내고 말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악영향을 우리 국가와 겨레에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 해결의 요구는 우리에게 사뭇 강박하는 감을 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조속히 해결할 문제가 될 것으로 믿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 것인가. 우리는 과거에 다른 여러 문제를 다룰 때와 같이 이 문제에서도 제기된 문제인 전우애라는 것의 본질적 의의를 먼저 확실하게 인식 하고자 하는데서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전우애의 의의에 관해서는 이미 앞에서 간략하게 언급된 바도 있고 우리가 일상 막연히 남아 알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기된 문제의 더 깊은 이해를 얻기 위하여 필자는 본론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정리하고 거기에 살을 부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의 전개에 있어 필자는 전우애의 의의를 해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어지는 일반적 전우관계에서의 특징을 먼저 논하고 그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전우애의 그것과 비교 고찰함으로서 추상적인 의의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려고 시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전우애가 구현되는데 선결 조건이 되리라 믿어지는 특종의 자애(自愛)를 논함으로서

문제 해결에 관한 방향을 암시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논의를 함에 있어 우원(迂遠)한 철학적인 공론을 피하고 우리가 일상 보고 느낄 수 있는 상식적인 입장에서 비교적 평이하게 논 하고 저 하는 입장을 취했음을 먼저 밝혀 두는 바이다.

제1장 우애(友愛)(우정)

우리는 어릴 때부터 벗을 사귀어 왔다. 그런 벗들 중에는 우리에게 참된 벗이라 느껴져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꾸준할 벗이 있을 것이고 한편 기타의 대부분의 벗은 각색 뿐의 벗이어서 아기자기한 우정을 별로 느껴보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비교적 흔하게 경험해 온 바 있는 그러한 우정 또는 우애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된 벗과 사귈 때의 진정한 우애란 어떤 것일까? 이러한 의문은 우리가 사회인으로서 진정한 벗을 갖고자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답변되기를 누구나 원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본론의 전우애의 의의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것과 유사하고 우리에게 더 친숙한 우애를 서론 격으로 논하고자 하기 때문에 장황(長恒)하고 철저하게 취급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애의 몇 가지의 특징만을 추려서 약간의 고찰을 가하여 보기로 한다.

⑴ 우애는 자발적인 정의(情意)의 발로(撥虜)이다.

어떤 두 사람 사이에 우정을 제삼자의 강제에 의해서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겨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사람은 생태적으로 홀로 고독하게 지내려느니 보다는 벗을 찾아 우애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는 듯싶다. 이리하여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음이 내키는 대로 많든 적든 간에 벗을 사귀게 마련이고 만약에 그것을 타인이 간섭할 때는 불유쾌하게 생각하는 현상이 하나의 당연한 것으로 우리에게 수긍되고 있는 것이다.

⑵ 우애의 대상은 선택(選擇)되는 것이다.

우리가 벗을 가지려 할 때 주위의 여러 사람을 닥치는 대로 무차별하게 벗으로 삼느니 보다는 비교적 좁은 범위 내에서 상대자를 선택하려는 성향을 나타내게 마련이다. 더구나 진실한 벗을 택하는 범위는 매우 좁은 것이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든 간에 이렇게 선택을 하려는 행위는 특정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타의 사람들에 대한 배타적인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서양의 속담에도 '모든 사람의 친구는 아무의 친구도 아니다'라는 것이 있다.

⑶ 우애의 가치판단은 그 동기(動機)와 결실(結實)을 보고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판단의 기준은 상대적이다.

이미 언급된바와 같이 우애관계에는 진실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두 가지로 뚜렷이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고 천차만별(千差萬別)인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 가치의 관념을 개입시켜 어떤 우애관계는 바람직하다든가 고상하다든가 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든가 야비하다 등의 판단을 내리게 마련이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가를 반성해 볼 때에 우리는 그 우애관계가 성립된 상호간의 동기와 그 우애관계의 결과로서 상호간에 무엇을 얻고 있는가를 보고서 그 우애관계의 가치를 판단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동기와 결실에는 헤아릴 수 없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가치판단의 기준도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우애관계의 동기에는 인간의 본질적 색채가 농후한 것이 지배적으로 많다고 한다. 이런 경우 A라는 사람은 뚜렷한 이유를 의식함이 없이 그저 어쩔 수 없이 B라는 사람에게 친구로서의 호감이 가서 심리적으로 접근하게 된 것이 교유관계가 맺어진 동기가 되는 따위를 뜻한다. 그러나 물질적 또는 정신적 이해관계가 교우관계의 동기가 되는 일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적이고 순수하다고 볼 수 있는 전자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좀 불순하고 볼 수 있는 후자는 가치가 적은 것일까 물질적인 이해관계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인 그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숭상(崇尙)할만한 사람들의 교우관계에서 그 동기가 전자의 감성적인 것 보다는 고도의 정신적 가치를 상호간에 발견하여 접근하는 후자의 이성적인 것에 가까운 것이 오히려 많았다는 것이 여기에서 연상(聯想)된다. 그렇다면 우애관계의 동기와 결실은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일까? 칸트는 그런 것들을 감각적(Patholtgisch = 경향성(傾向性)에 연유(沿由)하는 것)과 실천적(=이성에 연유하는 것)의 두 가지로 구별하여 후자만을 도덕적인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필경(畢竟) 인격으로서의 자기가 우인(友人)을 인격으로써 사랑할 때 그것이 최선의 우애가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누구에게나 옳은 것으로 수락(受諾)되기는 힘들고 사람은 그러한 가치판단을 할 때 자기의 입장과 신념에 따라 각양각색의 견해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인가에 대한 끝없는 논의를 하느니 보다는 일반 사회에서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진리를 어떤 사람이 내세워서 타인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말이 우애의 가치판단의 기준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시인하는데 끝이기로 한다.

⑷ 우애(友愛)는 받느니 보다는 주는 것이다. 따라서 주체(主體)의 가치형성이 선결적 요건이 된다.

우애관계에 있는 A와 B사이에 성립되는 현상을 고찰할 때 그러한 감정의 흐름은 어느 편 한쪽만의 일반적이기 보다는 상호적이어야 그 우애관계가 잘 성립되고 또한 영속성(永續性)이 있다는 것을 용이하게 우리는 알 수 있다. B가 만약에 우애를 A부터 받고자만 한다면 그 우애관계는 B에 있어서는 우애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비굴한 구걸관계로 추락(墜落)하고 말 것이다. 또 다른 경우에 있어 B는 A로부터 받는 우애를 저울질 하듯이 해서 꼭 받은 만큼만 갚으려 한다면 그것은 마치 상업의 취인(取引)관계가 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이 추론한다면 가장 순수한 우애관계에서는 개인의 이속에 개의함이 없이 심중에서 복받쳐 넘쳐흐르는 것이 있어 그것을 상대방에게 퍼붓지 않고서는 할 바를 모르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랑은 넘쳐서 가는 것이라는 특색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런 말이 그 이면에서 뜻하는 바는 어떤 개인에 있어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의 소용에도 부족할 경우에는 그런 것이 넘쳐서 남에게 갈 아무것도 없어 우인을 갖는다 해도 그 우인에게 우애다운 우애를 끼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을 어찌 남에게 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마치 자기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걸인이 빈손 갖고 굶주린 남에게 동냥하려는 격이 아닐까, 혹자는 반대하여 말하기를 그런 정신적인 것을 어찌 물질적인 것과 직접 비교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어떤 사람이 자기는 회의(懷疑)와 불안에 쌓여 오뇌(懊惱)고 있으면서 그의 벗에게만은 희망을 어찌 불어 넣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인격이 고매한 사람은 그의 벗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망이 있으되 인격이 야비한 사람이 그의 벗에게만은 고상한 영향을 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망상일 것이다.

이와 같이 우애관계에서 주로 정신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줄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우리는 훌륭한 우애관계가 성립되는 선행조건으로써 각자의 정신적인 자질문제를 매우 중요시하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게 되리라고 믿어진다. 이러한 개인의 자질문제에 있어 또한 우애의 수수관계(授受關係)에 있어 어떤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가의 문제에 다시 봉착하게 되는 데 그것은 ⑶에서 논한바 취지(趣旨)에 의하여 여기서 취급하지 않기로 하고 여기서는 진정한 우애가 성립되기 위한 예비단계로 반드시 각자의 인격적 자질이 바람직한 상태에 있을 것이 매우 중요시 된다는 것을 시인(是認)하는데 그치기로 한다.

제2장 전우애(戰友愛)

전장(前章)에서 우리는 보편적인 특징을 몇 가지 들어서 그 의의의 일단을 고찰했다. 그러한 우애가 뜻하는 바에 비해서 우리의 주과제인 전우애의 의의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우리는 상세한

비교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 두 가지의 것이 실제로 연출되는 무대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 관심이 쏠리게 될 것이다. 전장의 우애가 이루어지는 무대는 보편적인 사회생활의 확대한 무대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논하고자 하는 전우애의 무대는 협소하고 특수성(特殊性)을 가지고 있음을 직각(直覺)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떠한 특수성이 있다는 것일까, 이러한 특수성은 전우애가 우애에 비해 특수성을 지니게 될 성격 결정에 중대한 형향을 미칠 것이 예상됨으로 미리 논해두는 것이 매우 유익할 듯싶다. 따라서 다음에 일반사회와 군대와 근본적으로 상이한 점을 들어서 간략하게 고찰하기로 하자.

⑴ 군대(軍隊)는 확고(確固)한 목적(目的)적 사회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군대는 국토방위 따위의 두렷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구성시킨 특수 상황이다. 이러한 목적은 절대적이고 확고부동한 것이어서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목적이 망각 된 군대란 벌써 군대로서 존속한 의의를 상실하고 무위도식(無爲徒食)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한편 일반 사회에 있어서는 그런 목적이 상대적이고 다양성이 있어 타협(妥協)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바이다.

⑵ 군대(軍隊)에는 확고한 가치관(價値觀)이 지정(指定)되어 있다.

이것은 ⑴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군대에는 확고한 목적이 있다는데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만이 지상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지정되게 마련이다 라는 것을 뜻한다. 군대에 있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승전(勝戰)을 거두거나 그런 가능성을 유지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관에 관해서도 일반사회는 이미 제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적이고 다양적 이어서 서로 타협의 여지가 많은 것이다.

⑶ 군대는 강제적(强制的)사회이다.

이미 확고한 목적이 있고 가치관도 따라서 지상(至上)의 것이 지정된 군대에서는 모든 사람의 행동이 그 목적과 가치관에 의하여 단호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귀결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리하여 군대에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개인에서 죽음을 명할 수 있고 개인은 그것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은 일반사회에서는 좀처럼 통용되지 못하는 논리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군대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차별 없이 강제로 얽매어져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군대의 유일하고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에 한해서는 단호하게 강제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일반사회에 비하여 군대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위해서 논하였거니와 그러한 두드러진 상이점은 전우애의 성격에도 뚜렷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어진다. 왜냐하면 전우애는 그 존재가 군대의 목적달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임은 명백한 것이니 그런 것일수록 군대의 강제성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군대라는 배경의 특수성을 짊어지는 전우애는 이미 논한 우애와 비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다음에 비교 검토하기로 한다.

첫째 전장의 ⑴에서 우정은 자발적으로 맺는다 라고 하고 ⑵에서 우애의 대상은 선택 된다 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전우애에 있어서는 어떨 것인가, 우리는 우선 그러한 우애의 특징을 그대로 전우애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해서 그 결과가 어찌 될 것인가를 상상해보자, A라는 병사는 주위의 여러 동료들 중에서 각기의 구미에 맞는 소수의 동료들을 선택하여 소위 전우애의 관계를 맺는 것이 그런 가상 하에서 당연하고 그러한 특별한 동료 중에서도 특히 한사람쯤은 막역한 사이가 됨직하다. 이러한 특정 병사 사이에 성립되는 열렬한 전우애는 그 자체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애관계의 열렬한 경우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전우애의 그런 경우에서도 배타적(排他的)인 감정이 거기에 개입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이라 하겠다. 그럴 때 그것이 배타적인 감정에 이르지

는 못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는 있지만 다른 동료에 대한 냉담한 경향이 없을 것이라고 상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동료 간의 냉담한 경향은 전우애의 인화단결(人和團結)에 과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전우 상호간에 있어서의 단결과 협동이 얼마나 잘되느냐 여하에 따라 상호간의 생사의 판가름도 될 수 있는 일선에서 그런 냉담한 감정이 용납될 수 있을 것인가? 더구나 조국의 안위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임전(臨戰)하는 순간에 있어서 말이다. 그러한 사적인 경향은 승전이라는 큰 목적에 의하여 마땅히 제한을 받아야 할 것으로 확신된다. 따라서 그러한 경향을 조성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우애의 (1), (2)의 특징을 그대로 전우애의 것으로 삼으면 아니 되겠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라서 전우애를 맺는 범위는 전투단위내의 전원이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고 거기에서 구차스럽게 정의적(情意的)인 선택을 하느니 보다는 무차별하게 할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특징은 하나의 당위적인 것으로 우리 전우애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전우애가 군대내의 각자에게 받아질 때 그것은 오로지 각자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각자가 자각하여 수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애의 특징 (3)에서 우애의 가치판단은 그 동기와 결실을 보고서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판단의 기분은 상대적이다라고 했다. 그런 두 가지의 말을 전우애에 적용하여 생각하건데 전자의 것은 우리가 긴 논의를 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고 후자의 것에 있어서는 단연코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전우애에 적용되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가치관이 이미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바람직하고 진정한 전우애 관계에서는 그 동기와 결실에 있어 군대에 있어서의 주목표인 승리를 거둔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다. 물론 전우애 관계에서 위와 같은 지상의 가치 이외의 가치든가 보람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이고 과대한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다. 한편 이런 생경(生硬)한 듯한 지상의 가치관만을 위주로 설명된 전우애는 각 개인에게는 일반 우애에서와 같은 오붓한 만족감은 줄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될지 모르지만 전우애에 있어서도 그에 못지않은 깊이의 다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믿어진다. 이런 것에 관한 논의는 여기에서 그리 중요시되지 않기 때문에 취급하지 않기로 한다.

우애의 마지막 특징으로 들은 (4)의 우애는 주는 것이고 거기에는 주체의 가치형성의 선결적 요건이 된다. 라는 말은 전우애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라고 믿어진다. 이것은 전우애를 성립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하나의 장으로 논하기로 한다.

제3장 자애(自愛)

우리는 보통 자기의 일보다는 남의 일에 더 낳은 관심을 갖기 쉽다. 이리하여 자기의 일은 제쳐놓고 남의 일을 해주는 것을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미덕이 되는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기 쉽다. 자기의 몸가짐을 다스리지 못하여 남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도 모르면서 또한 자기의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부지(不知)와 불신을 남겨놓고 남에게는 봉사를 해보겠다고 동분서주(東奔西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해방이후 우리의 사회를 회고해 볼 때 그런 위인들이 우후죽순(雨後竹筍)같이 무수히 나서서 스스로의 추악(醜惡)함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이 나라의 사회와 정계를 얼마나 더럽혔던 것일까. 국가민족에 끼친 그들의 해독은 실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컸던 것은 우리의 기억에 생생한바 있다. 그들의 대부분은 자기의 품성과 능력에 맞는 생업을 버리고 허울 좋은 권력욕, 물질욕에 사로잡혀 사회의 진정한 일군으로 가장했던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창피한 과거를 염두에 두고 괴테가 그의 만년에 남긴 다음과 같은 말을 읽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 느낌직 할 것이다. 그는 제자에게 말하기를 "나의 긴 창작 생활을 통해서 나는 독자에게 어떻게 하면 더 큰 감명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등속에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지금 회고하건데 내가 만약에 그랬더라면 일시적인 유행작가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내가 결과적으로 이만치라도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나는 어찌하면 나 자신을 향상시키고 완성시켜서 자기가 더 만족할만한 작품을 쓸 수 있겠는가의 생각에만 몰두(沒頭)해서 살아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런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하고 있을까. 천재적인 소양을 타고 났다는 그가 그랬거늘 범인(凡人)에 있어 서랴.

이와 같이 남에게 봉사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자기의 일에 우선 최선을 다하는 말은 우리가 제1장의 우애의 특징 (4)에서 언급한바 남을 사랑하고자 하는데 앞서 스스로가 값있는 사람됨이 되어야 하겠다 라는 말과 상통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가 값있는 사람이 되어서 어떤 가치라도 남에게 미칠 수 있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도록 가치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이와 같이 자기의 향상을 위하여 스스로를 돌보는 것을 필자는 자애(自愛)라고 부르고자 한다. 보통 자애라고 하면 능동적인 쾌락(快樂)과 욕구를 추구하는 것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여기에서는 그런 것을 자제하고 자신의 자질의 발전을 기하도록 편달(鞭撻)하는 것을 진정한 자애라고 칭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장의 전우애에서 그 성패의 선결적 요건이 되리라는 주체의 가치형성은 위에 말한 자애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군인으로서의 자애란 무엇을 목표로 하여 스스로가 노력하여야 하는 것일까 다음에 논하기로 한다.

(1) 군인(軍人)은 누구보다 애국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목표(目標)이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성만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데서 달성되는 것은 아니고 한편 그런 각오를 중심에 단단이 해둔다는 것만으로도 또한 달성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애국하는 길인가에 대한 굳건한 신념과 사상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 공부에 힘써서 건전한 사고력과 사상을 함양(涵養)하여야 한다. 우리가 반공을 부르짖고 민주주의를 옹호한다고 자처하고 있지만 우리는 과연 그런 주의사상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고 자신의 이론으로 삼고 있는가. 만약에 피상적(皮相的)으로만 알고 구호에만 그쳤다면 유사시에 생명을 걸고 그것을 수호(守護)할 수 있겠는가. 불행히도 적에게 포로가 되었을 때 적의 세뇌(洗腦)를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는가. 도금된 것과 같은 지식과 사상 가지고는 언젠가는 본바탕이 드러나게 마련일 것이다.

(2) 군인은 행실(行實)이 올발라야한다.

군인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게끔 그 행실이 올발라야 한다고 우리는 귀가 따갑게 들어 왔다. 또한 사생활에 있어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주위부터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부하를 통솔할 수 있다고 우리는 느끼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런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실현되지는 못할 것이다. 무지는 죄악을 낳는다고 옛 사람들이 말해온 것은 지금도 의의 깊은 말이라 믿어진다. 우리는 일상생활의 여러 경우에 있어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 것인가를 확실히 모르면서도 잘 아는 척하여 구래(舊來)의 버릇대로 행동을 함으로서 종내(終乃)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실수를 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행동규범에 대해서 넓고 깊게 알도록 힘쓰고 자기의 행동을 반성하는데 잠시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리하여 논리 도덕적인 면에 있어 남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군인으로서의 인격의 완성을 목표로 하여 매일을 뜻있게 보내야 할 것이다.

(3) 군인은 자기 직무(職務)에 있어서 제일인자가 되어야 한다.

자기가 어떤 미천한 직무를 맡고 있든 간에 그것에 자기가 가진바 힘을 다하여 그러한 직무에 있어서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노력하는 것은 그 개인을 위해서나

전체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성과를 가져다주게 마련이다. 모름지기 군인 된 자는 자기 직무에 관한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창조적인 연구와 실천을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서 일진월보(日進月步)하여 자기의 일에 관해서 권위자가 되리라고 항시 유념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남의 화려한 직무를 부러워하고 자기의 것을 소홀히 하는 자는 그 직무가 자기의 것이 될 때에도 무능과 태만을 폭로하게 될 것에 틀림없다. 그러한 군인은 자기 자신을 손상할 뿐 아니라 제방(堤防)의 뚫린 구멍과 같은 역할을 해서 군 전체를 패망에 몰아넣게 하는 원흉이 되는 것이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유사시에 그 판가름이 되고야 말 것이다. 자애를 위한 군인으로서의 목표에는 위에 예시한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면의 제한으로 이만 줄이기로 한다.

결언(結言)

이상 논급(論及)한 바에 의하여 군대에서 전우애가 갖는 의의의 중요성을 우리는 재인식하고자 했다. 전우애는 주위의 모든 전우에게 무차별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그런 상호관계에서 군대의 목표 달성을 지상적 가치로 삼는 것을 근본적 특징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당위적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수반하는 참다운 자각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강조된다. 우리가 자각하여 실천에 옮기려는 이러한 전우애는 그 전제로서 진정한 자애를 요망(要望)하고 있다는 주장아래서 필자는 군인으로서 참다운 자애란 어떤 것인가를 검토함으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향을 시사(示唆)하려 했다. 여기에 언급된 군인으로서의 자애는 특히 전우애와 관계 시키지 않아도 그 자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논지에 관계가 적은 기타의 부분은 생략하였다. 빈약한 내용을 가진 필자의 이런 몇 가지의 논의가 다소라도 참고가 되어 우리 공군(空軍)의 전병장의 정신무장과 사기진작에 관한 뜻깊은 논의와 반성을 유발(誘發)하는 조그만 계기라도 될 수 있다면 망외(望外)의 기쁨이 될 것이라 느끼면서 각필(擱筆)한다. (끝)

국민 유대 강화의 길

군과 민이 공고히 단합하여 상호 부조해서 전선에 임할 때 우리의 주권은 비로소 견고해질 것이며 국민의 안녕 질서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군 스스로가 무적 강군으로서의 기틀을 닦아 국민들의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군민 협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심 없는 공정한 태도와 특권의식을 제거함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에 있어서 하나의 모토로 삼아야 할 일이다.

모든 군인은 민간에 대해서 조그마한 특권의식도 갖지 말고 항상 동등한 국민의 입장에서 언행을 취해야 할 것이다. 민간인들이 군내에 출입함에 있어 지나친 언사로 대한다거나 군인들이 민간에 대하여 불손한 태도로 임한다든가 하는 언행을 결국 어떤 특권의식에서 오는 하나의 여파일 것이다. 그런데 언행에서 이는 민간인들의 감정은 군인들에 관한 비난을 사게 되고 군인을 경원하는 결과가 되며 나아가서는 군을 불신하게 되고 협조하는 정신을 없게 하여 군과 민은 보이지 않는 간격을 두고 대하게 되어 모든 일에 일치 협동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인은 모름지기 자기의 조그마한 부주의로 인해서 군민 협동에 금이 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세계(世界) 경이(驚異) 순례(巡禮)>

성(聖) 미카엘 산(山)

리타드 하리바톤

북쪽 불란서 노르망디 반도 해안에서 반마일(0.8킬로)쯤 되는 곳에 묘하게도 바위투성이의 조그만 섬이 하나있다. 이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자연의 혜택을 받은 섬의 하나로 세계경이(世界驚異)의 보고(寶庫) 가운데서도 가장 빛나는 보석의 하나라 할 것이다.

까르카손느와 마찬가지로 이 섬의 역사도 분명치가 않은데 고대(古代) 로마시대 보다도 더 오랜 옛날부터 이 섬은 이교도(異敎徒) - 기독교 이외의 종교를 믿는 사람 – 의 성지(聖地)로서 울창한 삼림(森林)에 뒤덮인 바위산 꼭대기에는 이교(異敎)의 신을 모신 사당(祠堂)이 있으며 얕고도 편편한 해안은 때때로 영국해협의 바닷물에 씻기 우기는 하지만 그대로 육지와 맞닿아 있었다.

그 후 자세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로마군대가 북구(北歐)에 쳐들어와서 이곳에 있는 이교 사당을 없애버리고 그 대신 주피터 신을 모시는 사원(寺院)을 세웠다. 그러나 그 후 기독교가 들어오자 쥬피터 신은 다시금 추방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초기의 기독교들은 삼림 속에 있는 자연의 제단(祭壇)에 마음이 끌려 먼저 사원이 있었던 자리에 신을 찬미하고 기도를 올리는 조그만 예배당 하나를 세웠다. 불란서의 수호신(守護神)성 미카엘의 덕을 찬양해서 세운 이 예배당은 그 후 개종자(改宗者)나 순례자(巡禮者)들이 많이 찾아와서 2세기 동안에 크고도 훌륭한 집이 되었다.

서기 725년의 어느 날 성직자(聖職者)들이 교회에서 경건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을 때 느닷없이 대지가 크게 흔들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고 깜짝 놀라 창문 쪽으로 몰려들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큰 지진(地震)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진과 더불어 해일(海溢)이 크게 일어나 교회 밑으로는 산더미 같은 물결이 무시무시한 기세로 들어 닥쳐 그 앞에 있는 것은 모조리 휩쓸어갈 정도였다.

그러나 바다물결이 아무리 미친 듯이 달려들어도 이 바위산은 꿈적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얕은 곳에 있던 모든 지상물(地上物)들은 거센 물결이 깨끗이 쓸어가 버렸다. 성직자들은 이 불의(不意)의 참변을 꼼짝 못하고 바라다 볼 수밖에 없었다.

해일이 가라앉았을 때는 벌써 산 둘레는 바다로 변하여 성 미카엘은 하나의 섬으로 바뀌어 진 것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일시적인 섬이 되었을 뿐이어서 하루에 오전과 오후 두 번에 걸쳐 12미터 높이나 되는 밀물이 닥치면 높이 솟은 산언덕 둘레는 전부 물에 찼다가 물살이 빠지면 땅바닥이 들어나 800미터나 되는 해안선은 육지와 연결을 지었다. 성직자들은 이 어마어마한 밀 물결을 보고 신의 배려(配慮)를 감사함과 더불어 물결에 씻긴 옛집들을 잃어버린 대신 농사를 고기잡이 일로 바꾸어 성 미카엘 산을 번영하게 하였다.

몇 세기가 지나는 동안 이 거룩하고 소박한 성당(聖堂)은 섬 꼭대기에 높이 솟은 훌륭한 성당으로 바뀌어 그 아름다움과 재산에 있어서 이에

필적(匹敵)할만한 것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되었다. 실로 불란서에서 이 성당만큼 순례자가 많이 모여들며 많은 공물(貢物)을 바치는 곳은 없었다.

바다 가운데 오직 하나 외로이 떠있는 섬! 산정(山頂)에는 첨탑이 붙은 성당이 있고 그것을 둘러싼 중세기(中世紀)식 성벽과 고풍의 집들이 산꼭대기에 관(冠)처럼 눌러앉은 성당을 향해서 들어찬 품이 흡사히 수수께끼 나라의 궁성과도 같다.

이 멋있는 광경을 보다 가까이 보기 위해서 통로 - 이것은 섬과 해안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근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를 빠른 걸음으로 갈 때 섬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높이 솟아오르는 섬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다.

견고하고도 장엄한 문을 들어설 때 우리들은 성 미카엘 산의 성직자들이 두려워하였던 것은 바다뿐이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 당시는 쉴 사이 없이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성당의 성직자들은 기도를 드림과 동시에 성당을 지키는 군사를 거느리고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성 미카엘산 둘레에 성벽을 쌓고 제단 아래에 있는 바위 깊숙이 토굴을 파서 교회에 도전해 오는 적을 막았다.

성벽은 높고 튼튼한 것을 필요로 하였다. 이처럼 모든 것이 풍족한 사원에 대해서는 종종 심한 공격의 화살이 날아 들어왔다. 백년전쟁(百年戰爭)중 - 1340~1450, 영국과 불란서의 싸움 – 영국군은 몇 번에 걸쳐 이 섬을 포위 공격하였는데 북 불란서 일대를 점령한 영국군도 도저히 이 섬만은 함락시킬 수가 없었다. 성 미카엘이 지키는 이 섬은 끝까지 불란서 사람 손에 남아 있었다.

성 미카엘산은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고통을 받았지만 평화로운 시대도 있어서 그러한 시대에는 매일 수백 명의 순례자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집들이 세워져 성벽 안은 여유라고는 없을 정도였다. 이 도시는 둘레가 1킬로 남짓한 데 모두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 콜럼버스가 미국으로 출범(出帆)하기 훨씬 전부터 빈터라고는 없이 사방이 바다에 둘러 쌓여있기 때문에 그 이상 넓힐 수도 없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와 같이 밀집지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우리들은 사원(寺院)을 찾아가기 위해서 가교(架橋)가 걸려있는 비탈진 좁은 길을 지나 언덕길을 식식거리며 올라간다. 그 옛날 불란서의 기사들이 성직자들과 향연(饗宴)을 열었던 조각이 있는 석조 건물의 식당이 지금은 텅텅 비어 적막할 뿐이다. 거기서 다시 호화로운 예배당을 지나 조그만 마당을 건너서면 도시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발코니로 나오게 된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직 정상(頂上)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반향(反響)이 심한 계단을 한걸음 밟으면서 제일 위에 있는 첨탑으로 올라간다. 그 꼭대기에서 볼 것 같으면 성벽은 일직선으로 성당의 토대로 연결되어 눈이 아찔할 정도다. 그리고 가파른 대지(臺地)에 연결된 마을은 바다 언저리까지 퍼져 있으며 그 앞은 바닷물이 차있다. 바로 지금이 만조(滿潮)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만약 끈기 있게 기다린다면 높이 12미터의 조수가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곳의 조수는 다른 곳의 해안처럼 서서히 빠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커다란 물결로 되어 한꺼번에 싹 빠져버려 그 뒤에는 8킬로나 되는 모래바닥을 드러낸다. 그리고 또다시 일정한 시간이 되면 바닷물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닥쳐오는 것이다.

몇백 년 전 옛날 성직자들은 이 높은 곳에서 적군이 간조(干潮)를 이용해서 쳐들어 왔다가 다시 만조(滿潮)를 만나 놀라 달아나는 꼴들을 바라 다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평화가 찾아 왔을 때 많은 순례자들이 간조 때를 기다렸다가 찾아드는 것을 맞이하였을 것이다. 지붕과 벽과 계단들이 무너져서 너절하게 흩어져 있는 마을 풍경가운데서 한 가지 진기(珍奇)한 것이 눈에 띠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무판을 깐 통로다. 이 통로는 기리 90미터, 폭이 약 1m쯤 되는 것으로 바다 옆 성벽에서 성당이 있는 60미터 높이의 지점까지 연결되어

<지상세배(紙上歲拜)>

새해에 복(福)많이.....

송경순

〈62년 미스공군〉

우리의 창공을 수호하시는 공군장병 여러분 새해에 안녕하세요. 명예로운 'Miss Air Force'라는 이름을 얻고 이 글을 쓰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Miss Air Force'로 뽑힌 소감은 어떠냐고요? 저로서는 다만 분에 넘치는 영광으로 밖엔 생각할 수 없으며 오직 감사하고 앞날의 변함없는 애호(愛護)와 지휘편달을 바랄 뿐입니다.

여고를 나온 1년 후 1962년 3월 추위는 아직 가시지 않고 햇 미나리는 새싹이 틀까 말까 할 때..... 그러나 새봄의 입김을 느낄 수 있던 맑게 개인 어느 날 제가 공군에 초년병으로 입대했답니다.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처음에는 그 글자만 보아도 뭔지 공포감이 일 었어요. 제가 11비행단에 처음 도착하여 근무를 시작 했을 때는 정신이 어리둥절하였고 비행복을 입은 사람이 이리저리 나다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키가 큰 사람이 지펴 투성이의 옷을 입고 걸어 오는 것을 보니 겁도 나고 ' 무슨 옷이 저럴까? 생각했어요. 지금은 낮 익은 비행복이나 첫눈에는 참 이상하게 보였어요.

제가 제일 먼저 배속된 곳은 작전처 계획과였고 곧 Hangar 속에 있는 자제 관리실로 갔습니다. 여기서는 고막이 찢어질 듯한 엔진의 폭음 때문에 처음 며칠간은 정신이 어지러웠고 마음이 불안 했어요. 그러나 그 소리와 더불어 저의 일과가 시작되고 끝나고 하는 동안 어느덧 친밀감이 느껴지며 대대표식을 한 전투기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하늘을 향해 올라갈 때면 타자치는 손을 멈추고 생각해 봅니다. '저렇게 높고 푸른 하늘을 마음대로 날으는 그들은 마음 또한 맑고 참될 거라고요.'그러기에 그 소리가 시끄럽다고만 느껴지지 않고 이제는 도리어 비행이 없는 날을 어쩐지 섭섭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저도 공군에 근무할 자격을 가졌는가 보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흰 수건을 팔에 두른 군인들이 방공호 속에 뛰어 들어가 곤하던 날..... 이날이 바로 제가 'Miss Kimpo'로 뽑혀 공보에 갈 자격을 얻던 날이 였어요. 뜻밖에 'Miss Air Force'로 뽑히고 보니 참으로 꿈같았으며 첫 소감은 어리둥절한 가운데 기뻤을 뿐입니다. 저를 후원하여 주신 분들과 하느님께 오직 감사했던 것입니다.

자재 관리실에서 6개월간 근무한 후 현 근무처인 안전관리실로 옮겼어요. 여기는 젊은 하늘의 용사들이 안전을 위하여 일하는 곳..... 그래서 저는 안전관 실에 근무하는 것을 퍽 뜻 깊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언제나 씩씩한 piolt가 안전한 비행과 장병 여러분들의 건강을 마음속에서 빌고 있던 제가 이제는 직접 여러분의 무사고 비행과 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안전관 실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니까요. 안전관실에 근무하는 입장에서 할 말은 없느냐고요? 초년병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저 제가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지요. 그러면 공군 장병여러분,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여 아무쪼록 웃음이 깃드는 생활의 연속이 되길 빕니다.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안전관실)

평행한 두 개의 궤조(軌條)로 받쳐서있다. 안내인에게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가를 물어보니 대답 대신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성당이 세워진 이래 극히 최근까지 이 비탈길은 성당의 엘리베이터로 사용되었는데 주로 식량이라든가 건축자재가 운반되었다. 운반차는 궤조에 달린 쇠로 된 조그만 차륜으로서 그 위에다 버들가지와 엮은 커다란 광주리를 실었는데 승강용 케이블 역할을 새끼줄이 하고 두 사람이 산꼭대기에서 새끼줄을 감아올려 광주리를 들어 올렸다. 이 승강기는 사람을 운반하는 일은 거의 없었으며 다만 전시 중에는 부상병이라든가 혹은 병자, 노인 같은 사람들을 운반하는 수는 있었다.

백년전쟁이 일어났을 때 성 미카엘산을 포위하고 있던 한 영국사관이 간조(干潮)때 아래서 성당을 쳐다보고 있자 문득 이 엉터리 엘리베이터를 발견하고 하나의 계략을 생각해 냈다. 만약 저 엘리베이터를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얕은 성벽 쪽에서 파수를 보고 있는 병사 머리 위를 뛰어넘어 훨씬 꼭대기에 있는 성당 가까이까지 단숨에 우군 병사들을 끄집어 올릴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다.

이리하여 그 영국군 사관은 극비리에 마을에 있는 수비병 가운데 그와 의기 상통하는 몇 사람을 찾아냈다. 그리고 나서 성직자 중에서 네 사람을 금품으로 매수하였다.

영국군 가운데서 선출된 20명의 용사는 무장을 갖추고 매수한 수비병의 안내로 캄캄한 밤을 이용해서 성벽 위로 숨어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두 사람의 승려의 안내로 한사람씩 엘리베이터 광주리를 타면 또 다른 승려 두 사람은 위에서 크랭크를 돌려 광주리를 끄집어 올릴 준비가 전부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맨 처음에 올라탄 영국병사가 위로 끄집어 올려 졌을 때 이와 같은 음모(陰謀)가 성당 경비지휘관에게 발견되어 두 사람의 승려가 맞아 죽자 그 지휘관이 대신 크랭크를 돌려 아무것도 모르고 올라오는 영국병을 모조리 없애버렸다.

별만이 반짝이는 해안 밖에서는 영국군이 성당 안에서의 신호를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다. 만약에 이 음모가 성공하면 성당 테라스에서 봉화가 일어나고 성벽 문이 안에서 활짝 열리기로 되었던 것이다. 만조(滿朝)가 되어 영국군과 성 사이의 통로는 물이 차버리고 아침 햇살이 눈부시기 이 정복되지 않는 선상을 비추기 시작하였을 때 비로소 20명 영국군이 전멸되었다는 소식이 영국군 본부에 전해졌다.

(김영주 역)

현대 철학의 계보

김형석(金亨錫, 연대교수)

현대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현대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문제는 일정치 못하다. 정치적인 현대와 사상적인 현대가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학문의 분야라 할지라도 자라온 과정과 중심내용이 같지 않기 때문에 현대에 관한 시대적 단위도 자연히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현대철학을 어떻게 규정 하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도 학자들에 다라 약간씩 다른 견해가 있는 것은 피치 못할 사정이다. 그러나 현대 철학의 문제와 내용이 언제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렀는가 묻게 된다면 대체로 일치된 해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주로 독일관념론의 마지막 체계가이며 근대철학의 최후의 완성가라고 부름을 받고 있는 헤겔 이후의 문제로 생각되고 있는 때문이다. 헤겔의 사망이 1831년이었다면 적어도 19세기 중엽부터는 현대철학의 과제와 방법들이 움트기 시작했다고 보아서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문제의 형성을 생각해 본다면 약간 시대적인 차이가 생길 것이다. 실존철학의 창설자인 키게르케고르(1813~1855)가 19세기 전반기에 속하는 사람이지만 그의 사상이 현대적 과제로 등단하기는 19세기 말엽에 속하고 있으며 F 니체의 정신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와 깊은 연관을 갖게 된 것도 19세기 후반기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겠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철학으로 향하여 내려온 모든 사조의 발단이 헤겔 이후에 헤겔을 전제로 일어나고 있음은 거의 공통적인 사실로 되어 있다. 헤겔과 시대를 같이하고 있으면서 극렬히 헤겔을 반대한 쇼펜하우어, 그의 뒤를 계승한 니체를 따르는 생철학의 형성도 반 헤겔적인 요소에서 일어났다.

쇼펜하우어와 니체는 헤겔의 지성과 합리를 의지와 생명적인 힘의 내용으로 바꾸었으며 관념과 낙천적인 세계관을 현실과 비극을 동반하는 생명의 문제로 끌러 내렸다. 니체가 초인은 땅의 의미라고 말했지만 확실히 독일관념론의 하늘의 체계를 생활과 지상의 과제로 바꾸어 내린 감이 없지 않다.

이러한 사상적 흐름을 새롭게 받아들여 현대적인 생의 철학으로 환원시켜 놓은 사람들이 있었다. 독일의 W 딜타이(1833~1911), G 짐멜(1851~1918) 그리고 프랑스의 H 베르그송(1859~1941)이 그 대표자들이다.

딜타이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형이상학을 배척하고, 철학이란 세계와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 어떤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 목적이지 결코 절대적인 이론의 체계나 불변의 정신적 원칙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우리들의 삶은 모든 문화, 학문, 역사의 중심이며 생 자체에서 해석해 보는 데 온갖 정신적인 깊은 이해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생의 자각체계를 얻으려 노력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와 뜻을 같이하고 있었던 G 짐멜도 생의 형이상학을 주장하여 세계를 삶의 근본적인 견지에서 해명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독일 철학자들이 영향을 직접 받은 바가 별로 없이 현대적 생명의 철학을 높이 체계지어 준 사람은 역시 프랑스의 베르그송이다. 그는 우리 들의 세계를 창조적 진화라는 넓고도 근본적인 견지에서 취급하여 생명의 창조적인 비약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생명력은 그 자체가 하나의 직관적인 인식력을 가지고 있어 존재의 깊고 근원되는 본질을 파악한다고 믿었다. 헤겔을 위시한 많은 주지적(主知的)인 철학자들이 합리적(合理的)이며 논리적인 사고와 반성을 절대시하고 있지만 그것을 참 존재하는 실재의 주변적 피상을 찾아볼 뿐 그 언어나 논리적인 표현을 초월하는 존재 자체에는 도달할 방도가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러한 계통의 생철학이 십 구세기 후반기에서 거의 최근에 이르는 한 주류가 되어 왔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약간 성격을 달리 또 한 갈래의 반 헤겔적인 철학의 흐름이 나타났다. 흔히 신 칸트학파라고 불리워지는 계통이다. 헤겔을 반대하는 십 구세기 중엽의 철학자들이 칸트에게로 돌아가 그의 과학적이면서도 논리적인 학문의 존귀성을 다시 찾자는 운동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 일부는 마알부르그 학파를 조성하여 H.코오헨(1842~1918), P.나톨프(1854~1924) 같은 철학자들을 내게 했다. 주로 칸트의 순수한 사고를 근본으로 삼는 논리주의를 택하여 엄밀한 합리적 사고와 순수한 이론적 체계에 진리의 근본을 두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약간 성격이 다른 서남학파의 W.빈델반트(1848~1915), H.릭켈트(1863~1936) 같은 뜻 깊은 학자들은 오히려 문화와 가치의 문제를 취급하여 소위 가치철학이라는 새로운 부면을 개척하기에 이르렀다. 오늘 우리들이 항상 듣고 있는 지(知), 정(情), 의(意), 진(眞), 선(善), 미(美)와 성(聖)의 가치관 등이 바로 이때로부터 주어진 개념들이다.

이러한 생철학과 가치철학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서로 대립 반대되는 학설인 것 같았지만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깊은 공통점과 동일한 시대적 사명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신칸트학파의 가치철학, 새로운 철학으로 등단한 생철학이 그 절정을 맞이하고 있을 때 주로 철학의 중심무대가 되고 있는 독일에는 새로운 정신사적 조류가 스며들게 되었다. 덴마크의 사상가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이 강한 영향을 가지고 나타난 신학적인 면에서는 K.팔트(1886~)가 변증 및 위기신학을 선포하게 되었고 그의 인간학적인 면을 받아들인 하이데거(1889~)와 야스퍼스(1883~)는 이미 있었던 가치철학, 생철학 위에 새로운 철학적과제를 꺼내게 되었다.

우리들이 흔히 실존철학이라고 불러주고 있는 철학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존철학을 위하여 가치철학, 생철학의 뒷받침이 역사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으나 키에르케고르와 더불어 니체의 정신이 깊은 영향을 가져 왔으며 현상학의 주도자인 E.후셀(1859~1938)의 방법론이 상당히 큰 방법적 뒷받침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그의 하이데거에의 영향은 대단했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헤겔을 계기로 일어났던 여러 갈래의 철학들이 마침내 하나로 합쳐 새로운 오늘의 철학을 형성해 준 것이 실존철학이며 최근의 프랑스의 G.말셀(1889~), J.P.사르트르(1905~)까지를 합친다면 실존철학이야말로 대륙계통을 대표하는 오늘의 철학이라고 보아서 좋을 것이다.

이러한 철학의 대륙적인 조류가 분열에서 종합에의 과정을 밟고 있는 동안 영미를 중심으로 또 한 갈래의 철학의 사조가 자라고 있었다. 칸트에서 헤겔에 이르는 관념론이 절정에 도달하고 있을 때 비교적 침체한 상태에 머물고

있던 영국도 관념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 칸트와 헤겔의 소개가 그 중요과제였을 정도였다. 신관념론자라 불리워지는 학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륙적인 철학을 떠나 영국 본래의 경험과 귀납의 철학을 되찾으려는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다. G.E.무어(1873~), B.럿셀(1872~), N.화이트헤드(1861~1947) 같은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철학자이다.

이 새로운 철학자들은 대륙적인 관념론을 반대하고 영국 본래의 경험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일면 지금까지 별로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던 새로운 학문의 분야를 개척하기에 이르렀다. 그 중심인물의 한 사람인 B.럿셀은 미국으로 건너가 철학의 특이한 분야를 개척한 화이트헤드와 더불어 과학철학 특히 수리적 분야의 철학적 고찰을 형성하여 새로운 시대의 뜻을 높여 주었다. 뿐만 아니라 후에는 같은 켐브리지 분석학파에 속하는 L.비트겐슈타인(~1952)과 합세하여 논리적 원자론을 주장하여 환원적 분석이론을 전개시켜다. 여기에 무어의 업적까지를 가담시켜 언어분석의 길을 개척한 것은 오늘의 영국철학을 위하여서는 잊을 수 없는 공적이 된 셈이다.

그 뒤 이들의 방법과 철학적 내용을 주로 옥스퍼드학파가 계승하여 일상 언어의 분석을 통한 새로운 철학에의 길을 개척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현상이 공교롭게도 미국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본래 미국은 고유한 철학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문화적인 연령이 얕을 뿐만 아니라 고유한 철학을 형성할 만한 전통과 기간을 지니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역시 충분히 이해되지 못했지만 헤겔적인 관념론이 전해져 왔고 영국의 공리주의 사상이 학문과 사상계의 대표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었다.

그때에 심리학에서 철학으로 전환한 W.제임스(1842~1910)가 나타나 비로소 미국적인 철학을 형성하게 된 것이 오늘의 실용주의가 된 것이다 쉘러(1864~1937)같은 철학자가 그것을 인본주의로 전개시켰는가 하면 J.듀이(1859~1952)가 그 뒤를 계승하여 미국의 대표적인 철학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주로 영국계통의 경험론과 공리주의를 받아들여 미국적인 철학을 형성하기에 이르렀음으로 대륙적인 합리론 독일적인 절대적 세계관이나 고원한 형이상학을 배척하고 있다. 그들이 뜻하며 주장하는 철학의 원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열매 많은 것은 곧 진리이다.'는 명제일 것이다.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형이상학의 일원론 절대적인 원리 등을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어떻게 현실에 도움이 되며 경험세계에서 참과 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선결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한 때 자유를 기반으로 한 인본주의로 변형되며 우리들의 세계는 우리들의 인격과 자유가 만들어 가는 그대로 되어지는 것임으로 인본주의적 개척과 창조가 근본이라는 주장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듀이에 이르러서는 사고의 반성(反省)은 그 자체가 중심이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행동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에까지 도달했다. 진리(眞理)가 따로 있다기 보다는 어떻게 참되게(Truth) 행하는가 하는데 중심이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어떻게 보든지 미국이 아니고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경험과 실제의 철학이라고 보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실용주의철학이 절정에 도달하고 있을 때 미국은 뜻하지 않은 철학자들을 유럽으로부터 받아들이게 되었다. 나치정권에 밀려 대륙을 떠나는 철학자들이 아유의 나라 신대륙을 찾아온 때문이다.

그때 유럽에는 비엔나를 중심으로 비엔나 학파가 조성되어 철학을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재정리하며 엄밀한 과학으로서의 철학이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 높아졌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최근 미국에서 작고한 라이엔바흐를 중심으로 하는 과학철학의 집단이 베를린에도 일어나고 있었으므로 이 두 학파가 합세하여 하나의 큰 세력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이 전폭적인 학문적 활동을 전개하려는 대 나치의 탄압은 절정에 이르렀고 그들의 대다수는 할 수 없이 망명을 택하기에 이르렀다. 미국 철학계가 바로 그 혜택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들이 비엔나를 중심으로 하는 논리 실증주의라 불러주는 철학적 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그들을 받아들인 미국 철학계는 새로운 발전과 향상을 개척하게 되었다. 과학정신과 더불어 분석에의 방법을 짧은 기간 내에 미국적인 것으로 개조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본래가 비엔나학파의 논리실증주의는 럿셀, 비트겐슈타인의 영향도 받았던 바임으로 이 두 갈래의 영국적인 것과 미국적인 것은 근본적인 일치점을 가지는 것이 정당한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대륙적 사고성을 많이 띤 미국에 있어서의 논리실증주의는 영국과 같은 현실성보다 아직은 대륙적인 원리론에 많이 치우치고 있다. 영국이 일상적인 언어를 분석함으로 철학의 유일한 방도를 삼고 있는데 비하여 지금까지의 미국은 역시 의미론적인 분석철학을 택하고 있는 것이 그 중요한 성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대륙의 실존철학과 비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현대철학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의 영국과 미국철학을 종합한 논리실증주의, 즉 분석철학이라 보아서 온당할 것이다. 전자가 독불의 대륙을 무대로 삼고 있다면 후자는 어디까지나 경험과 실제의 영미를 무대로 전개되어 가고 있다. 또 그 연대에 있어서도 실존이 이미 철학의 오후에서 저녁때를 맞이한 감이 없지 않으나 분석철학을 바로 오늘의 철학 같은 절정기를 보여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현대철학이 이상의 두 가지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공산주의의 뒷받침이 되고 있는 맑스주의도 하나의 철학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지금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신스콜라철학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맑스주의는 이미 철학으로서의 학문성을 떠난지 오래 되었으며 그것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흡수되어 학으로서의 본질과 생명을 상실했으니 우리는 더 취급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스콜라 철학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역시 카톨릭의 철학임을 자타가 인정하는 한 여기에 특별한 설명을 가하지 않아도 좋을 것으로 믿어진다.

앞으로의 제한된 지면과 내용은 주로 실존철학과 분석철학에 국한시켜 좋을 것이며 19세기 후반기에 많은 분열을 가지고 출발했던 철학이 오늘과 같은 두 개의 조류로 통일된 이상 이 둘을 정리 연구해 본다는 것은 곧 현대철학 전반에 걸친 내용을 살핀다는 것과 결과에 있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EEC란?

구주공동시장(EEC)의 눈부신 발전은 세계 경제동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것은 서구 6개국-프랑스, 서독, 이태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이 하나의 통일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미, 소의 경제력과 필적하는 인구 1억7천만으로 된 하나의 경제권(經濟圈)이 새로이 등장하는 것이므로 세계경제의 세력분야에 일대 전기를 가져오게 된다. 여기에 재작년 여름 영국이 가입신청을 하게 되어 목하 교섭 중임으로 이것이 실현 된다면 더욱 강대한 힘이 된다.

EEC는 미, 소 양대 세력의 틈바구니에서 현저히 쇠퇴(衰退)해가는 감이 있었던 구라파 여러 나라의 부흥을 위해 과감한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던 중, 구주(歐洲)석탄 철강공동체가 순조로운 발전을 하여 1957년 3월 소위 로마조약의 조인에 의해 구주 공동시장-원명의 구주경제공동체-가 구체화되었다.

이 조약은 1958년 1월 1일 발효(發效)하여 1년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1959년 1월 1일부터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들 국가 간의 각종 산업과 교역의 조절합리화로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고 공산권과의 경제적 대결이란 점에서도 지대한 의의를 내포하고 있다.

서방(西方)에의 Knock

- 소련의 자유주의 젊은이의 동태(動態) -

이 글은 미국의 소련관계 연구가인 솔즈베리씨의 '소련 재방문기' 중에서 신구 · 좌우의 대립 항쟁을 주로 한 내용만을 초록한 것이다.

H.E.솔즈베리

<취한(醉漢)의 횡행우심(橫行尤甚)>

스탈린주의자에 의한 오랜 억압과 遲遲不進의 생활수준의 향상, 당과 그 목표의 허위·위선은 젊은 세대에게 악영향을 가져왔다. 취한(醉漢)의 횡행과 싸움은 조금도 드문 일이 아니다. 모스크바의 5번가인 콜키이가에 면한 건물의 문 앞에는 취한이 쓸어져 자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모스크바의 부다페스트 레스토랑에서 젊은 주정꾼들끼리 난폭한 격투가 하도 많아서 종업원들도 예사로 보고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환멸(幻滅)이 어느 정도 뿌리 깊은 가는 간단한 말 한마디로도 알 수 있다.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인부가 택시를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하면 화가 꼭지까지 치밀어 올라간 운전사가 어깨를 들먹이며 "보트 라보치 크라스"(이 노동계급아!)

지하철의 지하도를 재빠른 걸음으로 걸어온 한 부인(婦人)은 돌연 옆으로 와서 외국인에게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공산주의가 뭐냐'하면서 침을 틱틱 뱉고 다시 '공산주의가 뭣 말라죽을 것이냐'고 하면서 걸어 가드라는 것이다.

현재 소련의 네오스탈린주의와 자유주의파의 어느 편이 승리할 것인지 지금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어떤 소련인은 국제간의 동향이 그것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오늘의 소련사회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강하고 깊은 특징은 서방측 및 자유화의 이상에 확연히 방각(方角)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인문지식에 관한 보다 진보적인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사상계의 지도자들은 맑스주의 사상의 언제나 변함없는 유물주의보다는 인문주의적 이상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잃어버린 세대>

소련의 목표에서 이탈되어 새로운 머리형에서부터 민주적 자유에 대한 신념에 이르기까지 서방측의 것이라면 무조건 끌려오는 '잃어버린 세대'가 소련 내에 나타나고 있다.

이들 젊은이는 처음부터 공산주의 아래 커서 맑스주의적 환경의 생활밖에 모르며, 그 대부분은 제2차 대전이나 스탈린을 기억하고 있지도 않은 공산당에 있어서는 절망의 종자로 되어 있다.

일부청년은 깡패가 되고 범죄자로서 뉴욕의 비트족과 같은 류가 되어 있으며 빠리 세느강좌안의 실존주의자의 소련판이다.

깜깜한 밤을 이룩하는 지방에서부터 네온이 반짝이는 모스크바의 골키로에 이르기까지 (젊은 층은 이 거리를 브로드웨이라고 완강하게 부르고 있다.) 15세에서 25세까지의 세대는 서방측의 동시대 또래와 같이 허무적 반항에 일어서고 있다.

당의 선동자들은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으며 또 공산청년동맹원들은 때를 지어 그들을 위협하고 레스토랑이나 끽다점(喫茶店, 다방)에서 추출(追出)하여 귀가시키고 있다. 게시판에는 '기생충들이여 나가라'고 쓴 제목아래 그들의 사진이 붙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시베리아의 처녀지 돈은 건설공사장에 송치(送致)되고 있다. 그러나 당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지루하고 허무적이며 방향을 잃은 그들의 세대의 충성심이나 열의를 되돌려 세우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들의 최대의 패배이다"라고 중년의 당원은 이것을 시인하고 "젊은 층이 이상을 버렸으니 그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마음으로 반항하고 서방 스타일의 양복을 입고 될 수 있는 한 서방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재즈는 소련을 풍미(風靡)했다. 당에서도 손을 댈 수가 없다. 모스크바의 밴드도 서방음악의 레파토리를 연주하고 있다. 연구가 중지되면 미국의 소리 방송중의 미국음악이 녹음(綠陰)된 테이프레코드로 바뀐다. 룸바, 삼바, 맘보, 차차차 등 미국의 댄스를 춘다.

<트위스트를 동경하고>

한편 소련청년들은 중남미 청년들이 즐기는 댄스는 버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트위스트가 유행 될 것을 고대하고 있다. 그들은 트위스트 열(熱)을 알고 있으며 트위스트를 비난 공격하는 선언에 붙어있는 흐릿한 사진으로 트위스트를 보고 있다.

그러나 모스크바에서는 극소수의 외교관을 제외하고는 트위스트 춤을 아는 사람은 없다. 이들 소련청년들이 다른 나라와 같이 트위스트 춤을 즐길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외국인만 만나면 거의가 트위스트는 어떻게 추는 것인가?를 묻고 가르쳐 달라고 조른다. 모스크바의 레스토랑이나 극장에서 소련의 많은 청년과 외국인을 구별하는 것은 곤란하다. 여자의 아리따운 금발을 벌집형이 아니면 이태리나 불란서식으로 머리형을 틀고 있다. 이브닝드레스는 멋지게 맞추고 짧은 칵테일 드레스를 즐기며 어개와 팔을 그냥 들어 내놓고 있다. 그들이 즐기는 것은 서방의 나이롱 옷감이다. 또한 많은 여성들은 품위 있는 하이힐로 통한다.

또한 보이 프랜드의 우상인 브리짓드 발도우를 그대로 흉내 내고 있다. 그런데 B.B의 영화는 모스크바에서 공개되지 못했다. 비공개로 특정인이 본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B.B의 사진을 보고 흉내 내고 있는 것이다.

다방에 가면 포니테일 형의 머리를 틀고 검은 면(綿) 스타킹을 신고 밑이 평평한 구두를 신었으며 그 외 바레이 스타일의 흉을 낸 여자를 만나기 쉽다. 그녀들은 에스코트를 하고 있는 것은 보통 턱수염을 기르고 엷은 갈색바지를 입은 청년들인데 이들의 형(型)은 미국이면 어디선지 볼 수 있다.

당은 차차차와 같이 턱수염이 질색이다. 그런데 쿠바의 카스트로가 턱수염을 길렀기 때문에 비난할 수도 없다. 그러나 매일 턱수염을 깎으라는 설교가 행해지고 있다. 극장이나 만화에는 나체 모양이 든 화사(華奢)한 넥타이를 매고 회중시계(懷中時計)를 긴 쇠줄에 달고 있는 태양족의 풍자가 나와 있다.

<여행자 통해 서방소식>

소련의 젊은 세대는 폴란드 신문이나 이태리의 우니타, 프랑스의 유마니테, 런던의 데일리 워커 등에서 서방측 공산기관지를 읽고 있으며 서방의 대표적 신문 잡지는 들어오지 않지만 여행자에 의해서 타임, 라이프, 보그 등을 손에 넣고 있다.

또 하나의 근원을 반서방적영화다. 젊은 층은 이런 영화를 꼭 거꾸로 보고 있다. 그 영화는 아메리카의 이창(裏窓)·아메리카 이것저것인데 이것은 미국의 양식을 부정하는 기준으로 상영되고 있는데 소련청년들의 대표적 반응을 든다면 다음과 같다.

아메리카의 이창(裏窓)을 봤냐. 응 굉장한 영화야. 미국의 생활이란 그만치 재미있는지 우리들은 죽고 싶어. 미국에는 정말 자동차의 기지가 있을까. 정말 틴 에이져의 갱이 있을까. 그들은 정말 싸우고 있을까. 정녕 서로 고급자동차를 충돌시키는 것일까. 자동차는 얼마나 할까. 중고라도 탐이 난다. 등등의 감탄사와 흥분상태에 이르게 한다.

미국과 같이 소련의 젊은 층도 음어(陰語)를 즐기며 그들 사이에만 통용한다. 그들은 서로 젠틀맨이라고 부르며 회화에는 팁톱(TIP, TOP)(미속어 특별상등) 또는 OK라는 말을 난발한다. 그러면 이들 청년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이들 세대에 동정적인 젊은 평론가들은 예리한 연구를 거듭하고 있지만 당은 이들 평론가 자신이 잃어버린 세대에 속해 있다고 곧 비난하고 있으나 아무런 근거도 없다.

이완 쿠르라노프의 극에 등장하는 청년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정통파의 일인이 되는 것은 무의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그런 짓을 할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구역질이 난다. 진부한 진리 따위를 왜칠 노래는 필요 없다. 내가 권력을 잡으면 이따위 큰 소리 치는 것은 금지다."

빅토르 로조프의 시나리오에 나오는 청년은 모친이 행실을 잘하라고 타이르며 대답한다.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듣고 있는 것은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라는 말뿐이다. 무엇을 하라고 내가 할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도망친다. 그러면 그의 걸 프랜드는 말한다. "잘 알겠어요 당신은 지금 화가 났고 생각하고 있어요. 단지 혼자인 나도 그래요. 그래서 이따금 나는 돌연 적적해서 어떻게 외로운지 몰라요. 당신은 누구에게도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보여요. 당신은 울고 있군요. 나도 울고 또 울어서!" 그리고 더욱 심한 무뢰한이 된 청년은 인생에서 무엇을 바라느냐는 물음에 답한다.

"나의 멋진 희망 그것은 누구든지 심장마비는 되고 싶지 않아 나의 희망 그것은 술·레스토랑·재즈·돈·여자·자동차·별장 등 신사가 가질 전부다" 이러한 반응에 고세대(古世代)는 반감을 가지고 있다.

<항공발달사>

제트 시대(時代) 도래(到來)

클레이톤 나이트

1943년은 대전 중이었기 때문에 항공기 탄생 40주년은 거의 주의하는 사람도 없이 지나갔다. 당시에 아직 생존하고 있었던 라이트 형제 중에 오빌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그들이 이 기계를 발명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한바가 있었다. 그것은 두 번에 걸친 대전에서 비행기는 무서운 병기로 발달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라이트 형제는 비행물체 이상의 것을 창조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라이트 형제는 그 과학적 기술을 독학으로 길렀던 것인데 그들의 발명으로 많은 젊고 우수한 전문과학자들은 연구심을 자극받아 항공기를 안전하고, 빠르고, 보다 유용(有用)한 것으로 발전시키는 기술을 닦는데 몰두(沒頭)하였기 때문이다. 경험만이 밑천인 사람들의 지위는 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넓은 기초를 가지고 라이트 형제처럼 열심히 항공학(航空學)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 출신의 청년들로 대체(代替)되었다. 그들은 계산척(計算尺)을 가지고 고양력곡선(高揚力曲線), 새로운 날개모양, 새로운 금속을 실험연구하며 엔진에 정교한 개량을 가하여 항공기의 속도를 라이트 형제가 수립한 시속 24마일에서 400마일 가까이까지 끄집어 올렸던 것이다. 이리하여 재래(在來)의 피스톤식 엔진으로는 더 이상 속도를 빨리할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애로(隘路)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미지의 연료를 만들어 내든가 추진방법을 완전히 달리하든가 할 수 밖에없었던 것이다.

제2차 대전 말기에 시험적으로 모습을 나타낸 터보 제트 기관은 이 동력문제의 해결책을 이루는 것이었다. 제트 추진의 원리는 그 전부터 알려지고는 있었던 사실이다. 그것은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풍선이 단적인 예증(例證)이 된다. 즉 풍선에 공기를 집어넣었다가 한꺼번에 바람을 빼면 풍선은 급속히 상승(上昇) 한다는 원리가 그것이다. 1922년에 벌써 미국정부는 제트엔진의 제작을 목푤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었는데 공군 당국은 접수한 연구보고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 당시 이태리, 독일, 영국 등 각국의 기술자들도 이와 같은 연구를 거듭하고 있었는데 전쟁의 위기(危機)가 급박해짐에 따라 각국 정부는 이 실험을 극비(極祕)에 부쳤다.

1941년 아놀드 대장은 영국을 방문하여 전시 중의 군용 항공력을 시찰하였는데 그때 영국에서는 이 계획이 상당히 발달하여 실제로 제트기가 비행할 수 있는 단계에 있음을 보고 놀랐다. 그때 독일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다는 정보가 전해지고 있었다. 비버부르크경(卿)이나 영국 항공생산성(航空生産省) 기술담당 자나의 노력으로 아놀드 대장은 제트기관에 관한 청사진(靑寫眞)과 사양서(仕樣書)의 제공을 받아 미국으로 가지고 돌아왔다. 그는 귀국하자마자 특수한 기체(機體)제작은 벨 항공기 회사에, 그리고 엔진은 제네럴일렉트릭 회사에 엄중한 기밀보지 밑에 각기 제작할 체제를 갖추었다. 아놀드 대장은 중량이 불과 650파운드 밖에 안되는 호이틀 엔진이 1650파운드나 되는 롤스로이스 마린 발동기보다 출력이 크고 또한 가동부분(可動部分)이 20퍼센트나 적다고 하는 사실에 커다란 감명을 받았다. 그러나 막대한 연료를 소비하게 되는 것이 커다란 결점이어서 알콜, 디젤, 중유(中油), 케로신, 따위로도 제대로 작동(作動)시킬 수 있다고 영국공군은 말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중대한 문제였다.

프랭크 호이틀은 영국공군 장교로서 1936년부터 제트 추진기관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1928년 아직 그가 공군사관학교의 생도였을 때 이미 그 원리에 관해서 논물을 썼던 것이다. 이 엔진은 드디어 그로스타 단엽기(單葉機)에 장비되어 1941년 5월 14일 처음으로 처녀비행을 하였다.

호이틀 제트엔진의 추력(推力)은 고열(高熱)로 압축된 공기가 커다란 미통(尾筒)에서 배출될 때의 반동에 의해서 얻어졌다. 공기는 엔진 앞에서 빨아드려져 압축기에 의해서 압축되면 기관 주위를 둘러싼 것처럼 배치된 일군(一群)의 연료에 들어가게 된다. 거기서 액체연료를 주입(注入)혼합하여 점화(點火)플러그에서 점화된다. 열을 받아서 생긴 폭발가스는 뒤쪽의 압축기를 돌리는 많은 날개가 달린 터빈 부채바퀴에 부딪친다. 이리하여 부채바퀴는 1분간에 약 20,000회전을 하는 것이었다.

미 공군은 이미 많은 야금학(冶金學) 전문가들을 등용(登用)해서 항공발동기용 터빈 날개 고장에 대한 대책을 세워 왔는데 아놀드 대장은 이 문제에 관한 더 한 층의 원조가 필요함을 깨달았다.

아놀드 대장이 처음으로 제트기 비행을 본지 1년이 지난 후에도 영국에서는 불과 3대의 실험기 밖에는 제작하지 못하였는데 1944년까지에는 제트기는 벌써 월산(月産) 40대로 증가되고 구라판 전쟁이 끝나기 5개월 전 즉 1945년 3월에 아놀드 대장은 독일 공군 중위가 독일의 ME-262형 쌍발 제트기를 몰고 연합군 측에 투항(投降)해 와서 이미 베를린 방위를 위해서 제트기가 실전에 참가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 후일에 안 일이지만 독일은 폴란드 침입 직전인 1939년 8월 27일에 하잉켈 HE-178형으로 제트기를 날리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 최초의 제트기, 벨XP-59 에어러 코메트는 1942년 10월 1일에 처음으로 비행하였는데 독일이 항복한 후 미국의 기술자들은 독일의 제트 전문가의 원조로 몇 종의 실험기를 제작하였다. 처음으로 생산된 제트기의 하나인 록히드 P-80 슈팅스타 전투기는 속도기록 비행을 해서 전시중의 시속 400 마일이었던 것을 일약 시속 624마일로 올렸던 것이다. 이리하여 제트의 유리함은 널리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해군과 육군에서 독립한 공군은 독립과 더불어 제트 추진으로 전환을 개시하였다. 먼저 제트 전투기가 출현하고 이어서 피스톤식 폭격기도 점차 자취를 감추어 갔다. 보잉회사가 제작한 6발 제트 폭격기 B-47은 스트라트 제트는 시에틀에서 워싱턴까지 불과 3시간 46분이라는 속도로 날았다.

그러나 이렇게 제트로 전환이 되는 동안에도 긴급사태에 대비해서 피스톤식 항공기를 당분간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 4개년에 걸친 대전에서 육군항공부대만도 총계 108,015,909시간이나 비행한 각종 기종은 아직 구식화되지 않았다.

공중으로부터의 원조를 필요로 하였던 최초의 긴급사태는 1948년 겨울 소련의 베를린 봉쇄였다. 300만 이상의 시민을 추위와 굶주림에서 지키기 위하여 미영 양국은 베를린에 생활필수품 공수를 개시하였다. C54, C47 등 각 수송기에 의한 이 베를린 대공수는 소련지구 밖에 있는 미국이나 영국기지에서 연일연야(連日連夜) 악천후를 무릅쓰고 식량, 약품, 석탄 등 생활필수품을 연속적으로 수송하였다. 그리하여 13개월 후 서방측과 소련측간에 화해(和解)를 보아 1949년 5월 12일 공수는 끝났다.

이해로 말하면 새로이 중요성이 증대하기 시작한 공중급유(空中給油) 기술이 그 유리함을 입증하였다. 공군의 B-50형 공중요새 럭키 레디호는 세계일주 연거리(延距離) 23,452마일을 네 번에 걸친 공중급유를 받아 무착륙으로 비행하였다. 그런데 소요시간은 불과 94시간이었다.

제2차 대전 말기까지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새로운 공군을 만들어냈는데 전쟁이 끝나자 '아들과 남편을 집으로 보내 달라'는 운동이 일어났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나 일반 국민이 찬동함으로서 극히 짧은 시일 내에 미군 병력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괴뢰가 남한에 침입하였을 때 즉시 대한민국을 원조할 형편에 처했다. 일본에 위치하던 미 공군은 극소수의 슈팅스타와 피스톤 엔진을 장비한 무스탕 전투기로서 그 밖에 벌써 구식화(舊式化) 되어버린 B-29 폭격기가 오끼나와에 많이 주둔하고 있었다. 한반도(韓半島) 상공에 새로운 미지(昧知)의 제트 전투기가 출현하기까지 이러한 비행기로 전투나 폭격작전을 계속하였다.

미군은 초기의 지상전투에서 많은 고난을 겪은 이래 본국에서 보내온 F-48 썬더 제트와 F-86 세이버 제트와 같은 신식 제트 전투기를 한국전쟁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개전 당초에서부터 이 34개월에 걸친 전쟁은 시시각각으로 미묘하게 전변(轉變)하는 전술을 필요로 하였으며 이때까지의 상식적인 작전방식은 특수한 지형(地形)이나 공산군의 색다른 전술 때문에 제대로 응용되지 못하였다.

공산군은 연합군에 대한 폭격을 여간해서는 하지 못하였는데 한만(韓滿)국경 부근의 보급로나 수력발전소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받음에 있어서는 소련 미그 전투기가 대량으로 나타났다. 한반도의 면적은 뉴욕주 정도 밖에는 안 되지만 중형폭격기가 없기 때문에 미 공군은 항속거리가 3,000마일이 되는 B-29 폭격기를 전술 협동작전에 사용하였다.

맥아더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지원한 미국 해군부대는 항공모함들을 한국의 양쪽 해안(海岸)에 항시 정박시켜놓고 지상 작전 엄호를 위한 항공기를 발착시켰다.

개전초기에 있어서 미 공군 전투기들은 일본 기지에서 출격하고 있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에는 고속 제트기가 용이하게 이착륙 할 만한 기지가 미미한 형편에 있었다. 결국 이와 같은 결점을 보강(補强)하기 위해서 해군의 항공모함을 한국 해역(海域)에 많이 배치하여 불시착(不時着)용 이동기지로 사용하게 되었다. 레이다는 특히 한국처럼 안개가 짙게 끼는데서 조종사에게 있어 없어서 안 될 중요한 것이었다.

산정(山頂)이나 이동 트럭시설에 자리 잡은 조작원들은 B-26 경폭격기를 쫓아가면서 구름을 뚫으면서 비행하는 조종사에게 탄창(彈倉)을 열게 하고 카운트를 가르 키고 그리고 폭탄투하(爆彈投下) 지시를 하였다. 공중전이 압록강 연안(沿岸) 상공에서 벌어지게 되자 – 미그 소련 전투기는 연료관계로 항속 거리가 짧다. - 조종 경험자들은 지상관제사(地上官制士)들이 되어 후퇴익(後退翼)을 가진 세이버 제트기를 어버이처럼 돌보았다. 그들은 미그 전투기가 불의에 출현 하였을 때는 경보(警報)를 발하거나 혹은 적기를 추격하던 나머지 한만국경선을 넘어설 것 같은 우군기(友軍機)를 불러드리기도 하였다.

비행기 유도용으로 고안된 전자장치와 더불어 활약한 것은 고속 제트기나 전투 목격기를 길잡이처럼 안내한 T-6 모스키트기였다. 이들 연습기는 교묘하게 감추어진 목표를 찾아내어 표적이 될 수 있도록 로케트 탄을 발사하고는 그 다음에도 명중(命中)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상포화 속을 몇 번이고 비래(飛來)하였다.

이런 가운데 제트기와 제트기의 공중전이 한만국경 부근 고도(高度) 40,000피트 상공에서 벌어졌다. 이 사상 최초의 제트기 대 제트기의 공중전은 1950년 2월 8일에 행해졌던 것이다. 미 공군의 세이버 제트 전투기는 미그-15 전투기와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미 공군 조종사들의 우수한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자동조준장치와 기관포의 발사속도가 우수한 세이버 제트기는 소련 전투기에 대해 13대 1이라는 격추율(擊墜率)로서 훌륭하고도 성공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세계 최초의 제트 에이스인 제인스 자바라 소령은 다른 30명의 한국전쟁 에이스들과 마찬가지로 제2차 대전에 있어서 역전(歷戰)의 용사였다.

그를 비롯해서 구식 전투기 조종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른 많은 조종사들은 전투의 기본 기술은 제트기나 구식비행기나 거의 같은 것이지만 오직 하나의 예외로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훨씬 사격(射擊) 기회가 짧아 회수(回數)가 제한을 받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불리한 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자동식 사격조준기가 발달하여 적기가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면 금반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도록 되었다. 파난데스 대위의 말을 빌리면 곤색 모포와 같은 지상으로부터 수마일 상공에서는 위치를 정하는데 편리한 한조각의 구름조차 없는 가운데 고도에서의 공중전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곤란한 문제를 조종사들이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초음속(超音速) 제트기로서는 격파되면 낙하산을 이용해서 탈출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중대한 문제의 해답으로서 새로이 좌석사출장치(座席射出裝置)가 완성되었다.

이것은 핸들을 누르면 조종석의 캐노피가 날아가면서 조종사는 좌석과 함께 기체(機體) 밖으로 사출(射出)되는 장치로서 오늘날 제트기는 모두가 이것을 장비하고 있다.

얼마간의 미공군기가 추락된 압록강 상공은 레이다, 무선기, 좌석사출장치, 그리고 낙하산 덕분으로 능률적으로 구난작업이 행해져서 물속에 떨어진 조종사들을 지체 없이 헬리콥터는 머리 위를 서서히 날아 조종사를 줄로 끄집어 올려 몇 분 사이에 기지로 데려오고는 하였다.

제트기의 실전(實戰)활약과 더불어 전에는 과소평가(過小評價) 되던 헬리콥터의 발달과 전장에서의 활약상이 바야흐로 국방당국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공군은 물론 지상군 장병들도 다 같이 헬리콥터에 감사할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구름 사이로 혹은 산마루 저쪽에서 폭음을 울리며 날아온 헬리콥터는 부상병을 전선(戰線)에서 신속히 후방병원으로 이송(移送)하며 거의 기어 올라갈 수도 없는 산꼭대기에 무거운 병기(兵器) 기재를 끌어 올린다던가 짚차 로도 어려운 산악지대의 수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속도가 빠른 제트기와 대조적으로 헬리콥터는 필요하다면 공중에서 정지할 수가 있으며 깊은 산속에서 총격을 받고 있을 불시착 조종사의 소재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1953년 휴전협정이 성립되기까지 제트기가 실용화 된 지 15년이 경과하였다. 실전에서 얻은 제트기의 약점이나 경험에 비추어 그 후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제트는 여객수송기에도 응용되게 되었다. 제트엔진은 개량을 거듭하여 연료소비량도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아직도 충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많은 과학자들은 보다 진보된 원자력을 항공기 동력에 응용할 준비를 개시하고 있다.

사회의 존립을 위한 질서(秩序)

불과 몇 식구밖에 살지 아니하는 가정에도 은연중(隱然中) 관습적으로 행위상의 규범과 질서가 서 있어 가정이라는 하나의 소집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하물며 군대와 같이 다수 인원이 한곳에 모여 집단을 이루고 있는 곳에 질서가 없을 수 없는 것이다.

군대는 상하의 순차적 차례로서 그 조직이 이루어져 있으며 이로써 지휘, 추종, 지배-복종의 관계를 규정하고 그 조직체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급자와 하급자가 존재하게 되며 상급자는 상급자의 응분한 직능과 권능이 있고 하급자는 하급자에 응분한 직능과 책임 있는 것이다. 이 상이(相異)한 직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집단 전체의 임무수행을 위하는데 하나의 윤리(倫理)가 세워지는 것이니 이렇게 하여 세워진 윤리를 부정함은 군대사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어떠한 소집단에 있어서도 이러한 질서가 존재하는데 하물며 군대와 같이 고도로 조직화된 대집단에 질서라는 것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가끔 기타 여러 곳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군이라는 하나의 집단에 소속하고 있으면서도 이전의 상태만을 중시한 나머지 군이 지니는 질서를 무시하는 예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는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 하겠다.

그러나 질서유지를 중시하고 지휘, 추종, 지배-복종 관계의 확립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이를 강종한 나머지 비인도적인 면으로 상하관계가 맺어지도록 하여서는 결코 아니 된다. 군대라는 하나의 집단이 지니는 성격상 자칫하면 상하의 관계가 비인간적인 면으로 치우치기 쉬운데 이러한 난점은 믿음과 사랑의 원리로서 지양시킴으로서 인간적인 것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상급자는 하급자를 신뢰하는 호신(互信)의 기풍이 세워져 있는 곳에, 또한 상급자는 하급자를 아끼어 사랑하고 하급자는 상급자를 스스로 존경하는 곳에 마음의 두터운 장벽은 무너져 아늑한 인간관계가 유지되게 될 것이다. 자모(慈母)와 같은 따뜻한 지휘관의 사랑의 빛이 모든 부하들에게 미치었을 때 그들의 잠자코 있던 심정은 일깨워질 것이며 부하는 진정으로 감격한 나머지 명령에 절대복종으로써 자기의 생명까지도 스스로 던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명령복종이 강요와 압력에 의한 형식적인 것으로 흐르지 아니하고 자율적이고도 강력한 것으로 전화되게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과연 남에게 경애를 받을 일을 다 하고 있고, 우리는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옮기어 나의 부하와 나의 전우를 사랑하고 또 윗사람을 존경하고 있는가를 항상 반성하여 보아야 한다. 인류가 위대한 지도자인 '예수'께서 사랑으로서 그의 열두 부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이끌어 왔음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 아닌가!

예로부터 위대한 통솔자는 부하에 대한 피 끓는 사랑으로써 엄(嚴)과 관(寬)의 묘(妙)를 다하였던 사실을 명심하자.

연인들

토요일 밤과 일요일 아침

육체의 악마

애수

오

이 글은 퇴근 후 집에 (혹은 내무반) 돌아가 읽으면서 하루의 피로를 풀어 주시도록……

어제 ■ 오늘

일정 때의 외화는 거의가 키스·씬이 커트되어 있었다. 그런데 바로 해방 이듬해라고 기억된다. 어떤 약빠른 자의 착상인지는 몰라도 커트한 그 키스·씬을 모두 이어서 그것을 돈을 받고 구경을 시킨 일이 있었다. 거의 한 시간이나 돌아가는 이 필름은 인기가 대단하여 극장이 터져 나갔다. 아무튼 형형색색 가지각색의 키스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판이었으니까.

지금 생각해서는 배우의 이름들이 기억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가령 당시에 인기가 높았던 그레다·갈보, 크로리아·스완슨 같은 여배우가 장시간의 기록을(?) 수립하는 키스·씬도 있었고 어떤 남자 배우는 애인의 전신을 남김없이 빨아대는 장면도 있어서 극장은 폭소로 터져나갔다고 기억된다.

영화치고(물론 저쪽나라들의 것) 키스·씬이 없는 영화는 거의 없을 것이고 아마 키스·씬을 빼고는 영화가 안 되는지도 모른다. 어느 흥행사(우리나라의)의 말에 의하면 순전히 키스·씬에만 관심을 가지고 영화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니 다른 장면을 빼더라도 키스·씬 만은 필요할지 모를 일이다.

또 연애물 멜로드라마에 있어서 키스·씬은 적어도 영화의 중간 클라이맥스는 되는 것이며 이 장면이 되면 관객은 누구나 묘하게 심각(?)한 표정이 되는 것을 보아도 키스가 러브·씬의 대표적인 표현임에는 아무도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어디, 추억을 더듬어 필자가 보아 온 영화의 러브·씬의 이것저것을 비교 관찰(?)해 볼까.

먼저, 옛날의 러브·씬과 오늘의 그것을 비교해 볼 때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역시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변하지 않고야 견디겠는가?

옛날의 러브·씬은 거의가 순결성을 주제로 표현되었고 또 기술에 있어서도 순전히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쳤지만 요즘의 러브·씬은 그처럼 단순한 것이 아닌 것 같다. 내용에 있어서도 훨씬 복잡해진 것 같다. 요즘의 키스·씬에는 절망적인 것, 반항적인 것, 냉혹성, 비트적인 것, 그리고 수법에 있어서는 고도로 상징화하였고 거기에 기계적인 카메라와 음향효과가 작용하는가 하면 그 표현이 영화 전편의 내용과 관련을 맺기도 하는 경향이 보인다. 가령 재작년에 개봉되었던 연인들을 보면 이러한 경향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다. 쟌느·모로—와 쟌느·말크·포리가 밤에 정원에서 만났을 때 우연히 부딪히는 컷 소리—정말 신묘한 예고(豫告)이다. 관객들은 이 컷 소리에 장차 두 남녀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를 짐작할 수 있다. 또 소피아·로렌이 주연한 하녀(河女)라는 영화에서 소피아·로렌의 키스

락

영화의 러브 · 씬

·씬은 무서울 만치 덤벼들어 그것은 키스라기 보다는 마치 맹수(猛獸)가 약한 동물을 한입에 집어 삼키려 하는 그런 키스였다. 옛날 영화는 이러한 키스·씬은 없었다. 만일 있었다면 되지도 않았다는 악평을 퍼부었을 것이다.

해방 전의 우리나라 영화는 신문이나 잡지와 같이 사상성이 농후해서 멜로드라마는 귀했다. 아리랑이니 나룻배 같은 나운규씨의 영화는 특히 그러했고 그러자니까 러브·씬 같은 것이 영화에 있어서 그다지 중요한 장면도 못 되었다. 주연배우의 이름은 잊었지만 해심곡(海心曲)이라는 영화는 필자가 열 다섯살 때 본 무성 판으로 서울에서 온 두 연인이 시골에서 하룻밤을 자는 장면이 러브·씬으로 묘사되었다. 뜨락에 하이힐과 남자의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창호지 미닫이에는 과장해서 말하면 톨스토이의 「부활」에 묘사된 그윽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요즘 같으면 좀 더 자극성을 주어 창호지에 모종(?)의 그림자라도 비쳤을 것이다.

해방 후 우리 영화의 러브·씬으로서 기억에 남는 것은 유현목씨의 교차로(交叉路)이다. 이 영화는 국산 영화로서 최초로 해외에 수출되었는데 여기의 러브·씬은 어지간히 묘사되었다고 보아진다. 정구를 치던 여자의 공이 숲속으로 굴러 들어간다. 여자가 공을 주우러 숲 속으로 들어간다. 남자가 뒤따른다. 여자가 공을 주어들고 나오다가 연인인 남자와 마주친다. 두 사람이 잔디밭에 나란히 앉고 남자가 여자를 포옹하려는 찰나, 화면이 바뀌어 풀밭에 겹쳐진 남녀의 하반신—여자의 다리가 쭉 뻗으면서 손에 쥐었던 공이 굴러 내리고 동시에 카메라가 리리브식으로 급전하면서 음향효과, 또 김광주씨 원작의 악야(惡夜)에서는 남편의 가슴에 안긴 아내의 발꿈치가 떠든다.

해심곡에 비해 격세지감이 있다. 여기서 더 발전한 것이 자유부인(自由夫人)이랄까. 그러나 이것은 러브·씬이라기보다는 섹스·씬이라 하고 싶다.

사이렌트와 토키가 병행하던 시대, 지금으로부터 25,6년 전이라고 기억된다. 사이렌트였는데 미국영화 봄을 찬미하자라는 작품은 정말 러브·씬이 관객을 꿈나라로 이끌어들였다. 젊은 음악가가 뉴욕에서 어느 3류 호텔에 들었다가 혹사되는 그 호텔의 하녀를 동정, 마침내 사랑을 하게 되어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다.

그의 집은 시골이며 잔디밭과 모래밭 가운데 별장이 있었다. 여기서 러브·씬이 전개된다. 때는 봄, 두 남녀는 푸릇푸릇한 잔디밭에서 껴안고 뒹굴다가 키스를 하고는 또 껴안고 뒹굴곤 한다. 완전히 사랑에 도취한다.

누구라도 저런 연애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아름다운 러브·씬이 었다. 당시는 무대에 변사가

미완성 교향악

초원의 빛

종착역

백야

푸른푸다를 했는데 변사가 잘하면 박수를 치곤했다. 그런데 이때의 변사는 너무나 멋있게 해서 관객들은 박수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러브씬에 완전히 도취하고 말았다. 필자는 지금까지 많은 영화를 보아 왔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영화는 미완성 교향악이었다.

그 장엄한 음악과 화면은 지금도 머리에 생생하다. 그런데 이 영화의 러브씬 또한 잊혀지지 않는 걸작이었다. 산들바람에 물결치는 보리밭 고랑을 숨바꼭질하듯 뛰고 따르고 하다가 마침내 서로 껴안고 키스하는 젊은 음악가와 백작의 딸 – 옆에서 누가 죽는다해도 화면에서 눈을 뗄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이 보리밭은 그들이 보리밭에 나타나기 전에 한 컷트로 미리 보여주었는데 이를테면 연인들에서 들려준 컵소리와 같은 역할을 한것이라 하겠다. 이 영화는 윌리 폴리스트가 감독하고 한스 야라이와 마루타 애가루트가 공연한 것으로 기억 되는데 한스 야라이의 슈베르트 분장이 어쩌면 그렇게 닮았을까 생각했다.

5, 6년 전인가? 백야가 개봉되었다. 고엽으로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마리아 셸과 마스토로 야니가 밤에 배를 타고 운하를 내려가는데 흰 눈이 부실부실 내린다. 이 눈의 분위기는 미완성 교향악의 보리밭을 상상케 하여 두 사람의 뜨거운 포옹을 재촉한다. 그런데 이 눈은 마리아 셸로 하여금 그의 첫 애인인 쟌 마레이에게 달려가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애자와 수자가 든 영화 제목은 거의가 돈을 벌었다고 하지만 로버트 테일러와 비비안 리가 공연한 애수(워터 브릿지)의 러브 씬은 문자 그대로 감미와 감상으로 관객을 유혹하는데 족했다. 촛불이 가물거리는 구석 의자에 마주보고 앉아 피차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행복감에 넘치는 듯 싱긋 웃는 미소- 이 영화는 1940년 구라파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그 이듬해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제1차 세계대전을 무대로 한 헤밍웨이의 무기여 잘있거라와 비슷한 영화이다. 무기여 잘있거라의 케리 쿠퍼와 헤렌 헤이스의 러브씬 프로마이트가 몇 천만장이 팔렸다는 것도 유명한 얘기다.

애수에 비하면 금년에 개봉된 초원의 빛의 키스씬은 훨씬 복잡하고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어 명동극장 재상연에서 거의 한달을 계속상연 된 것 같은데 이미 관람한 분이 많겠지만 이 영화는 햇드 타이틀 전에 대뜸 맹렬한 키스씬으로 시작한다. 웨오렌 비디의 집요한 포옹에서 나다리 울이 애원하다시피 해서 간신히 해방된다. 이것은 이영화 전편의 줄거리와 내용에 직결되는 남자와 여자의 섹스에 대한 위치를 말해주며 이 얘기는 이미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관객에게 알려주기도 한다. 즉, 몸을 지키려는 처녀의 본능 동물적인 남자의 욕정, 그리고 그것은 애정의 표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작품의 테마를 말해주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골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들고 기차나 버스로 구경을 왔다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의 러브씬도 인상적이었다. 코가 방해되어 어떻게 키스를 하는지 궁금히 생각하고 있다는 버어 그만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거지 하고 살짝 해보이는 쿠퍼, 다음순간 피차의 격렬한 포옹.....

정부 마농에는 두군데의 러브씬이 있지만 라스트의 러브씬은 정말 단장의 안타까움을 보여준다. 죽은 세실 오브리를 미셸 오크벨이 모레에 묻는 장면은 거의 병적이랄까. 이것은 라스트이길 다행이지 더 계속 된다면 알리 조루쥬 크루소 감독은 아마 미셸 오크렐을 미치게 해서 관인을 만들어 낼지도 모를일-.

육체의 악마라는 영화는 마치 러브씬을 보이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작품이었다고 기억된다. 고교생이 남의 아내를 사랑하는 줄거리, 테마는 전쟁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크로드 오탄라파 감독은 제라루 후이리프와 미쑤리느 푸렐을 만날때마다 그곳이 거리이건 의자이건 닥치는대로 끌어안게 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언제나 문제작을 곧잘 만들어내는 빅토리오 데 시카의 종착역의 러브씬은 극히 인상적이었다. 몽고메리 크리프트가 제니파 존슨을 쫓아 로마의 종착역 퇴피선에 들어있는 화물차에서 남몰래 열렬한 키스를 교환하는 장면이다. 그들의 어깨너머로 보이는 로마역의 대혼잡- 사랑하는 자는 세계에서 고립한다는 감을 강하게 던져주는 씬이라 할 것이다.

성공한 러브씬은 관객을 완전히 도취시킨다. 그덜데 그 요소가 무서인가를 생각해보면 한마디로서는 표현하기 어렵다. 거기엔 물론 로맨틱도 있어야 하고 애로틱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만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무언가 안타깝고 숨막히는 분위기- 이것이 무엇인지는 표현할 어휘를 발견할 수 없으나 그것이 관객을 집단 최면술과 같은 마력을 발휘하는가 싶다.

일전에 토요일 밤과 일요일 아침이라는 영국영화를 보았는데 여기서는 러브씬이라기보다는 섹스씬이었다. 전후 욕구불만의 젊은 아내를 주제로한 영화가 많이 유행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시대풍조이며 이러한 영화일수록 러브씬은 로맨틱이 거세되고 애로티즘으로 노골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살기 힘든 세상- 영화의 러브씬에도 그것이 반영되어 어쩌면 냉혹하고 불안전한 것으로 묘사되는 모양이다.

우리의 미술(美術)

최 순 우(崔淳雨)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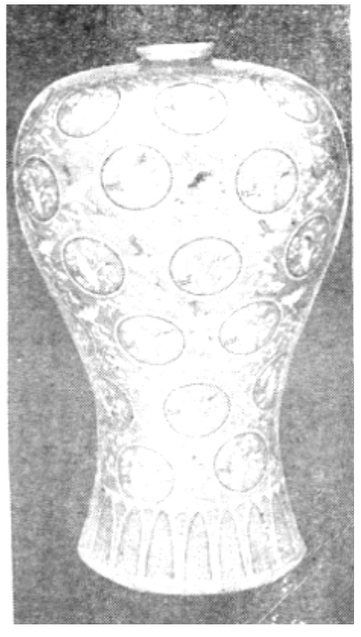
간혹 비행기를 타고 조국의 강토를 하늘에서 굽어보면 그림 같이 신기한 밭이랑 논이랑의 무늬진 아름다움과 순한 버섯처럼 산기슭에 오종종 모여서 돋아난 의좋은 초가지붕의 정다움이 가슴을 뭉클하게 해 줄 때가 있다. 그리 험하지도 연약하지도 않은 산과 산들이, 그다지 메마르지도 기름지지지도 못한 들을 가슴에 안고 그리 슬플 것도 복될 것도 없는 덤덤한 살림살이를 이어가는 하늘이 맑은 고장,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강산에서 먼 조상 때부터 내내 조국의 흙이 되어 가면서 순박하게 살아 왔다.

한국의 미술, 이것은 이러한 한국 강산 마음씨에서 그리고 이 강산의 몸짓 속에서 몸을 벗어날 수는 없다. 쌓이고 쌓인 조상들의 긴 옛이야기와도 같은 것, 그리고 우리의 한숨과 웃음이 뒤섞인 한국반도의 표정(表情)같은 것, 마치 묵은 솔밭에서 송이버섯들이 예사로 돋아나듯이 이 땅위에 예사로 돋아난 조촐한 버섯들, 한국의 미술은 이처럼 한국의 마음씨와 몸짓을 너무나 잘 닮고 있다.

2.

한국의 미술은 언제나 담담하다. 그리고 욕심이 없어서 좋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재료, 있으면 있는 대로의 솜씨가 별로 꾸밈없이 들어난 것, 다채롭지도 수다스럽지도 않은 그다지 슬플 것도 즐거울 것도 없는 덤덤한 매무새가 한국미술의 마음씨이다.

하늘로 향해 두 귀를 사뿐히 들었지만 뽐냄이 없는 의젓한 춘의 곡선, 아낙네 저고리 도련과 붕어 밸지는 긴 소매의 맵시 있는 선, 외씨 버선볼의 퉁탁한 매무새, 초가지붕과 기와지붕들이 서로 이마를 마주 비비고 모여 선 곳, 여기엔 시새움도 허세도 가식도 그리고 존대도 발을 붙이지 않는다. 평양수심가 하며 장연 긴아리와 정선 아리랑 그리고 신고산 타령과 '저 건너 감미봉에'이르는 멋진 가락에까지 수많은 우리 노래의 아름다움은 정말 우리 민족의 숨결이다. 이 노래들이 이 강산에서 메아리처럼 스스로 울어나왔듯이 우리의 미술은 이 숱한 노래들의 자장가 속에서 수시로 자라나 온 까닭에 우리의 미술은 우리의 노래처럼 연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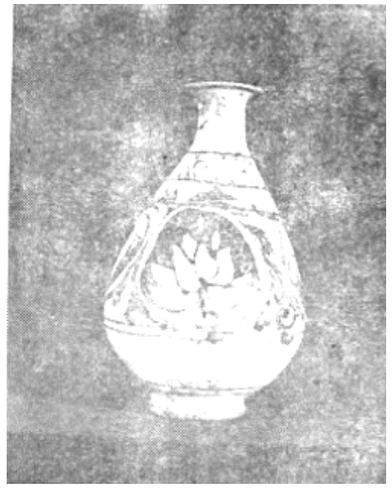


청자상감운학문매병

3.

대궐이나 절간 같은 그리고 성문이나 문묘 같은 큰 건물에도 물론 한국의 아름다움은 스며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고 쉬고 하는 살림집처럼 우리 한국의 고유한 체취를 강하게 발산 하는 곳은 없다. 이 요람 속에서 한국의 멋과 미가 오랫동안 자라나온 것이다. 기와집은 기와집대로 초가집은 초가집대로 크면 큰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정말 분수에 맞는 한국의 정서가 스며있다. 한국의 주택은 일본의 주택처럼 아기자기한 그리고 신경질적인 짜임새나 구조적 기교미를 자랑하지는 않는다. 인위적인 쩨쩨한 조산(造山) 이발한 정원수로 뜰을 가구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집처럼 호들갑스럽지도, 번잡스럽지도 않으며 절대로 장대(壯大)따위를 꿈꾸지도 않는다. 한국의 주택은 조촐하고 의젓하며 한국의 자연 풍광 속에 그 크기가 알맞다.



분청사기연화문병

하늘로 향해 두 처마 끝을 삽분 들었지만 날아갈 듯한 경쾌도 아니요 조잡한듯 하면서도 온아한 미덕과 질소(質素)한 기능과 구조가 이 지붕 밑에 한국 사람들의 담담한 마음씨를 담기에 참으로 격이 맞는다. 한국의 주택은 일본의 주택처럼 코로 목향(木香) 내음을 맡으며 즐기거나 잘 다듬은 각재들을 쓰다듬으며 즐기는 따위의 근시안적인 아름다움은 없다. 사회(四回)의 자연풍광 속에 조화시켜 그대로 편안한 그리고 자연의 한끝이 집 뜰일 수 있고 이 집 뜰은 담을 넘고 들을 건너서 사위(四圍)의 자연 속으로 번져 나가는 것이 한국주택의 생리이다. 손으로 쓰다듬으며 즐길만한 정성들인 잔재주는 부리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담겨서 마음 편한, 그리고 멀리서 두고 바라보아 한층 정이 가는 것이 한국건축의 미덕이다.

근래 분별없는 외래취미 때문에 소위 문화주택이니 양옥이니 해서 반숭반숭한 얼치기 집들이 듬직하고 아름다운 한국주택미의 기조를 흐트러 뜨려주고 있지만 그것은 한 때의 물거품 같은 것, 우리의 주택은 역시 누천년 동안 우리의 조상들이 자자손손이 이어서 세련시켜온 한국미의 기조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욕된 일이라는 것을 한국의 양식은 오늘도 이것을 잘 알고 있다.

창덕궁의 낙선재(樂善齋)와 비원에 있는 연경당(演慶堂)과 여러 초당(草堂)들 그리고 운현궁(雲峴宮)의 주택들을 비롯한 경향각지의 격(格)있는 구가(舊家)들의 온아(溫雅)와 간소미(簡素美)에 빛나는 세련된 아름다움의 기조는 무엇보다도 한국적인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민족의 재산이다.

4.

한국의 공예(工藝)는 한국의 주택 속에서 자라났다. 멀리는 석기시대로부터 가깝게는 고려의 청자 이조자기이르기까지 참 잘도 우리의 풍토와 호흡이 마자왔다.

우리의 미술 중 무엇이 제일 한국적이냐 할 때 우선 우리는 도자기를 들 수 있다. 말이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강산과 여기에 서려진 조상들의 입김과 그리고 메아리치는 아련한 민요곡과 오래역사의 동록(銅綠)같은 것들이 얼버무려진 말하자면 민족교향시 같은 애틋한 소리를 우리는 우리네의 도자 공예에서 듣고 있다.

길고 가늘고 가냘픈, 그리고 때로는 도도스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따스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한 곡선의 조화, 그 위에 적당히 호사스러운 무늬를 안고 푸르고 맑고 총명한 푸른 빛 너울을 쓴 아가씨, 이것이 고려의 청자였다.

의젓하기도 하고 어리숭하기도 하면서 있는 대로의 양심을 털어 놓은 것, 선의와 치기(稚氣)와 소박한 천정(天定)의 아름다움, 그리고 못생기게 둥글고 솔직하고 정다운, 또 따뜻하고도 희기만한 빛 여기에는 흰옷 입은 한국백성들의 핏줄이 면면히 이어져 있다. 말하자면 방순(芳醇)한 진국 약주술맛일 수도 있고 털털한 막걸리 맛일 수도 있는 것, 이것은 이조자기의 세계이며 이조 항아리의 예술이다.

만약에 동방 미술사사상에서 고려, 이조 두 토막의 도자사를 잃었다고 치면, 측 이 한국미의 독자적인 세계가 사라졌다고 치고 보면 동양은 이 큰 손실을 무엇을 메울 것이냐. 이곳은 기능과 용도(用途)와 정치(情緻)와 예술이 소산지음(疎散之音)과 더불어 함께 사는 곳, 한국도자기를 모르면 도자 이야기를 아예 하지 말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이미 진실로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아는 세계 예술인들의 자백이다. 이러한 고려자기나 이조자기를 싣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은 참으로 멋진 공예가구들을 많이 남겼다. 찬장과 사방탁자, 문갑과 서안(書案), 연상(硯箱)과 의(衣)거리 등 이조시대 목공가구류의 간박(簡朴)한 단순미(單純美)

질소미(質素美) 등은 한국의 주택미와 직접 연결되는 아름다움이며 구안(具眼)이 외국인사들 가정에 얼마나 많은 수의 목공품들이 바다를 건너갔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다. 있는 대로의 재료, 측 잡목은 잡목대로 오동이면 오동, 이재(梨材)면 이재대로 그 재료들의 아름다운 생명들이 착실한 공작과정을 거쳐 이조 목공예가 단순화 간미화의 공예미술의 올바른 궤도위에 서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음은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 양실(洋室)에 다 같이 조화되는 이조가구, 이것은 아직도 새롭고 또 앞으로도 새로울 수 있는 새 시대 한국공예 갈 길을 훤히 비춰주는 하나의 지표이다.

5.

흔히 지식인으로 자처하는 인사들의 입에서 한국화 그림은 허잘 것 없다는 말을 가끔 듣게 된다. 이것은 그리 간단하게 수긍이 가는 말도 아니며 기실 그렇게 쉽사리 방언(放言)할 말이 못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어느 것이 한국 그림이냐, 또는 한국회화의 미학적 특질이 무엇이냐 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문제이며 실상 한국 그림에 대한 이러한 정리연구는 이제 겨우 단서가 잡히고 있을 뿐이다. 근시안적인 연구나 관찰만을 가지고는 아무도 아직은 경솔한 단정을 할 수는 없다. 연전에 영국 런던에서 대표적 한국미술전이 열렸을 때 영국신문들은 오히려 한국 그림들의 특색과 우수성을 찬미해서 타임지(誌)는 "이번 전시회 중에서 가장 큰 감명을 주는 것은 회화들이다"라고 전제하고 "누구나 여기에서 한국 그림의 특징을 찾아낼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서구전통에도 나타나는 바와 같은 그 나라 풍토양식이 거의 완전무결하게 갖추어진 그림들에 마주치게 된다. 정선이 그린 인왕무색도(仁旺舞色圖) 같은 것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라고 했으며 맨체스터 가디언 지는 "런던에서 오늘 열리는 한국고미술전시처럼 오랫동안 고대되었던 미술전시는 일찍이 없었다."라고 전제하고 나서 "중국회화의 특징인 엄숙으로부터 순진으로 이탈한 한국의 회화는 이번 전시회를 당당하게 지배했다"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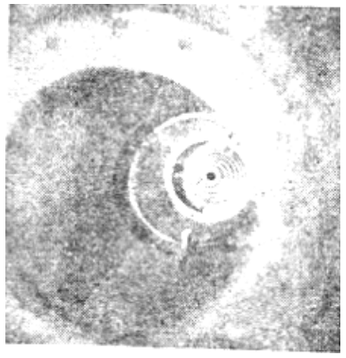
분청사기 반합

실로 한국의 회하는 중국 그림에서도 일본 그림에서도 볼 수 없는 야릇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기교를 넘어선 방심의 아름다움. 때로는 조야(粗野)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이러한 소산(疏散)한 감각은 한국회화의 좋은 작품 위에 항상 소탈한 아름다움으로 곁들여져서 정취(情趣)를 돋구어 준다고 할까. 정선, 이정(李霆), 조속(趙涑), 신세림(申世霖), 신사임당, 김수철, 김홍도, 김정희, 임희지, 최북 등 역대의 작가계열 속에서 우리는 공통적인 소방(疎放)과 야일(野逸), 생략과 해학미(諧謔美) 등 독자적인 감각이 간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의 계보는 장식적으로 발달한 일본적인 그림 그리고 권위에 찬 중국 그림과 좋은 대조가 되는 것이며 도자공예에 나타나는 이조미(李朝美)의 계열은 이러한 이조 회화의 미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이것으로서 한국그림의 아름다움을 요약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쉽게 설명하기 힘든 해학적인 일종의 이조적 운치(韻致)가 말하자면 현대의 추상 화가를 빰치리만치 멋진 추상을 항아리 장식 그림으로 욕심없이 그려내뜨린 무명 도공들의 조형정신이 그리고 일본인들이 풍상(風尙)하는 한국민요산(韓國民窯産)의 서민적 용기들 즉 다완의 풍류미를 창조한 조형감각 같은 것이 무심하게 이조화가들 가슴 속에서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리라.

6.

한국의 아름다움은 일찍이 삼국시대의 조각 작품에서 그 독립적인 감각을 드러내 주었다. 일본 교토(京都) 광륭사(廣隆寺)에 있는 목조 미륵보살반가상의 원만한 자태 그리고 나라 법륭사(法隆寺)에 있는 백제관음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은 일본인들로 하여금 사심 없이 무조건 그 앞에 꿇어앉아 이마를 조아리게 한 위대한 한국의 정신이다. 권력이나 총칼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신기한 사상(事象)이 이 백제관음 앞에서는 이미 1천 수 백년 이래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바로 한국미의 권화(權化)이다. 이 조각의 아름다움을 능가할 조각의 아름다움을 그들은 아직 가져보지도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그들의 신이다. 이 신의 정체는 백제의 조각가였다. 물어 뽑은 듯한 늘씬한 아름다움은 중국에도 일본에도 다시는 없다. 이것이 백제의 아름다움 말을 바꾸면 지고지순한 한국 고미술의 실존이다. 〈P87에서 이음〉



<과학상식(科學常識)>

2억도의 인공태양

— 핵융합개발의 현황 —

◇샤-웃드의 숲

아득한 과거에서부터 끝없는 미래에 걸쳐 풍부한 열(熱)과 빛을 한정 없이 내뿜고 있는 태양이 대자연의 '위대한 핵융합로(核融合爐)'라고 말한다면 현대는 실험실에서 인간의 손으로 「인공태양」을 만들어내는 시대라고 할까. 만일 우리가 지상에 이 태양의 '불'을 붙일 수가 있다면 에너지—문제는 문자 그대로 최종 해결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이 문제에 가장 용감히 그리고 가장 정렬적인 도전을 전개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것은 저 태양을 지구의 어느 곳에 잡아 가두어 두자는 「태양봉쇄」계획인 것이다. 이 계획을 샤—웃드 계획이라고 부른다. 미국에 있어서의 최전선이 리버 모어 원자력 연구소, 프린스턴 대학 플라즈마 물리 연구소 등이다. 이 같은 연구 장치는 모두가 극비에 부쳐있으며 단지 리버 모어 연구소의 아리스 장치만이 최근에 처음으로 공개된 바 있다.

리버 모어 원자력 연구소는 핵융합개발(核融合開發)의 메카다. 샌프란시스코 교외의 핵융합개발부에 「샤웃드의 숲」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고 화살표가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샤—웃드라 함은 로빈훗이 숨어 있었던 잉글랜드의 깊은 숲—그 명칭과 핵융합과는 별다른 관계는 없다. 원자장치 계획은 맨해튼이라고 부르는 암호화 같은 것이며 이 문제의 어려움과 깊이를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태양을 넣는 화로

태양의 에너지 비밀은 그 체내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핵융합 반응인 것이다. 가장 가벼운 원소(元素)—수소—의 원자의 핵이 융합하여 헬륨이 될 때에 믿기 어려울 정도의 에너지를 낸다. 이것이 지구상에서는 어떠한가. 지구의 표면 7할을 차지하는 바다 속에 수소보다도 훨씬 착화(着火)가 쉬운 중수소(重水素)가 포함되어 있다.

해수(海水)중의 중수소를 연료로 할 수만 있다면 지상의 에너지 소비가 현재의 천배로 늘어나도 인류는 앞으로 200만 년간은 에너지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 사발의 해수중의 중수소로서 자동차는 수천 킬로를 달릴 수 있으니까.

핵융합 반응을 조절하여 거대한 에너지를 뽑아내려면 연료인 중수소를 태양의 중심부보다 한 계단 높은 수억 도의 고온으로 수분 간 그대로 두어야 한다. 물론 지상에는 수억 도의 불을 담아둘 내열(耐熱) 자재가 없다. 과학자들은 여기서 자장(磁場)을 사용할 것에 착상하였다. 초고온의 가스(프라즈마)가 자장에서 반발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용기(容器)를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 이것이 태양을 담아두는 거대한 장치 「레피트론」이다.

이 장치에는 적, 청, 황, 록의 극채색으로 구분한 수천번의 와이어로 이루어져 있다. 프라즈마의 중공(中空)에 토나스 형으로 된다는 것이다. 중공(中空)에 두게 한 것은 초고온의 지속 시간을 조금이라도 길게 뻗쳐 보려는 시도로서 이 레피트론의 설계자 포즈 박사의 독자적인 착상이다.

◇4,000만 도의 초고온

미국은 62년 봄에 섭씨 4,000만 도라는 초고온을 실현하여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다는 증거인 중성자를 내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지속시간은 1,000만 분의 15초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 온도는 이미 태양의 중심부의 온도를 능가하는 것이다.

이 실험에 성공한 프레드릭·켄숀 박사는 「1,000분의 4초간 프라즈마를 안정시키는 것이 당면의 목표」라고 말하였다. 용기(容器)의 벽이 되는 자장(磁場)은 마치 도넛 형이며 그 구석인 한 쪽에 초고온의 가스가 저장된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강한 전류를 통해서 자장을 압축시키면 프라즈마의 온도가 상승한다. 이것은 토이·토프 장치에 의해서 성공하였으며 토이·토프는 ABC(미국 원자력 위원회)가 기대하는 타입이다. 장치가 냉각되지 않게 계속적으로 전류가 통해져 있으며 중수소 가스가 복숭아 색으로 빛을 발산하고 있다.

다음은 찰스·담 교수의 아리스 장치를 알아보자.

아리스—마치 어느 집 영양의 이름과 같은 이 이름은 길다란 그 장치의 작용을 표시하는 횡문자의 이니셜을 뜻하고 있다. 용기(容器)의 원리와 모양은 토이·토프와 비슷한 형이나 다른 점은 초 고온을 만들어 내는 방법이다. 중수소의 원자의 핵을 전압(電壓)에 건 길이 12미터의 파이프를 통해서 가속(加速) 온도로서 2억도가 되었을 때 용기에 가두어 봉쇄한다. 특수 합금제의 화로(火爐)내부는 거울처럼 반들거린다.

거미줄처럼 엉킨 전선과 서로 엇갈려 장치된 여러 가지 파이프는 마치 무슨 마술과 같은 도구다.

다음은 리버모어의 아스트론이라는 장치. 그리스 태생인 귀재 N·C 크리스토피로스 교수의 독창, 아스트론이란 이름도 그리스어의 「별」이라는 뜻이다. 장치는 엄청나게 큰 굴뚝을 옆으로 눕힌 형태이다.

이 장치는 자장(磁場) 작용에 특색이 있다고 하며 굴뚝 속에 실린더 모양의 「전자의 벽」을 만들고 이 벽속에 초고온의 가스를 만든다.

가스도 입자(粒子)도 벽속에서 하이·스피드 전자에 부딪혀 점차 온도의 상승을 가져와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는 순서다.

◇굉장한 실험(實驗)의 구상(構想)

미국 핵융합 연구소의 상징적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스테라레이타—C형은 프린스턴 대학의 프라마스 물리 연구소에 있다. 이 장치는 3,000만 불의 비용이 소요되었는데 성공하면 에너지—문제의 혁명아가 되지만 실패하면 어린이의 장난감에 지나지 않으니 돈 많은 미국이 아니고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도박이다.

「태양의 용기(容器)」는 경마장 모양으로 된 중공관(中空管). 중심축 12미터, 직경 20센티, 이 관을 이중의 코일이 빈틈없이 감겨있다. 순간적으로 44,600 암페어라는 터무니없는 전류가 흘러 약 100톤의 힘이 관에 걸린다는 것이다. 예비적 실험에서 이미 섭씨 백만도, 1,000분의 1초 프라즈마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 불원 본격적인 가열 장치를 하게 되면 섭씨 1억도를 낼 수 있다고 한다.

수소폭탄의 평화적 이용—핵 융합의 제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은 1958년의 수부(壽府)원자력 평화이용 국제회의에서였다. 영국에서 제—타의 성공은 전해졌지만 인공태양은 그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제—타의 성공은 실은 실패였다. 프라즈마의 안정화에 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세계는 일변하여 프라즈마의 본성 규명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미국이 물리학자, 화학자를 총동원하여 샤—웃드 계획을 시작한 것은 1951년이었다. 그 후 11년, 아직 그 화살이 샤—웃드 숲속에 명중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수십억불의 비용을 쏟아 미국의 최고 두뇌를 결집한 이 계획은 '인류의 가장 도전적인 목적'(프리스턴 대학 비숍 교수의 말)을 향해 착실히 전진을 계속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미국 원자력 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고온점화(高溫點火)—실용적이 아닌 단시간이라 할지라도 핵융합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는 이미 하나의 단계를 넘어 실용에의 전기(轉機)가 마련된 것이며 오직 시간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다. 샤—웃드 계획 장관 판·아타 교수는 최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의 추정으로서는 앞으로 10년은 무리일지 모르나 성공하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과거 10년의 업적은 우리가 예상한 이상의 진전이 있었다. 그리고 아낌없이 경비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미국의 조건이 그와 같은 성과를 가져오는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 것도 사실이다.」

만약 이 샤—웃드 계획이 성공하여 실용화 된다면 인류는 과거 5,000년의 역사를 하루아침에 쌓아 올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 판·아타 교수의 예언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외지(外誌)에서 황문구(黃文九) 역(譯))

◇외몽고의 고민

소련과 중공 사이의 틈바구니 속에 끼인 외몽고는 매우 난처한 입장에 있다. 외몽고에 있어서는 소련이 우세한 위치에 있는데 외몽고의 지도자, 상업 분야의 간부들은 모두 다 모스크바 출신이라 러시아 말을 하여도 중국말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

몽고인들은 소련이건 중공이건 싫어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 중에도 어느 쪽을 더 싫어 하는가고 따진다면 역시 중공이라고 할 것이다.

소련의 원조액이 중공보다 많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소련 사람은 속마음은 어찌되었던 간에 외견상으로는 친절한 태도로 몽고인에게 대하는데 이와는 반대로 중공 측 사람은 전혀 몽고인과 접촉하려 하지 않는다. 몽고인을 이적(夷狄)으로 여기고 있는 중공 측 사람의 전통적인 중화(中華)사상에서인지 몽고인과 접촉하고 있는 중공 측 사람이란 찾아보기도 힘들다.

몽고에서는 중공 측 사람이 몽고인과 도대체 사귀려 하지 않는다는 말이 항간에 돌고 있다. 그러나 소련 사람이나 중공 측 사람들이나 몽고인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여하 간에 몽고에 있어서 그들의 목적만은 서로 같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중공의 모택동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중국의 인민혁명이 승리적으로 완수되는 날에는 외몽고 공화국은 그 의사에 따라 중국 연방(중공)의 일부로서 자동적으로 편입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외몽고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공산진영의 양대 국가인 소련과 중공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 특수 입장을 이용하여 양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원조를 받으려 하고 있다.

외몽고는 자립할 경제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소련과 중공으로부터 원조를 반가이 받아들이고 있으나 이 양대 공산국의 세력의 틈바구니에 끼어 난처한 입장에 놓일 때가 많다는 것은 속일 수 없는 사실이다.

<기행문(紀行文)>

강 화 도(江華島)

박찬홍(朴贊興)

강화도!

이 강화도는 우리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누구다 다 흥미를 느낄 것이다.

단군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마니산에 가서 제천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하고 또 정족산(鼎足山)에다 삼즉성(三郎城)을 쌓았다는 것은 태고시대의 전설이거니와 고려시대에 와서 조선시대에 와서 또 최근에 와서 강화도가 얼마나 우리 역사위에 그 이름을 날리게 하였는지.....

강화도는 한강과 임진강이 합해서 바다로 들어가는 곳에 놓여 있는 섬이니 서울의 수비상으로 보아 고래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또한 천연요새로 그 이름이 더욱 빛났던 것이다.

역사가 많이 엉키어 있는 이 강화를 한 번 보자는 것은 우리 민족치고는 누구나 다 그의 간절한 소원일 것이다.

그러므로 나도 강화도를 한 번 구경하기를 남들과 같이 희망하고 있었던 끝에 그 기회를 얻어 이번에 다녀오게 되었던 것이다.

강화도까지는 甲구지에서 또 자동차로 가는 것이다. 거리는 한 10리쯤 된다. 오전 11시 반에 읍에 도착하였으니 서울에서 자동차로 세 시간 정도이다. 강화의 첫 인상은 살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산에 나무가 많이 있어서 마음이 상쾌하여 진다. 금년 농사는 거년(去年)만은 못하지만 역시 흉작은 아니라고 한다. 우리일행을 출영(出迎)하여 준 여러분은 강화사정을 친절히 설명하여 들려준다.

강화에서는 화문석이 많이 나고 감이 많이 나고, 사기(沙器)도 많이 나고 또 필(匹)누비가 명산이요 인견으로 그 이름을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우리가 가던 10월 30일이 장날이라 자동차가 마음대로 진행을 못하도록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강화는 개성과 유사한 곳이어서 상권은 모두 강화사람들의 손에 있다고 한다.

자동차를 타고 읍내에 들어가면 우편에 견자산(見子山)이 보이니 그 동쪽이 조산(造山)이라 한다. 거기가 고려의 옛 왕궁터라고 한다. 고려는 몽고의 침입으로 인하여 대 곤란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중국을 탈취(奪取)하고 원(元)나라를 세운 몽고는 그 억센 육군으로서 그야말로 무인지경과 같이 천하를 횡행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중국을 정복하고 중앙아세아를 정복하고 인도를 차지하였을 뿐 아니라 구라파에까지 쳐들어가서 키에프까지 들어갔던 것이다. 그야말로 석권천하(席卷天下) 하였던 것이다. 그 세력이 동으로 미쳐오매 고려의 수난시대는 시작되었다.

그러나 몽고의 병력은 육군이었다. 수전(水戰)은 그들에게 익숙하지 못하였다. 이 점을 생각한 고려에서 도읍을 강화로 옮기고 경강(京江)의 수비를 엄중히 하고 수년간이나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강화함락은 없었으나 한반도 전부를 황폐(荒幣)하게 되니 강화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이 여주(麗主)는 강화에서 나와 평화조약의 체결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 일행은 자동차에서 내려 시가 구경을 하게 되었다. 장꾼들의 잡답(雜沓)한 가운데를 헤치고 지나서 어느 비각 앞에 당도하였다. 비문을 보니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의 순의(殉義)한 땅이다. 이에 각이 병자오랑캐란 눈물겨운 역사가 엉키어 있는 것이다. 당시 만주로부터 일어나서 명나라를 흔들어내고 청태종은 30만의 대병을 몰고 순식간에 그야말로 전광석화 격으로 서울을 향하여 쳐들어 왔던 것이다.

임진왜란에 쓰라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선조정은 국방을 소홀히 하였던 결가 이 외적의 침입이 그 불의(不意)에 나오게 되어서 창황(蒼惶) 실조(失措)하게 되었던 것이다.

왕은 남한산성으로 파천(播遷), 왕자, 비빈은 강화도로 피난하게 되었다.

그때 강화수장이 실수하게 되자 만도(滿都)의 사녀(士女)는 낙화같이 유수에 떨어졌던 것이다. 당시 수장(守將) 윤명제의 아버지는 죽기를 서약 하였으면서도 급하니까 병졸의 옷을 갈아입고 도망쳐 버렸던 것이다.

못생긴 작자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이 우암 송시열과의 사이가 문제가 되었으니 우암은 윤명제가 자기 아버지의 묘지명을 청하였을 때, '강화지사문어강도(江華之事問於江都)'라 하여서 일찍이 그가 강화에서 취한 그 비겁한 행동을 책한 것이었다. 그때에 윤명제는 골이 나서 방에 앉았다가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사여부숙중(師與父孰重)'라고 하였다 한다. 못생긴 아버지의 못생긴 자식이었다. 그따위 인물들이 수령이 되어 조선을 망쳐먹은 노소론의 싸움이 버려지게 된 것이다.

못생긴 수장(守將)은 비거석양풍(飛去夕陽風)해서 도망쳐버렸으나 김상용은 죽었다. 그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이 비가 서있는 것이다.

그 앞에 서서 그의 굳센 의지를 생각하고 한 번 경의를 표하게 되었다. 거기서 몇 걸음 더 안가서 또 한 개의 비가 서있는 것이 눈에 띠었다. 이것은 한국근세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그때는 대원당시였다.

고종등극이 갑자년 즉 1864년이었으니 병인년은 그 제3년이 된다. 그때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의 조카 나폴레옹3세가 제위에 올라서 뽐내고 있었던 판이다. 그때에 프랑스 함선이 강화도에 와서 측량의 목적으로 상륙하였던 것이다. 우리 수비병이 불의에 그들을 공격하게 되어서 프랑스군은 한번 퇴각하였으나 다시 오게 되었다.

그리하여 약탈을 자행하여 갔으나 큰일에는 이르지 않았다. 나폴레옹은 한번 대거(大擧)하여 입구(入寇)하려고 벼르고 있었으나 보불전쟁이 일어나 그가 눈코를 뜰 새가 없게 되자 당시 조선에까지 생각할 여가가 없게 되자 몰락되고 말았다. 그 후 또 미국과 충돌이 있었는데 이것은 신미양요라고 한다. 대원군은 하여튼 외적은 다 물리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의기양양하였다.

그래서 대원군은 양인(洋人)들을 두려워 할 것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사정을 연구하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그 전략을 대원군은 해득 목하고 그저 덮어놓고 그들을 배척하고 극단의 쇄국주의를 쓰게 된 것이다.

지금 여기서 보는 비가 그 당시 조선의 국책을 말하는 것이고 대원군의 의도를 말하는 것이다.

비에는 '양이침범비전즉화주비매국(洋夷侵犯非戰則和主秘賣國)'이라고 크게 본문으로 스며있고 그 옆에 '계아만세자손(戒我萬世子孫)'이라고 문구가 있고'병인작신미립'이라고 연대가 기록되어 있다.

거기서 또 몇 걸음 동으로 가면 용흥궁(龍興宮)이 있다. 내수궁이라고도 한다.

아까 그 비 있던 곳도 같은 동내인데 이 동리 이름을 내수동이라 한다. 그 궁 안에 또 비각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철종조잠저구기(哲宗朝潛邸舊基)'라고 쓰여 있다.

여기가 철종 대왕의 구저(久邸)이었던 것이다. 순조가 세상을 떠나자 후사가 없었음으로 원족(遠族)의 19세의 철종을 여기서 영인위주(迎人爲主) 한 것이다. 속칭 '강화도령'이라고 불리는 철종 대왕이다. 당시 그는 지게 지고 나무하러 다니다가 왕이 된 것이다. 거기서 바라다보면 강화조약 체결하던 집이 보인다.

운양호사건이라는 것이 있어서 당시 조선과 일본과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 그것을 결말 짓기 위하여 조선대표와 일본대표가 이 집에서 회동해서 조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그 당시 일본은 유신의 의기가 대단하여 후일발전의 기초공작에 전념하고 있었다. 당시 조선은 아직도 도원(桃源)의 꿈을 꾸고 와우각상(蝸牛角上)에서 세력다툼이나 일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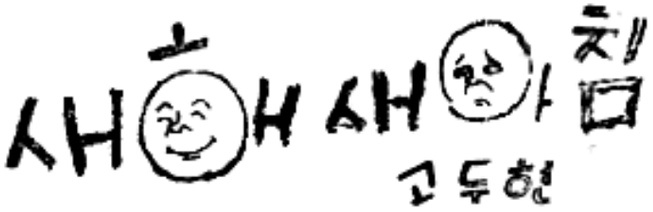
끝으로 강화 여러 친구들이 호의로 연미정 구경을 가게 되었다. 그것은 강화팔경의 하나라고 한다. 자동차를 타고 동북으로 가지 10여리에 월(月)구지라고 하는데 도착했다. 해안위에 표연(飄然)하게 서 있는 이 정자는 우리의 생각을 길게 길게 오대산까지 끌고 가는 것 같았다. 한강과 임진강이 합수처서 내려오다가 여기와서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데 거기에 강화도가 앞을 딱 막아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강화도와 본토 사이에 흐르는 육수와 해수의 내왕하는 것을 경강(京江)이라고 한다.

경강과 이 강화는 유구한 사천여년의 우리 역사상에 참으로 큰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송도 5백년, 한양 5백년에 이곳이 얼마나 중요하였던 것이며 신라, 백제, 고구려의 쟁패시대에는 얼마나 하였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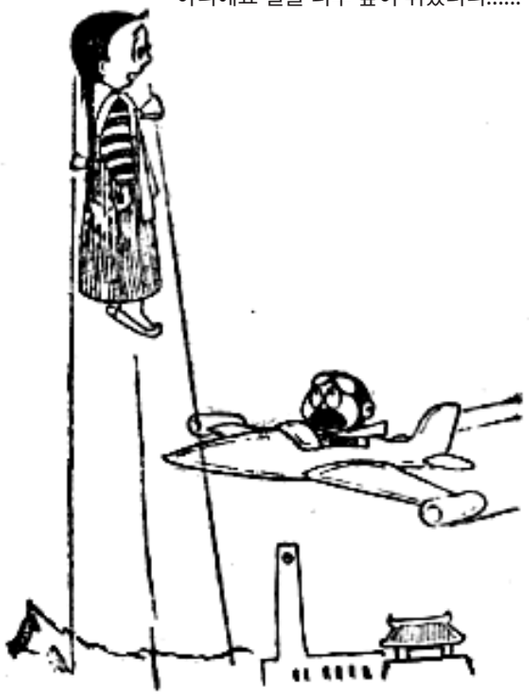
지리상 가장 요새지로 할 것이다. 앞에는 문수 산성이 보인다. 한강이 바다로 들어오는 어구에 또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어 물을 두 갈래로 딱 갈라놓았다. 그래서 물이 제비 고리와 같이 되었다. 그런고로 여기에 있는 정자를 연미정이라고 한다. 그 수중분백노주(水中分白鷺洲)라던 것도 이와 같이 되었던가.

풍광이 명미(明媚)하고 기우(氣宇)가 앙연(昻然)하다. 강수를 이분한 이 조금한 섬! 그 섬은 이름 하여 뱀섬! 사도(蛇島)이다. 이 뱀섬의 이야기를 들으니 뱀이 많다는 것이다. 섬도 작지만은 그래서 더구나 사람이 못산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홍수에 밀려서 나온 한강, 임진강의 뱀들이 죽기를 싫어하는 나머지 다 이 섬에 와서 상륙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여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다음날 정족산에 올라 전등사를 구경하고 삼즉성을 보고 양헌수의 승전비를 보고 삼즉봉(三郎峰)의 최상봉에 올라서 마니산의 첨성단도 구경할 수 있었다.


새해 새아침
고두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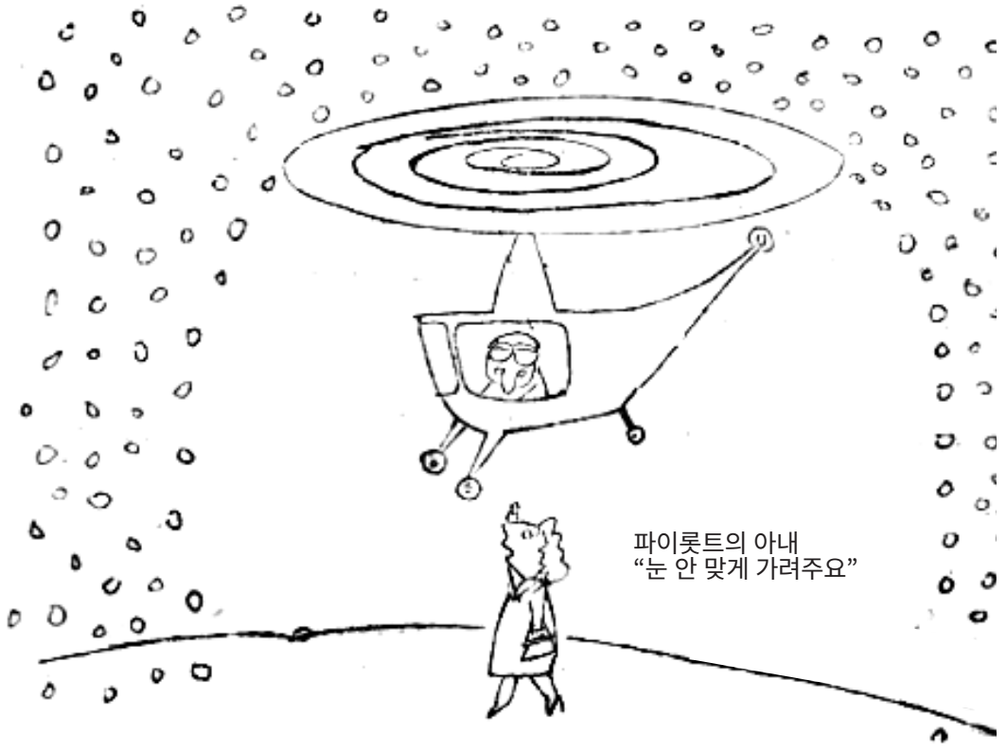
'떡국을 많이 억었 더니 탈수가 없구'



"이크 인간 미사일이다"
"아니에요 널을 너무 높이 뛰었더니....."

관제탑에서 긴급보고 63년의 새해가 지금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청월 초하루가 됐으니 비행기도 광을 내야지"



파이롯트의 아내
"눈 안 맞게 가려주요"

김성환

파이롯트의 침실(寢室)

국전을 보고
-현대예술에 관하여-

손명현(孫明鉉)

금년 국전을 보고 느낀 것은 소위 추상화가 많아졌다는 점이었다. 일제 '선전(鮮展)'시대에는 그런 그림은 하나도 없었고, 해방 후부터는 몇 점 섞일 정도이더니 금년에는 -작년에는 기회를 놓쳐 보지 못하였으나- 월등하게 많아져서 놀래었다. 이 무엇을 그렸는지 알 수 없는 추상화와 비슷한 현상으로는 문학에 있어서 '현대시의 난해성'운운하는 말을 잘 듣는데, 그때의 '현대시(現代詩)'이다. 아무리 읽어 보아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시가 그렇지 않은 시보다 오히려 많을 정도이다. 이건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경향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라 하겠는데, 하여간 그림에 있어서의 추상화와 문학에 있어서의 현대시는 그 정신이나 의도에 있어서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양자를 안중에 두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생각하여 보고자 한다.

일찍이 옛날 희랍시대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은 현금(現今) 우리가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을 모방 기술이라고 하였다. 즉 자연이나 인생에 실제로 있는 대상을 여실하게 모방, 표현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그것은 사진사가 사진을 찍듯이 대상의 단순한 복제품을 만든다는 의미는 물론 아니다. 대상을 모방하되 예술가의 창의가 가공되는 것이며 자연에서 소재를 취하면서 자연 이상의 것을 만드는 것이다. 옛날 희랍의 유명한 화가로 제욱시스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그린 헬레나 여신상의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치 절묘하였다고 한다.

그는 이 그림을 그릴 때 그 당시 희랍에서 미인으로 이름난 처녀 5명을 모델로 하여 그들의 각 특유한 미의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종합하여 절묘한 미를 표현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고전적인 예술에 있어서는 예술가의 창의가 가공되기는 하나 –그 점 예술품과 사진과는 다른 것이나- 역시 모방이라는 성격을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전세기에 이르러 모방 화나 현대시 같은 무엇을 표현하였는지 알 수 없는 괴물들이 성행하게 된 것은 예술의 모방적인 성격이 희박해진 반면, 작가의 능동적인 창의 면이 극도로 고양되고 글자 그대로 예술은 창작이라는 의식이 강하여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식이 강하여질 때 작가는 한 장의 그림을 그릴 때에도 있는 그대로의 대상의 구성을 전부 해체하고, 작가자신의 특유한 형태를 구성하기에 이르는 것일 것이다. 그러니 문외한인 관객은 무엇을 그렸는지 알 수가없다. 관객의 심중(心中)에는 '예술은 모방'이라는 고전적이고 자연적인 견해가 의식적 무의식적 간에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화면에 대하자 늘 '무엇을 그렸는가'를 묻는다. 그 무엇이 자연적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한탄이 나온다. 그러므로 추상화를 대할 때에는 우리의 이러한 물음과 태도를 버리고 화면에 나타난 그대로의 형태, 그대로의 색채만의 주의를 집중하면 되는 것이다. 그 이상의 것을 구해서 안 되며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다. 현대시에 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현대시의 난해성' 운운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은 독자가 통일적인 의미를 묻고 구하기 때문이다. 그런 물음과 구하는 태도를 버릴 때 '난해하다'는 탄성은 스스로 사라질 것이다. 시중에 나타난 언어가 주로 막연한 이미지를 감득(感得)하면 되는 것이며 그 이미지에 대하여 공감을 느끼는 바가 있으면 다행한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뿐인 것이다.

필자는 예술에 대해서는 한 문외한에 불과하나 이상 말한 정도의 이해는 가지고 있다고 자처하는데 문제는 이로부터이다. 왜냐하면 학문에 있어서 보편타당성, 예술에 있어서는 관자 혹은 독자와의 공감 –실존주의 철학자 야스퍼스의 말을 차용하면 통심(Communication)-이 불가결의 요건으로 생각되는데 추상화니 현대시니 하는 괴물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공감이나 통심을 환기(喚起)할 수 있겠는지 지극히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시대는 바야흐로 정치, 경제, 문화 그 어느 면을 보더라도 대중의 시대요 민주주의의 시대이다. 홀로 예술가만이 귀족적인 엘리트 근성을 가지고 대중과 유리(遊離)해서 될 것인가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은 후진국, 인구밀도는 세계에서 5위요, 국민소득은 꼴찌로부터 4위라는 이 참담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홀로 시인만이 말초신경적 이미지의 환기에 골몰하면 족할 것인가. 그렇다고 단순한 모방으로 복귀

할 수도 없는 형편이니 모방도 아니요 추상도 아닌 제3의 길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말을 시인 지훈으로부터 들은 일이 있는데 지언(至言)이라 하겠다.

불상의 문제가 아니라

여 석 기(呂石基)

일전 일간(日刊) 모시가 알려준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 유럽 각국에서 2년에 걸쳐 순회전시해온 국보급 명작 미술품이 그 스케줄을 마치고 서울에 돌아와 이제 국립박물관에 돌아온 그 귀국 전시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구경꾼이 거의 없는 지경이라 하였다. 나는 원래 미술에 대해 거의 무식한 일개 문외한(門外漢)에 지나지 않고 그 한 가지 예로서 금년의 국전 구경 같은 것도 그만 빼먹어 버린 그런 인간이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미 유럽 각국에서 호평을 얻고 있다고 이따금씩 보도되는 것을 들은 바 있는 이 미술품들이 우리나라에 금의환향(?)했다는 기사를 근자 신문에서 본 기억이 전혀 없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신문에서도 이 미술품들의 환국을 보도한 것이 아니라 돌아는 왔는데 거의 전부 신문들이 돌아왔다는 기사 한 번 내준 적이 없고 또 전시회를 가져도 거기 대해 취재한적 한 번이 없다는 박물관 측의 유감의 뜻을 알려준 것이었다. 그리고 또 그 기사에 의할 것 같으면 이 미술품들이 진해인가 어디에 도착했을 때 보도관계자로 마중 나온 것은 미국계사의 기자들뿐이었지 한국 신문 통신 관계자들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이점은 우리가 이만저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인 것 같다.

우리가 말끝마다 문화를 사랑하고 전통을 존중하다 하면서 정작 그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문화재에 대해 매우 소홀하다는 사실은 이 경우에 국한해서 보도관계자의 실수인지 무관심인지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거의 보편적인 사실이 아닌가 싶다. 해외 나가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하는 그 불상들이나 도자기나 그림이나 그 밖의 수천년의 후광을 몸에 지닌 미술품들이 정작 자기네 동포를 만나서, 그것도 이태 동안이나 집을 비웠다 돌아온 끝에 이런 푸대접을 받았으니 그 섭섭함을 짐작해 남음이 있지 않겠는가.

항용 우리 자신이 반성할 때도 우리가 자기 것을 너무나 경시하는 경향을 지적하는 기자들이 적지 않다. 이번 경우만 해도 우리는 언필칭(言必稱) 우리의 미술이니 문화재니 입으로만 돌보아야 한다고 떠들었지 그것을 우리의 생활가운데 두고 감상하고 음미(吟味)하는 일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반성해 봄직 하다. 이것은 단순히 미술을 안다든가 문화를 애호한다든가 하는 문제라기보다 우리네 생활이 얼마나 메마르고 정신적 내용을 결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일례이다. 나라가 가난하고 생활의 여유가 없다든가 하는 이야기로 일괄(一括)해서 변명할 것이 아니라 그 가난 속에서도 굶주림 속에서도 삶의 윤기를 잃어서는 안 되겠다는 '어떻게 사느냐'하는 문제와 결부되는 이야기라고 나는 생각한다.

가난하다고 하지만 우리네 일부는 일본서 야구단이 오면 일금 3백원정을 내고서 서울운동장에 달려갈 만한 여유가 있다. 시민회관에 외국음악인들이 오면 2, 3일은 그 많은 좌석을 채워줄 만큼 문화인에도 군색하지는 않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눈앞의 호기에 정신이 팔려서 진정한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는데 있다. 생활을 되씹고 그 속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자미(滋味)를 맛볼 만한 마음의 자세를 갖추지 못한데 있는 것이다. 이것을 국민의 교양이라고 해도 좋다. 누군가 대학을 얼마나 나오고 미국 가서 박사를 얼마나 해 왔느냐는 이야기가 아니라 양식과 교양이 얼마나 생활화 되어 있느냐는 문제인 것이다. 이 이야기를 조금 확대해석하면 공무원이 쓸데없이 거만하거나 버스의 차장이 불친절한 것에 그대로 통한다고 할 수 있다. 무슨 신라시대의 부처님의 형태가 어떠니 선이 어떠니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신문만 해도 그렇다 팔아야 되니까 영화배우가 어쩌고저쩌고 하여 유치장에 들어갔다는 기사도 연일 대서특필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기사거리가 충분치 못하여 야담까지 동원시키는 판에 왜 돌아온 국보미술품의 지상전시쯤은 못하느냐는 말이다. 욕심대로 하면 박물관 당사자가 구라파 각국을 돌아다니는 동안에 여러 신문잡지에 소개나 비평이 실린 것을 모아 받아 오기도 했을 터이니 왜 그것을 요령 있게 독자에게 소개하지 못 하는가 아이디어의 빈곤이라기보다 역시 이것도 우리가 탈피 못하고 있는 저

교양의 결여의 탓이 아닐까. 누구는 이것을 후진성이라고도 말할 것이다.
지금 한국에는 라디오·드라마가 한창이다. 그 복덕방(福德房)식 웃음과 신파조(新派調)의 흐느낌이 서민의 생활의 하루의 시달림과 근심걱정에서 잠시나마 해방되는 저녁 한 때를 얼마만큼 즐겁게 해주는지 나는 잘 모르겠으나 한쪽에서는 박물관이 언제나 쓸쓸하고 조금이라도 진지(眞摯)한 예술에는 등을 대고 일본책의 번역이 아니면 아예 외면해 버리는 그런 문화의 기반을 갖고서는 내일의 설계가 어렵다. 우선 문화의 일부 엘리트(선량(選良))라도 좋으니 공고(鞏固)하게 뭉쳐진 그룹이 생겨 좋은 음악, 좋은 연극, 좋은 미술을 아껴주는 관객과 청중이 되어 주어야 하겠다. 라디오·드라마와 T·V 쇼만 갖고서 그리고 상업주의에 광분하는 영화가 성한다고만 해서 문화의 겉치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오해이다. 그리고 난 연후(然後)에 생활에 윤기(潤氣)를 좀 더 돌게끔 해야겠다.
이것은 결코 과분한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느 · 끄라쇠 · 빠
(NE CRACHEZ PAS)
(— 침 뱉지 마시오 —)

김향안(金鄕岸)

파리의 거리 담벼락에는 「18XX년 법령에 의해서 광고 붙이는 것을 금지함」이란 공고문이 여기저기에 페인트로 쓰여 있다. 광고는 지정된 광고탑 이외에는 허물게 된 건물의 벽에 한해서만 허가되어 있었다.
이 담벼락의 공고문과 같이 또 하나 눈에 뜨이는 것이 지하철이나 공원이나 경시청 같은 공공건물에 붙어 있는 「느·끄라쇠·빠」(침 뱉지 마시오)라는 공고문이다.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라는 구절은 없으나 「침 뱉지 마시오」 라든지 「침 뱉는 것을 금함」이라고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다.
나는 가다가는 그것이 마치 우리 민족에게 향해서 붙여져 있는 것과 같이 착각될 때가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처하는 아틀리에를 찾아오는 동포 방문객 중에는 곧잘 퇘! 하고 큰 가래침을 뱉으면서 정원을 통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우리 방에서는 들릴 때 정원을 같이 쓰고 사는 이웃 아틀리에에서 들도 들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되면 참으로 민망했다.
우리도 서울에 살 때는 길바닥에 침을 뱉고 살았다. 서울거리의 포장도로가 오늘만도 못 했던 7,8년 전만 해도 거리에 나오면 그냥 온통 먼지를 뒤집어쓰고, 마시고, 사는 셈이어서 버스나 자동차가 휙 지나간 다음에는 아무리 입을 다물어도 입안에서 그럭거리는 모래알을 그냥 삼킬 수가 없어 자연히 침을 뱉게 되었던 거다.
파리의 거리는 완전 포장이 된 데다가 도로가에 수도를 묻어 아침, 저녁으로 콸콸 솟는 물을 가지고 대빗자루로 쓸어버리니 맨발로 다녀도 좋도록 길바닥이 깨끗하다. 다만 파리의 먼지라면 아직도 무식한 층에서 다삐(양탄자)를 창문에서 거리에 내대고 터는 가증(可憎)한 습관을 목격하는 골목길의 정도일 거다.
파리에는 거리거리의 광장에, 공원에 수도가 있어서 길 가다가 어디서든지 손을 씻을 수가 있다. 레스토랑이나 카페의 변소(세면소를 겸한)가 우리네처럼 냄새를 피우지 않는다. 거리가 깨끗하고 거리에서 피우는 냄새는 포도주 냄새가 아니면 꽃 계절에 마로니에 꽃향기가 녹녹하도록 진동할 뿐 쓰레기 썩는 냄새나 인분 냄새나 또는 연탄가스 냄새 같은 것이 없다.
그러나 이 모든 이유로서 파리 사람들이 길에다 침을 안 뱉는 것은 아닐 거다. 그들은 생리적으로 우리와 달라서 군침이 안 나오고 가래가 없을 뿐이다. 그들이 육식을 하는 까닭인지도 모른다. 성량이 풍부하고 기관(氣管)이 기름진 것 같다. 거리나 카페에서 지껄이는 파리지앵들의 대화를 들으면 그들의 성대는 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 목 뒤의 깊은 곳에서 풍부하게 울려나오는 것 같다. 그러기에 채식을 주로 하는 동양 사람들이 그들의 발음을 그대로 흉내 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 될 때가 있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서 침을 안 뱉을 거다. 위생적인 주택과 도시의 시설과 기름진 식생활이 그들로 하여금 침이나 가래를 뱉지 않게 한다는 것보다도 생리적으로 가래를 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럼 파리에서는 우리 민족뿐이 아닌 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느·끄라쇠·빠」가 붙어 있는 것일까? 파리에 연중 계속되는 도로공사의 대부분의 노동자는 알지에가 아니면

서반아의 노동자들이다. 그들은 최하층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역시 가래침을 뱉고 있었다. 그들의 체구는 메마르고 기관이 나쁜 것이다.
잠시 동안이라도 고국에 안 살다 돌아오니 처음에 견디기 어려운 것이 먼지와 소음과 비산(飛散)하는 가래침의 비말(飛沫)이었다. 먼지 속에 서서 사는 행상들, 전차를 타나 버스, 합승을 타나 차장, 승객 할 것 없이 퇴 퇴 가래침을 뱉는 통에, 승용물 바닥에 뱉고 구두로 문지르는 경우, 다방이나 식당에서까지도 이것은 신사와 숙녀의 구별이 없이 구두 바닥이나 고무신 바닥으로 자기의 가래침을 문지르고 있는 것을 볼 때, 보는 사람은 누구나 등허리에 송충이라도 기어가는 것 같은 온몸이 오싹하는 느낌과 느글느글함을 느끼고 다시 그 발산된 균(菌)들이 전파될 것에 생각이 미칠 때 더한층 가공(可恐)할 불안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닐까.
얼마 전 어느 외국인이 쓴 한국 인상기에 한국 사람은 침을 뱉는다는 타이틀이 있었으나 나는 그 내용을 읽을 용기가 안 났는데 뒤이어 어느 고고학자의 수필에서 덮어 놓고 가래침을 뱉는 소행을 무지하고 교양 없는 소치라고 비분강개한 것을 읽었다. 드디어 어느 신문에게는 가래침을 뱉으면 벌금을 물리기로 할까 등등으로 물의가 자자하게 되었는데 나는 이 기회에 우리의 가래침 뱉는 버릇을 뿌리째 빼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벌금을 무는 방법으로라도 다스려서 금지 시키는 것에 물론 찬성한다.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위생시설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
나는 행인지 불행인지 서강 유역에 살며 서강의 풍경을 마음껏 즐기지만 당인리 발전소의 마물 같은 굴뚝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 석탄가루를 퍼붓는 바람에 곧잘 즐거운 산책을 희생당한다. 발전소의 굴뚝 이외에도 군데군데 서 있는 공장의 굴뚝들은 인근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건만 우리 사회에는 주택가를 보호하는 아무런 법도 서 있지 않는 것인지.
뿐만 아니라 아직도 마포구는 채전에 인분트럭을 쏟아 놓는다. 이 흉악한 냄새로 인해 나는 일 년 내 두통이 가시지를 않는다. 동리의 골목길엔 인분 통이 열려진 채로 마구 길로 넘쳐흐르니 어떻게 눈을 가리고 코를 막고만 살 수 있는가. 침이라도 뱉어야지. 인분냄새는 시내에서도 마찬가지다. 대낮의 골목길에서는 연탄잿 가루를 마구 뿌리는 쓰레기 리어카나 똥통지게꾼과 마주치기 일 수이고 밤거리에서는 아스팔트 대로를 인분 트럭이 달리며 풍기는 그 굉장한 냄새를 안 맡아본 서울 시민은 없을 거다.
또 주택가 골목길을 걷노라면 우리가 무시로 희생되고 있는 저 무서운 유독한 구공탄가스의 냄새가 코에 스며오지 않는가. 건물들이 높지 않은 우리 도시엔 구공탄 가스가 상승하기 전에 먼저 시민들이 마시게 되며 우리의 온돌 구조는 감기 들기에 마침 알맞고 기관을 상하기에 가장 적절하고 또 비능률적이며 퇴보적이다.
해마다 파리 유학 한국 학생의 거의 백퍼센트가 엄격한 파리의 학생 신체검사에서 결핵보균자로서 걸리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 위와 같은 연유에서 기인하는 것일 거다. 우리는 보균하고 있으면서도 무감각한 속에서 살고 있는 거다. 비위생적인 시설 속에서 채식을 하는 까닭에 기생충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
과학적인 의사가 아니어도 상식으로 판단되는 이러한 비위생적인 시설 속에서 살기에 우리는 침을 뱉으며 가래침을 뱉는 것이 아닐까.
주택을 주택답게 건설하고 상수도 하수도가 완전한 도시다운 위생시설을 갖추고, 그리고 가래침을 뱉는 시민에게 벌금을 물리면 좋겠다.

<P77에서>

신라라는 나라는 야무진 화강석들을 사뭇 떡 주무르 듯한 나라였다. 경주박물관에 놓여진 가지가지 돌조각들, 그 중에서도 내남리 출토의 석조 삼존불의 부드럽고 욕심 없는 미소를 보자, 이것이 신라의 돌의 예술이다.
석굴암의 조각들 그리고 덕수궁 미술관의 금동반가상, 국립박물관의 금동반가상, 이것은 줄기찬 한국미의 의지, 이처럼 숭고하게 이처럼 신비롭게 외국양식을 세련으로 이끌 수 있었던 한국인의 의지를 소중이 해야만 되겠다.
고졸(古拙)의 미와 추상의 미가 멋진 해화(諧和)를 이룬 한국고대 조각들은 너무나 고고한 아름다움을 갖추어 지니고 있다.

7.

한국은 과거의 나라가 아니다. 면면(綿綿)히 전통을 이어온, 그리고 아직도 젊은 나라다. 미술은 망하지도 죽지도 않았으며 과거의 미술이 아니라 아직도 씩씩한 맥박이 뛰고 있는 살아있는 미술이다.

단상어록(斷想語錄)

박 종 철
<동화(同和)뉴스 편집장(編輯長)>

<절량(絶糧)의 붓>

문사(文士).
화가(畫家).
신문기자(新聞記者).
모두 붓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로 우리 사회에서는 으레 가난뱅이로 치부해 두고 있다.
아무리 써도 팔리지 않고 부지런히 그림을 그려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난할 밖에 없다는 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달운 글, 그림다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도 모른다.
쓸려고 쓴 글도 아니요 그렇다고 써야만 해서 쓴 글도 아닌데 글을 써 온지 어느덧 10년이 지난 모양이다. 직업이 글을 쓰게 하는 신문기자를 준문사(準文士)로 해 둔다면 막말 일지 몰라도 그렇게 해 놓고 준(準) 위안(慰安)을 해 본다.
반소식(飯蔬食) 음수(飮水) 곡굉이침지(曲肱而沈之) 낙역기중(樂亦其中) 불이이부사귀(不義而富些貴) 어아여부운(於我如浮雲)
소찬을 먹고 물을 마시고 팔을 베개 삼아 베고 사는 생활이라도 또한 그 속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그릇된 일을 해가지고 부귀를 누리는 것은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은 일이다.
<조간도(朝聞道) 석사가의(夕死可矣)>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는 공자의 높은 정성의 숨결이 배인 글이다. 몇 번이고 되집어 본다.
인생(人生) 사환화(似幻化) 종당(終當) 귀공무(歸空無)
인생은 꿈과 같은 것. 끝내 무로 돌아가는 것.
인생의 무상을 읊은 도연명의 시를 빌리지 않아도 공으로 스러지는게 사람인데 불의를 해서까지 부귀를 잡는 어리석은 사림이 되고 싶지는 않다.
사생취의(捨生取義)는 못해도 내말로 '삶'의 수렁을 팔수는 없는 노릇이다. 눈 팡에 벌어지는 현실의 성패나 이해도는 슬픔과 기쁨에 매달리지 말고 너그러운 심정과 넓은 눈을 가지고 인생을 상아 나가고 싶다.
일성(一聲) 오계명장부능사필(午鷄鳴丈夫能事畢)이라고 한 서산대사의 고시(古詩)가 말하듯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빈천고난을 겪거나 도는 크고 작은 일을 하는 것을 따지고 보면 낮에 수탉이 꼬끼요 하고 울면서 대낮을 알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말이다.

<일곱 칠(七)자의 풀이>

여섯에 하나를 더 한수가 일곱이며 여덟에서 하나를 빼면 일곱이 된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사람들은 7이란 수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동양세서 7이란 수가 존중되는 것은 어느 의미로 보면 변화 많은 사물의 움직임을 안정해 주는데서왔는지도 모른다. 주역(周易)에서도 복괘(復卦)를 풀어 논 것 가운데서 '반복기도(反復其道)하여 칠일내복(七日來復)'이라고 한말이 있다. 이것은 삼라만상의 구성요건인 음과 양이 서로 얽혀서 새로운 것을 낳게 될 때 7이란 수의 배수는 변화를 되풀이 한다는 뜻이다. 계절을 보아도 음력 5월 하지에서 동지, 음력11월까지 7개월로 나누어져 있다.
사람의 감정도 희·노·애(哀)· 구(懼)·애(愛)·악욕(惡欲) 칠정(七情)으로 나타난다. 그뿐만이 아니라 빗갈에도 청·황·적·등(橙)·녹·람(藍)·자(紫)의 칠색에 음률 역시 궁·상·각·치·우와 변궁(變宮)·변치(變徵) 칠 음률로 되어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경서(經書)에도 대학·논어·맹자·중용의 사서와 시전(詩傳)·서전(書傳)·주역의 칠서가 있다.
그런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럭키 세븐이라고 해서 7의 수를 행운의 수로 정해 놓고 있다
일주일도 7일로 매듭을 지어 놓고 있으며 여자를 화장하는 데까지 칠보단장 또는 칠전팔기(七顚八起)니 해서 7의 수를 붙여 논 말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한 가지 더 보기를 들어 본다면 사람이 태어나서 3·7일이 지나야만 산모가 한숨을 돌리고 어린애도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틀이 잡히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7일란 수는 삼라만상의 변화를 안정시키는 기준수란 말인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죽간두과삼추(竹竿頭過三秋)>

<대 끝에서도 3년이라>
우리나라 속담이다.
간두(竿頭)에서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역경에 처해서 굽히지 않고 참고 견디어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대 끝에서 3년이라니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힌 노릇이다. 이와 뜻이 통하는 말로 수천석두(水穿石頭)라는 말이 있다.
물이 돌을 뚫는다는 말이다.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의욕과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라는 큰 뜻이다. 또 이런 말이 있다. '공부를 절구공이로 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에는 재미난 얘기가 얽혀 있다.
시인 이태백이가 젊었을 때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글공부를 하다가 몇 년 후 자기 생각에는 이만하면 공부를 그만해도 괜찮겠다고 자신을 가지고 산을 내려오다 깊 섶에서 노파 한 사람을 만났다.
그때 그 노파는 쇠절구공이를 열심히 돌에 갈고 있었다. 이태백이가 그것은 그렇게 갈아서 무엇에 쓰느냐고 물으니까 노파 대답이 "이 절구공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겠다"고 대답을 했다. 이태백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붉힌 다음 다시 산에 들어가 꾸준히 글 공부를 해서 시선(詩仙)이 되었다. 절구공이를 갈아 바늘로 만드는 노력과 끈기에 놀라움보다 무서움이 앞선다.
중국 말고 가까운 인천에도 이런 분이 있다. 이름이 김태학이라는 분이다. 독학으로 19세때 보통문관시험을 패스한 분이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술자리에서 아니꼽게 거들먹거리는 일인 경찰서장을 때려준 것이 화근이 되어 변호사시험을 보아도 낙제의 고배를 맛보았다. 그러나 꾸준히 계속해서 시험을 보았다. 우리나라에 변호사시험제도가 실시된 1923년부터 한해도 거르지 않고 시험을 보았다.
해방이 되도 계속해 보았다. 드디어 시험을 보기 시작한지 28회 만에 영예(榮譽)의 시험합격증을 손에 받아 들었다. 28년 만에 변호사가 된 것이다. 그의 나이 그때 이미 칠순(七旬)이 가까웠다. 이쯤 되면 초지관철을 위한 칠전팔기 백절불굴(百折不屈)의 용기와 끈기는 백척간두에서 열반(涅槃)의 경지에 닿았다고 하겠다.

<실례(失禮)>

자기의 진짜 나이를 말하는 여자를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나이를 말하는 여자는 무엇이든지 말하는 여자이다.
오스카 와일드의 말이다.
오스카 와일드 말대로 한다면 여자는 언제나 나이를 속여야만 하겠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열이면 아홉은 제 나이를 제대로 실토하는 여자가 드믄 듯싶다. 그것보다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자가 여자 나이를 물으면 큰 실례가 되고 있는데 까닭을 모르겠다. 젊어지려고 발버둥치는 시대라 그런지 모르겠다.
어떻든 10세 안팎에 시집가서 40전후에 며느리 보는 것을 자랑으로 삼으며 늙은 축에 드는 것을 좋아하는 생각은 이제 씻은 듯이 가시고 옛 얘기가 되었다. 특히 여자의 경우 30이 지나면 두드러지게 나이를 속이기 시작한다. 나이를 몇 해고 붙잡아 매어 두자는 것이다. 서양여자는 29세에서 30세가 되려면 자그마치 5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다. 29세를 5년 동안이나 사수하고 고집하는 심정에 동정이 가기는 가지만 참으로 기이한 연령계산법이다.
그러나 청년미를 사수하는데 나이를 붙잡아 매놓게 됨으로서 영원한 젊음을 간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다.
어떻든 여자들이 자기 나이를 속이는 경향이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가짜 나이를 말하고 올바른 자기 나이를 실토하지 않는 것이다.

말로만 애국 말고
실천으로 재건하자

옛날 옛날 그 옛날 -

그 보다도 더 먼 옛날이었습니다. 동쪽 나라 저 멀리 조그마한 토끼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때 이 토끼 왕국의 왕 토끼는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는 많은 궁녀를 거느리고 있었으나 행인지 불행인지 소생이라고는 왕비 토끼가 낳은 아직도 나이 어린 왕자 토끼 하나뿐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는 하지만 장가들 나이는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 토끼는 하나밖에 없는 외둥이 왕자인지라 금지옥엽처럼 애지중지하여 성 바깥에는커녕 궁성 바깥에도 좀처럼 내어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자 토끼는 불만이었습니다. 왕자 토끼는 생각하기를 이제 자기는 충분히 어른이 되었으며 나이 많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바마마의 뒤를 이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토의 방방곡곡까지는 그만두더라도 적어도 성내의 물정은 알아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왕자 토끼는 아바마마 토끼에게 장차 아버지를 도울 왕자로서 국정을 알아둘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궁성 밖 시찰을 나갈 것을 간청했습니다. 왕 토끼는 왕자 토끼의 마음이 갸륵하기는 했으나 선뜻 승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자 토끼의 줄기찬 요구에 왕 토끼는 조건부로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건이란 국방대신 토끼의 승낙을 얻어 한 명의 육군대장을 대동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자 토끼는 국방대신 토끼와 수의하여 한 명의 호위병만을 데리고 성내 시찰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호위병도 호위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길을 안내하기로 하였고 시찰이라기보다는 견학이었습니다.

왕자 토끼는 성 위에 올라가 서서 멀리 산과 들과 그리고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 넓은 산이며 들에서 마음껏 뛰놀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왕자 토끼는 호위병 토끼를 뒷 세우고 성 위를 걸어가며 물었습니다.

"우리 국토는 어디까지인가?"

"저기 저 멀리 보이는 강이 바로 국경선이옵니다."하고 호위병 토끼는 앞발을 쳐들어 강을 가리켰습니다.

신판 토끼전

제1편 고대사

- 왕자 토끼의 비극 -

계문수(桂文樹)
삽화 고두현(高斗鉉)

"강 건너는 무슨 나라이지?"

"호랑이 나라이옵니다. 호랑이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몇 갑절이나 크옵지요."

그러자 왕자 토끼는 강 건너 산 밑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어기 산 밑에 연기가 나는군. 호랑이 나라에서는 음식을 익혀서 먹는 모양인가"

호위병 토끼는 부동의 자세를 취하면서 아뢰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담배를 피우는 연기옵니다."

이 호위병 토끼의 대꾸로 미루어 보아 아마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아득한 옛날이었음이 짐작됩니다.

왕자 토끼는 아직 호랑이를 본 적이 없지만 호위병 토끼는 여러 번 호랑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호랑이가 기습하여 토끼를 잡아먹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호랑이가 기습을 할 때면 토끼 왕국은 재빨리 성문을 닫고 대피호 속으로 숨어 버립니다.

그러나 호랑이가 토끼 왕국을 기습하기란 퍽 힘 드는 일이었습니다. 호랑이 왕국에서 출동 준비를 하면 토끼 왕국의 국경 부대는 곧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간첩이나 오열이 있어서가 아니고 토끼는 호랑이에 비해서 7배나 성능이 우수한 레이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끼의 머리에 좋긋하게 달려있는 길다란 귀가 바로 그 고성능 레이다 였습니다.

이 레이다는 놀랍게도 2키로 밖에서 귀뚜라미가 풀잎에 기어가는 소리를 캐취 할 수 있는 음파 탐지기인 것입니다. 때문에 국경선에 배치되어 있는 토끼 수비병은 호랑이의 부대 이동을 곧 캐취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후 왕자 토끼는 성 위에서 내려와 성내 토끼

백성들의 민정을 두루 시찰하였습니다. 그는 장안의 구석구석을 골고루 구경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뒷골목에서 왕자 토끼는 예쁘고 사랑스러운 한 마리의 처녀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그 처녀 토끼는 풀밭에서 아주 부드러운 풀을 뜯어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목(耳目)이 수려한 왕자 토끼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처녀 토끼는 수줍음에 얼굴이 빨개지며 그만 그곳을 떠나 달아났습니다.

"저 처녀 토끼를 나에게 데려다 줄 수는 없겠는가."

호위병 토끼는 곧 처녀 토끼를 뒤쫓았습니다. 그의 걸음은 화살처럼 빨랐습니다. 얼마 후 호위병 토끼는 처녀 토끼를 왕자 토끼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 분은 이 나라의 다음 왕위를 계승하실 왕자 토끼이시다. 공손히 인사말을 여쭈어라" 하고 호위병 토끼는 위엄 있게 말했습니다.

"왕자 토끼님, 저는 아까 왕자 토끼님이신 줄 꿈에도 모르고 불공한 행동을 취했나이다. 황공하옵니다. 널리 용서하여 주옵소서"

처녀 토끼는 앞발을 모아 공손히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자 토끼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아름답소. 앞으로 나와 자주 만나 주기를 원하오."

"귀하신 몸께서 그러한 말씀, 오직 황공할 뿐인가 생각하옵니다."하고 처녀 토끼는 다시 얼굴을 붉히었습니다.

"그럼 약속한 것으로 알고 이 몸은 돌아가겠소."

왕자 토끼는 싱긋 한 번 웃어 주고 곧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돌아선 왕자 토끼는 호위병 토끼에게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자네, 저 처녀 토끼의 신분과 가문과 그리고 그의 집을 곧 조사해 주게. 이것은 비밀이니 아무도 몰래 조사해서 내일 아침까지 가르쳐 주게. C.C나 다른 정보기관을 통하지 말고 자네가 직접 조사해 주게"

"넷, 알았습니다."

호위병 토끼는 부동자세로 경례를 붙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궁성 위병소 별실에서 왕자 토끼는 호위병 토끼로부터 처녀 토끼에 관한 자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처녀 토끼는 무사의 딸이며 아버지는 일 년 전까지 당당한 토끼 왕국의 대대장이었으나 국경을 수비하던 중 호랑이 부대와 격렬한 전투가 있어 그 전투에서 장렬한 전사로 토끼 왕국의 호국의 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토끼가 전사하자 36남매는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은 행방조차 알 길이 없고 어머니 토끼는 오랜 신병으로 지금도 누워 있는데 집이 가난해서 처녀 토끼는 어머니 토끼를 위해서 약 한 첩 쓰지 못함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처녀 토기는 효성이 지극하여 매일 어머니 토끼가 좋아하는 풀을 뜯으러 헤매고 있으며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성 밖의 멀리 국경 지대까지 나가서 풀을 뜯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왕자 토끼는 아바마마 토끼 몰래 궁성에 있는 산해의 진미(山海의 珍味)를 가지고 몰래 처녀 토끼를 찾아 갔습니다.

3월이라 들에는 아지랑이 끼고 바람은 아직 싸늘했으나 꽃향기를 싣고 왔습니다. 왕자 토끼와 처녀 토끼는 푸릇푸릇 새싹이 돋는 바위 틈 푸른 풀밭에서 만났습니다.

"이것은 거북의 상인들이 아바마마에게 바친 산해의 진미,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약초이니 어머니 토끼를 주시오. 병이 나을지도 모르니."하고 왕자 토끼는 처녀 토끼에게 주었습니다.

"왕자 토끼님, 이 은공을 무엇으로 갚으오리까."

처녀 토끼는 눈물을 흘리며 황공해 하고 또 즐거워했습니다.

왕자 토끼는 거의 매일같이 남몰래 처녀 토끼를 찾아왔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왕자 토끼와 처녀 토끼는

하루도 못 만나는 사이에는 피차가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치 그리워했습니다.
처녀 토끼의 어머니 토끼는 왕자 토끼가 가져온 약초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병도 좋아진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토끼는 그것이 왕자 토끼가 가져온 귀중한 약초인 줄은 몰랐습니다. 처녀 토끼는 왕자 토끼의 신상을 걱정해서 어머니 토끼에게도 그것을 비밀에 붙이고 성 밖에 있는 어느 산 밑에서 구해 온다고만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왕자 토끼와 처녀 토끼는 그윽한 달빛 아래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왕자 토끼와 처녀 토끼는 행복감에 넘쳤습니다. 그리고 왕자 토끼는 처녀 토끼를 포옹하고 뜨거운 키스를 했습니다. 처녀 토끼도 그 부드러운 살결을 왕자 토끼에게 내맡겼습니다.
얼마 동안 왕자 토끼는 약초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궁성에 있는 약초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북의 상인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토끼 왕국의 궁성과 높은 지위에 있는 토끼들을 찾아 와서 온갖 귀한 물건들을 팔곤 했지만 올 때마다 그 약초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약초는 불로초라는 것이었으며 거북의 나라에서만 생산되는 것이었으나 거북의 상인들도 관세가 비싼 것과 또 수출에는 왕 거북의 허가를 얻어야만 하는 통제품이었기 때문에 매우 힘 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뿐만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거북 상인들이 가져오는 불로초는 가짜가 많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장 하등품이었습니다. 불로초에 대한 엄격한 통제는 자연 가짜를 만들게 하였고 하등품을 진짜인 양 속여서 팔게 되었습니다. 진짜를 먹으면 누구라도 천년을 살 수 있었습니다. 거북들의 수명이 긴 것은 이 불로초를 먹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등품이라 하더라도 약효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것은 장복(長服)을 함으로써만이 약간의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진짜를 모르는 토끼 왕국의 귀족들은 하등품이나 때로는 가짜를 그대로 불로초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는 커다란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거북 상인들은 실은 간첩들이 많았습니다. 토끼 왕국의 성문을 무난히 출입할 수 있는 자는 오직 거북 상인들뿐이었는데 그 이유는 토기들이 자기네들의 지능지수를 과대평가하는 반면에 거북들을 깔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거북은 토끼처럼 고성능의 레이다도 안 가졌고 토끼처럼 빠른 아풍속(亞風速) 제트기도 안 가졌을 뿐만 아니라 느림보로서 토끼의 적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북들은 엉큼하고 또 원대하며, 장기전을 펴고 있었습니다.
거북 왕국은 호랑이 왕국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럴싸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거북을 먹지 않았지만 토기고기는 가장 고급 식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토끼 왕국은 호랑이 왕국을 일등국으로 여기는 반면에 거북 왕국은 후진 미개발국으로 천시하고 깔보고 있었기 때문에 거북 왕국은 토끼 왕국을 미워하고 언젠가는 한번 토끼 왕국을 망쳐 놓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자 토끼가 거북 상인들이 불로초를 가지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거북의 간첩이 왕자 토끼와 처녀 토끼의 관계를 잘 알고 침입해 왔습니다.
처녀 토끼가 들에서 어머니 토끼가 좋아하는 풀을 뜯고 있을 때 간첩 거북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먹기는 좋지만 약은 안 됩니다. 나는 토끼 왕국 궁성에 불로초를 공급하는 상인인데 처녀 토끼가 그것을 원한다면 내가 구해 주겠습니다. 처녀 토끼는 효성이 지극해서 우리 거북상인들이 모두 칭송하고 있답니다."
처녀 토끼는 좋아하며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서쪽 나라로 가시지요. 좀 멀기는 하지만 처녀토끼는 걸음이 빠르니 저를 업고 간다면 곧 갈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불로초는 얼마라도 무료로 얻을 수 있고 한 번만 알아두면 다음부터는 혼자서 얼마라도 갈 수가 있거든요."이리하여 처녀토끼는 거북을 따라 서쪽나라로 따라갔습니다.
떠날 때 간첩 거북은 다른 간첩 거북을 시켜서 이 소문을 장안에 퍼뜨리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게 한 것은 왕자 토끼를 끌어내자는 복선이 있었던 것이다.
처녀 토끼가 불로초를 구하려고 거북을 따라 서쪽 나라로 떠났다는 정보를 입수한 왕자 토끼는 불현듯 그의 뒤를 따라 궁성을 탈출하여 단신, 서쪽나라로 달려갔습니다. 왕자 토끼는 밤의 어둠을 틈타 위험한 호랑이 나라, 사자 나라, 곰 나라를 돌파하여 일로 서쪽 나라로 달렸습니다. 얼마간 달렸을 때 그는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광막한 푸른 바다가 그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서쪽 나라는 이 바다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왕자 토끼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그냥 우두커니 바닷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침 저쪽에서 조각배 하나가 떠내려 왔습니다. 왕자 토끼는 뛰다시피 좋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보내 준 것이라고 왕자 토끼는 생각했습니다.
조각배에는 계수나무 한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왕자 토끼는 그 조각배에 올라탔습니다. 조각배는 신기하게도 돛대도 바람도 없는데도 서쪽나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그 푸른 바다는 한없이 넓고 끝없는 바다였습니다. 가도 가도 못다 가는 광막한 바다였습니다.
간첩 거북을 따라간 처녀 토끼는 호랑이 나라에 뇌물로 바쳐졌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왕자 토끼는 지금도 애타는 가슴을 부둥켜안고 가도 가도 못다 가는 서쪽나라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계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삿대도 아니 달고서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제1편 끝)

시

1963년 그 하늘에서

조병화(趙炳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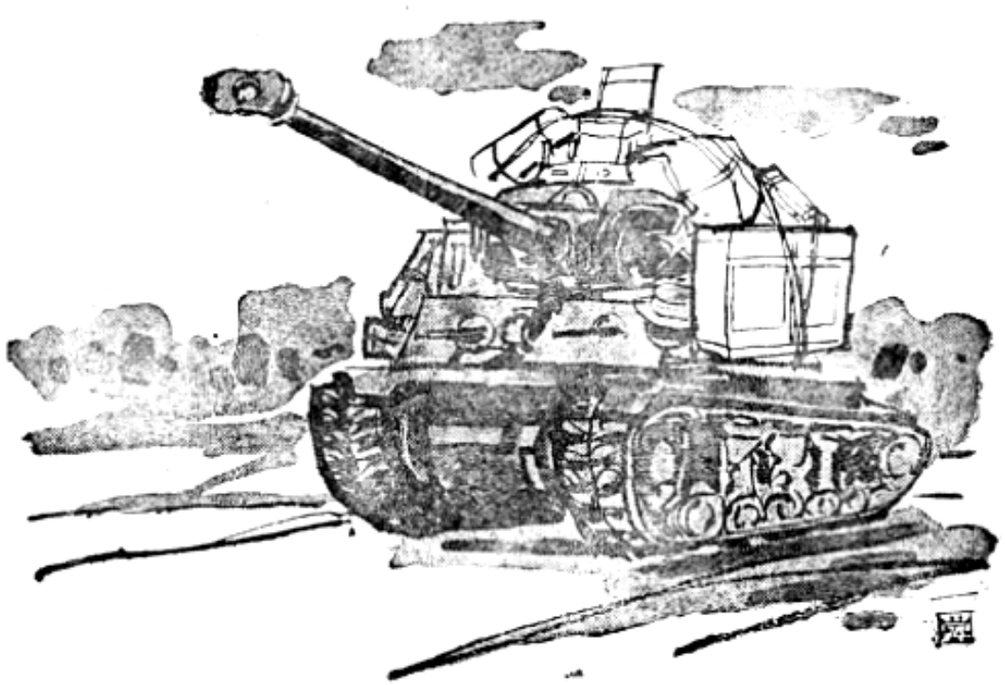
태양을 제일 먼저 본
눈에게
축복을 올리자

태양에 가장 가까운 자리
그 위에서
태양을 제일 먼저 본
눈에게
축복을 올리자

비, 바람 위를 나르며
마냥 한계가 없는
망망한 우주

그 위에서
가장 가까이 제일 먼저
태양을 본
눈에게
축복을 올리자

인간의 욕망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고
하늘을 두고 가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 제일 먼저
태양을 본
그 눈에게
축복을 올리자



명랑소설

토정비결(土亭秘訣)

조흔파(趙欣坡)

"빌어먹을…. 금년 토정비결에도 또 이삿수가 있단 말일세."

영보(永保)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철호(哲鎬)에게 말했다.

"하하하… 다달이 있지 않은 것만 다행으로 알게"하고 철호는 피우던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면서 맞대꾸를 한다.

점심시간이 막 끝나고 바로 오후 첫 시간이 시작된 교무실 안이다. 장터마냥 왁자지껄 떠들던 넓은 방안이 별안간 조용해지고 난로 위에 올려놓은 주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만이 졸음을 재촉하는 무렵이다.

"작년에두 다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사를 자주 다녔는걸."

(평균 한 달에 한 번 꼴은 되지?)

"여보게, 내가 그렇게두 항심(恒心)이 없는 사람으루 보이나? 만일 한 달에 한 번씩 다녔다구 하면, 나는 상관이 없다 치구 도대체 내 아내가 견뎌 배겼겠느냐 말이야."

"그럼 얼만큼씩에 한 번씩 다녔누?"

"대체로 두 달에 한 번 쯤 다닌 폭은 되지."

영보는 마치 이사 자주 다니는 것을 무슨 공로나 되는 것처럼 뻐기며 말한다.

"하하하…과연 항심이 있는 사람은 다르구먼."

"다시 이를 말인가, 두 달 이내에 이사한 일은 한 번두 없다네."

"암, 그래야지. 한 군데에 두달 쯤은 살아야 부인께서 고생이 덜할꺼야." 하는 철호의 대답을 야유인 줄을 아는지 모르는지 영보의 태도는 태연자약하다. 사실 영보는 이사를 자주 하였다. 그러기에 그는 가르치는 학생들 간에서 탱크라는 별명으로 불리 운다. ××여자 고등학교 학생에게 영보의 소식을 물을라 치면 박영보 선생이라 부르기 보다는 탱크 선생이라고 이르는 편이 한결 간편하고 알기 쉽기 마련이다. 실상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옮아가기

잘 하는 것이 탱크와 흡사하였고 옮아가되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한바탕 싸움을 하고 나서야 옮아가는 것이 진정 탱크와 비슷했거니와, 총알도 통하지 않는다는 탱크처럼 고집불통이어서 여간 남의 말은 듣지도 않는 것이 또한 탱크라고 불리 우기에 유감이 없는 터다. 동료나 학생 간에나 박영보 선생하면 얼른 이사를 연상하리만큼 그는 이사하는 데 명수다. 그것은 거의 운명적인 것이다. 그러기에 이같이 주택난이 극심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이사할 자극이 생겨나는 게 아닐까.

"전 달에 이사를 하고나서 숙소 변경계를 냈더니, 서무주임 말이, 그럴 것 없이 요담에 이사하실 때 한꺼번에 내시지요- 이러데 그려 미리부터 그런 방정을 떠니까 금년 신수에 또 이삿 수가 들었단 말이야."

"토정비결두 서무 주임의 책임인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금년두 또 이사는 면치 못할 것 같애."

"이미 각오하구 있나?"

"벌써 준비하구 있네."

"또 가나?"

"음, 꼭 한 번만 더 가야겠어."

6·25 사변이 일어나기 전에는 영보도 의젓한 자기 집을 쓰고 살았다. 그랬는데 바로 옆집으로 이사해 온 사람이 라디오 상회를 경영하는 이였다. 아침부터 밤까지 삐-하는 잡음과 함께 확성기를 통해서 울려 나오는 라디오 소리에는 정말 상성을 탈 지경이었다. 오른 편 집에 라디오 상회가 이사해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왼편 옆집에도 사람이 들었는지 이 친구는 생철 편철을 두드리어 연탄난로를 만들어 내는 위인이었다.

"삐익…삐익…. 탕…탕…."'홍도야 우지 마라, 오빠가 있다…"뚝딱 뚝딱……탕탕……"

아침저녁으로 듣는 이 소리에 골이 울리어 단박에 미쳐 버릴 지경이었다. 생각다 못해서 영보는 양쪽 집 주인에게 교섭하기를 그때 돈으로, 한 집에 만원씩을 줄 테니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생각이 없느냐고 하였다. 며칠 후 두 집 주인이 찾아와서 이사할 곳이 났으니 만원씩 달라고 하므로 영보는, 빚을 얻어다가 만원씩을 나누어 주었던 것이다. 드디어 두 집이 이사를 한다는 전날, 영보는 그들을 초대하여 송별회 잔치를 베풀었다. 겉으로는 송별연이었으나 속으로는 축하회였다. 라디오 쟁이와 연탄 난로씨가 어디로 이사하기만 한다면야 돈 이 삼 만원을 쓰기야 무엇이 아까우랴 싶었다. 흠뻑 얻어먹고 비틀거리고 돌아간 두 사람이 이튿날 아침에는 일찍부터 짐을 싸기 시작이었다. 이 광경을 본 영보는 매우 만족해서 출근을 했다가 저녁에 유쾌한 마음으로 퇴근을 하고 보니까, 이것이 대체 웬일이냐. 두 집이 분명 이사하기는 했다. 그런데 먼 데로 간 것이 아니고 라디오 상회는 난로 공장 자리로, 난로 공장은 라디오 상회 자리로 왔다. 결국 자리만 서로 바꾸었을 뿐이었다. 돈을 주고 술까지 실컷 먹었는데 결과는 소리 나는 방향만 달라졌을 뿐, 삐이익 탕탕하는 소리는 여전히 들리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 영보에게는 이웃을 싫어하는 버릇이 생겼다. 동란동안 피난을 갔다가 휴전이 되어 환도하고 보니 집이 타버렸다. 초가삼간 다 타도 빈대 타 죽는 게 시원하다는 속담대로 영보는 라디오 상회와 난로 공장 없어진 것이 대견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좋은 이웃을 찾아 헤매는 방랑의 길손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이 영보가 이사를 오락삼아 다니게 된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 간 데마다 싸우고 또 이사를 하고 하는 데에는 고집불통인 「탱크」의 본색을 드러내곤 하는 탓도 있다. 이야기가 났으니 말이지만 지난 가을에 추기(秋期)소풍을 가게 되었을 때다. 도시락 때문에 부인과 옥신각신 말다툼을 하다가, 장히 불쾌한 기분으로 옷을 입게 되었다. 즉 앞이 뒤로 가고 뒤가 앞으로 왔다. 이것을 본 부인이, "여보 바지를 돌려 입으셨어요, 바로 입으세요."하고 알려 주었건만 워낙 골이 잔뜩 난 판이라. "뭐 오십보백보지."하였다.

"아이 바로 입으시래두요."

"바로 입거나 돌려 입거나, 대동소이(大同小異)야"하고는 끝내 돌려 입은 채로 학생들의 집합 장소로 갔던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은, 오십보백보도 아니요, 대동소이는 더더구나 아니었다. 여학교에서 소풍을 갈 때면 선생들, 특히 남선생들이 미리부터 철저히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은 변소에 다녀오는 일이다. 왜냐하면 진종일을 여학생들이 눈에 뜨이는 곳에서 지내는 관계로 변소가 없는 들판에서는 대소변의 처리가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 줄을 모르는 영보는 아니었지만 고집 때문에 그냥 가서 홧김에 맥주를 세 병이나 마셨으니 무사할 리가 없다. 뱃속이 터질 것처럼 팽창하였으나 도무지 처리할 마땅한 장소가 없었다. 간신히 학생들의 시선이 닿지 않을 곳을 발견하고 그리로 달려간 데까지는 좋으나 양복바지를 보니 큰일이다. 그는, 고추 먹고 맴맴을 돌다가 갑자기 전신에 쾌감을 느끼는 동시에 바지 가랑이 속에서 미지근한 온도를 감촉하기에 이르렀다. 대동소이가 다 무엇이냐. 난데없는 물벼락을 맞은 것이다. 척척하고 선득선득한 것이 견딜 수 없이 불쾌했지만 그는 억지로라도 웃는 낯을 아니 지을 수 없었다. 그러나 풍겨나는 고약한 냄새만은 감출 수 가 없었다. 그것을 재빠르게 안 철호가,

"여보게, 이 담부터는 기저귀를 차고 다니게."하고 놀려 댔건만 영보는 이야기를 더 길게 끌까봐 겁이 나서 말없이 연신 웃기만 하고 있었다.

영보는 이러한 고집이 그가 가는 곳마다에서 이웃과의 사이를 갈라놓는 중대한 원인이 된다. 그는 또 남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할 때에는 반드시 편지로

하는 버릇이 있었다. 담임 반 학생들이 청소를 불성실하게 했을 때도 말로 나무라는 일이 없이 언제나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서한을 전달하는 것이 통례였다. 따라서 이웃집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을 때에도 늘 이 같은 방법을 쓴다. 그 결과로 또 이사를 하곤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사를 한 처음 며칠은 만족하는 모양이었다.

"철호군, 놀러 오게. 이번에 이사한 집은 참 좋아. 환경이 좋구 주위가 조용하구 꼭 한 번 들르게."

이렇게 자랑을 하다가도 한 달이 못 되어서,

"그런 줄 몰랐더니 고약한 동네야."하고는 또 이사를 하는 것이었다. 간혹은 철호가,

"여보게, 오는 공일날은 자네 집에 놀러감세."하는 때도 있다.

"아, 안돼."

"어째서?"

"바로 그 날 이사를 하기루 했으니까."

이런 때도 있었다. 영보는 지금 있는 데로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집에 처음 들었을 때에는 매우 만족한 모양이 있었으나 한 달 남짓이 살고는 투덜거리기 시작하였다.

"이번에두 또 뱀 잡았어."

"왜?"

"오른 쪽 집에 사는 자식이 못마땅해."

"뭐가"

"뽀너스를 받아다가 몽땅 마누라의 옷을 사줬거든."

"그게 뭣이 못마땅하단 말인가?"

"싸라리맨이면 다 같이 보조를 맞춰 가야지, 저 혼자 그런 짓을 하문 이웃에 미치는 영향이 크단 말이야."

"하하하, 그래서 어떻게 했나 또 편지를 보냈나"

"물론이지. 엄중히 항의하는 멧세지를 보냈다네."

"그래서?"

"그 자한테서두 회답이 왔어."

"무어라구?"

"앞으로는 집에서 무슨 물건을 살 때에는 기안(起案)을 해서 당신의 결재를 받은 후에 동네에 회람을 시키겠다구 했네. 그래서 참아 줬지."

"왼쪽 집에는 무엇이 불만인가."

"그 녀석두 월급쟁인데 식모 뒀겠지?"

"식모 둔 게 어째서 나빠?"

"동네 부인들이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했다네."

"그래서 또 멧세지를 보냈나?"

"보내구 말구 어디 참을 수 있어야지"

"그랬더니"

"회답은 없구, 식모 하나를 더 뒀단 말이야."

"하하하"

"웃을 일인가? 어디.……그래서 나는 또 이사를 하기루 했네."

이리하여 이사를 한 영보는 철호를 보고 또 자랑을 시작했다.

"이번에야 말루 근사한 데루 갔어. 한번 놀러 오게."

"그럼세. 또 이사하기 전에 한번 가지."

"아냐. 이번엔 영주(永住)의 땅을 얻은 셈이야. 그래서 이 주소를 넣은 명함을 박았지."

"옆집에는 누가 살구 있나?"

"목사가 살어."

"참 잘 됐네. 이번이야 말루 오래 살게."

"여부가 있나. 백년대계를 세우겠네."

과연 영보는 목사님 옆집에 석달 남짓이 살면서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 ×

영보는 교무실 난로 위에 놓인 주전자에서 차한잔을 따라서 마시고는 철호를 보고 빙그레 웃는다.

"토정비결에 있대서가 아니라 꼭 한 번 더 이사를 해야 겠네."

"목사님이 못마땅한가?"

"못마땅할 건 없어두 귀찮아. 글쎄 날더러 예수를 믿으라구 등쌀이야."

"안 믿으문 그만 아닌가."

"아니야. 아내가 벌써 전염이 돼 가지구 나더러 술을 끊으라구 야단한다네. 그나 그뿐인가. 내가 술이라두 마시구 들어간 이튿날 아침에는 해장국을 끓여 줄 생각은 않구 기도를 올리자구 대든다네."

"하하하, 그것 잘 됐구먼."

"그래서 한 번만 더 이사를 해야겠어."

"정초(正初)에 어디루 이사를 가겠나?"

"갈 데는 벌써 마련 됐지."

"빠르네 그려. 대체 어딘가?"

"놀래지 말게. 이번에 갈 곳을 자네가 살구 있는 동네야."

"내가 살구 있는 동네?"

"음, 바로 자네의 옆집이라네."

"뭐? 또 메, 메, 멧세지를 보낼 셈인가?"

"아니, 그럴 것 없이. 자네하구는 가까운 터이니까 말루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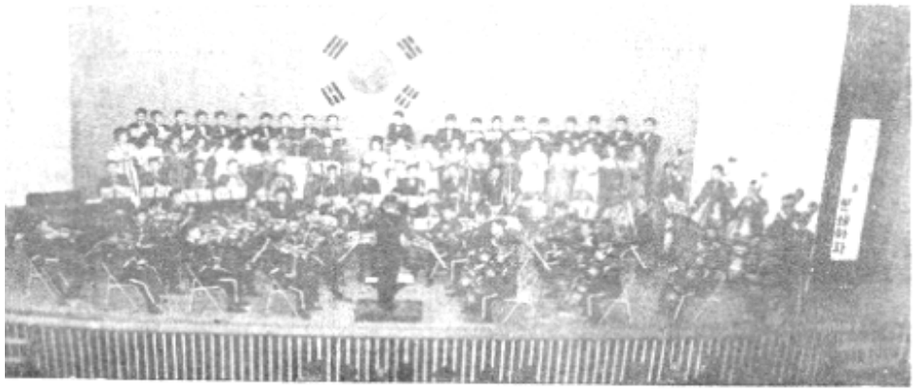
철호는 울상을 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앉으락 서락하며, 금년 토정비결에 구설수(口舌數)가 있다던 것을 생각해 보았다.

첫시간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리고 교무실 안은 다시 떠들썩하게 요란한 소리가 뒤끓기 시작했다.

〈끝〉

무의탁 사병에 위문품

공군장교부인회에서 무의탁 사병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지난 연말 위안회를 베풀고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1962 ,12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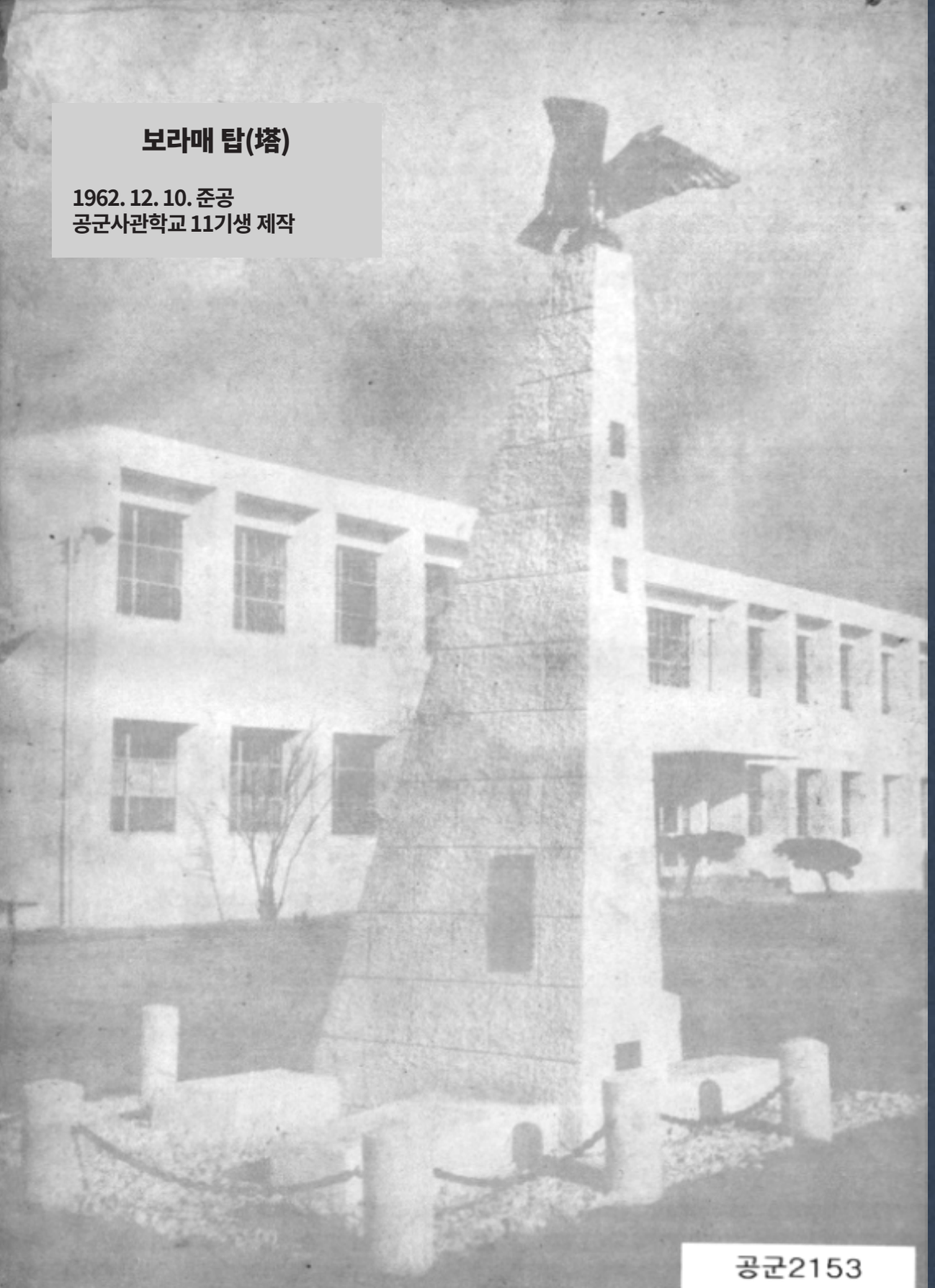


송년 시민위안 연주회 성황

혁명과업과 완주와 새로운 복지국가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안하기 위한 공군교향악단의 「송년시민위안 연주회」가 시내「3 · 1당」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1962 ,12 ,15>

문예작품 입선작 시상식

건전한 군인 정신을 함양하고 승공민주 이념을 고취하기 위하여 공군본부 정훈감실에서 모집한 62년도 제 2차 군내 문예작품(단편소설 및 논문) 입선자에 대한 시상식이 본부 정훈감실에서 거행되었다.
<1963 ,1 ,7>



보라매 탑(塔)

1962. 12. 10. 준공
공군사관학교 11기생 제작

공군2153

미 사 일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